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4월6일, 20일, 27일 64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3월 23일(음력2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518호

사회운동의 '틀' 바꿔야 한다

"정책생산·재원조달 등 한계 많다" 자성 잇따라

불교 바탕한 대안 모색으로 공감대 넓혀야

정토회가 활동방식을 상근자 중심에서 회원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들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토회의 회원 중심의 운동방식은 단순히 활동인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생산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소수 그룹에 의해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기존 대부분의 단체들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들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의 변화를 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사회운동단체들은 이같은 변화를 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교사회운동단체는 정토회,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평불협 등 30여 곳 정도. 하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활동으로 연결시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처능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당수 단체들의 대표자가 스님이고, 승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현재의 승-재가 구조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견해가 많다.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

결국 효과적이고 파급력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게 되고, 이것이 대중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이벤트성 행사에 급급하게 되고 이슈를 생산하기 보다는 쫓아다니기에도 벅찰 수밖에 없다.

A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호주제 폐지 문제나 조계종 비구니부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단체가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고 반문한 뒤 "사회와 불교 내부의 이슈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책생산은 꿈같은 얘기"라고 말한다.

B단체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 근본적으로 단체들이 갖는 한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단체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불교사회운동단체들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불교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문제.

대부분의 불교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은 단체들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 종단이나 사찰에서 재정 일부를 사회단체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계종이 실시하는 '불교사회단체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체들의 활동취지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종단이 '불교사회활동진흥법'과 같은 법령을 마련해 단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실련이 좋은 모델이 된다. 경실련은 활동가와 전문가, 그리고 이슈와 관계가 있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 등 3자가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불교계도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보다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슈를 쫓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슈를 생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실련 위정희 사무국장은 "예를 들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불교단체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불교단체들이 불교라는 가치를 통해 움직이는 만큼 이런 종교성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세영스님도 "재원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교가 지향하는 사회가치에 대한 사부대중의 인식공유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8일(21박 22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 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총 60시간에 걸쳐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인각 스님 / 3월 26일 오후 2시 범어사

生 마감하는 순간에라도

부처님 만나길 …

중앙승가대 학인 56명 '호스피스' 교육

고대 안암병원서 6주 코스 … 학점과 무관



중앙승가대 학인 56명은 임종직전 환자의 고통을 보살피는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대 병원에서 실시하는 6주간의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을 수강한다. 앞에 선 이들은 같이 공부하는 일반인들. 사진=박재완 기자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는 것이 부처님의제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죠"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서울 안암동 고려대 병원 8층 대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3월 18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회(회장 이규완)의 자원봉사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모인 사회복지학과 2, 3, 4학년 비구·비구니 56명이다.

첫 시간은 혈액종양내과 김열홍 교수의 '암의 최신치료법' 강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약사여래의 화현이 될 학인 스님의 눈빛은 무척이나 빛났다. "실제 몸이 아픈 신도들을 대하는데 적절한 대처방법 배우고 싶어요(2학년 해진)" "늘어나는 노인들이 행복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스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2학년 향림)" "이론이 아닌 임상에서 말기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보고 싶어요(3학년 용훈)"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학인들이 고려대 병원 호스피스 과정을 수강하게 된 것은 지난해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지현 스님의 권유덕분이다. 지현 스님은 이미 9년째 이곳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이웃종교인 천주교와 기독교의 경우,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임종직전의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개종시키는 적극적 선교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실천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불자는 물론 비종교인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진정한 불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호스피스 봉사를 간절히 바라는 임종환자들이 수없이 많은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구나 학점이수에 필요한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수강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던 김려원 수간호사는 "타종교 성직자들의 교육수강은 꾸준했지만, 이번처럼 스님들이 단체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는 처음"이라며 활짝 웃었다. 한편, '호스피스 대상자와 의사소통' '호스피스환자의 통증관리' '심리간호' '삶과 죽음의 의미' '사별 가족관리' 등 20여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하루 4시간 씩, 총 6주간 강의와 자원봉사 실습을 하면 고려대병원 호스피스회가 지급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할'



그림·조태호

혜국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삶의 지혜를 원하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책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가르침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밖으로부터 불행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왔다라고 생각한다. 허나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자신이 괴롭게 되는 것은
그 불행과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끌어 잡아당기듯이 끼리끼리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고(苦)'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저자 안양규 / 값 9,000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www.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스리랑카 조계종복지마을 내달착공

고아원 · 양로원 · 보건소 · 사찰 등 10만평 규모
긴급재호구호봉사단 · 자비나눔기금도 본격화

지진해일성금 20억 넘어

조계종에서 실시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 성금이 20억9백여만원을 돌파(3월 16일 기준)한 가운데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이 4월 착공된다. 상시 재해대응을 위한 '긴급 재해 구호 봉사단'과 대사회 자비나눔 실천사업 재정마련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가칭)'도 본격화 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복지마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립해 가칭 '코리안 부디즘 타운'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복지마을 부지는 완공 후 한국불자와 원활한 유대를 위해 방문이 용이한 ▲공항↔캔디 ▲콜롬보↔캔디 ▲캔디↔담블라 세 곳 중 한 곳을 선택한다. 마을 건립은 조계종에서 부담하지만 운영은 양국의 공동인사로 구성된 가칭 한국 · 스리랑카 문화 · 사회 복지 재단(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맡는다.

복지마을 규모는 약 5~10만평이다. 이 가운데 1500여평의 건물을 지어 고아 100명, 노인 30명을 수용한다.

복지마을에는 고아원 10채(한 채당 40평), 양로원 5채(한 채당 30평), 보건소 1채(50평, 입원실 · 치료실 · 사무실), 종합 관리 사무실 1동, 사찰(법당, 설법전, 요사채) 3채, 교육편의시설 1동, 방문객 숙소 1동, 공공 화장실 2곳, 놀이터 2곳, 운동장 1곳, 내부공원, 작물 재배터 등이 들어선다.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공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고아원, 양로원, 보건소, 놀이터, 종합 관리사무소가 건립된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공사에서는 종합 교육시설(독서실 · 컴퓨터실 · 학술교류센터), 공원, 운동장, 사찰이 마련된다. 복지마을 완공식은 2006년 11~12월 경 봉행된다.

긴급 재해 구호 봉사단은 조계종 복지재단 소속의 자원봉사단을 주축으로 결성된다. 평시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활동을, 해외재난 발생시에는 현장에 급파돼 재해구호 활동을 한다.

자비나눔 기금은 종단 책임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사회명망가까지 포함하는 20명 내외의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뢰도를 확보한다. 또 '봉축 자비 나눔' 기금모연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축적한 다음 종령 제정을 추진한다. 기금은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재난, 기아, 난민 등 극빈소외계층들을 위해 쓰여진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템플스테이 활성화 전망

신규 15사찰 지정…홍보 · 예산도 늘려

템플스테이 사찰이 44개로 늘어나고, 사찰경상비 및 시설개선 지원비가 증액되는 등 템플스테이가 적극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기존 운영사찰 36곳 가운데 7곳이 전통사찰로서의 사격 미달, 운영의지 미흡 등으로 제외되고 신규신청 22곳 가운데 15곳을 새롭게 추가해 최종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했다고 3월 15일 발표했다.

신규로 지정된 15곳은 봉은사, 길상사, 평택 수도사, 파주 보광사, 공주 영평사, 남원 실상사, 강진 백련사, 장성 백양사, 나주 불회사, 화순 운주사, 보성 대원사, 평창 월정사, 동해 삼화사, 밀양 표충사, 합천 해인사 원당암 등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밖에도 올해 운영사찰의 전문성 제고, 해외 홍보 마케팅 주력, 템플스테이 전문 자문진 및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대외협력사업 주력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증액된 경상비를 각 사찰 경상비 및 시설개선 지원비로 적극 활용해 운영사찰의 환경 인력 전문성을 키울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낙산사 통도사 등 11개 지정 운영사찰을 선정, 일반운영사찰과 구분 운영했던 것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운영능력이 뛰어난 사찰을 선정해 차후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홍보를 우선해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봉원사문제 9인 대책위 구성

조계종 법안 · 태고종 법현 스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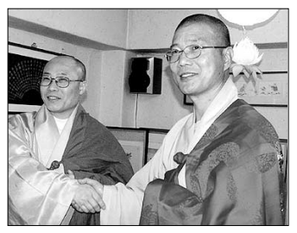
"대화로 해결" 재천명

조계종과 태고종은 3월14일 산중다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신총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9인의 신촌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과 태고종측 대표인 법안법현 스님은 "대책위에서 대화를 통해 각종 소송 취하 등 모든 해결방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측은 11일 대책위원회 산하에 토지 공동조사단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계종측 대책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총무부장 무관, 기획실장 법안, 재무부장 동진, 호법부장(공석) 스님이 중앙종회에서 부의장 원택, 종회의원 정휴 영배 장적 스님, 조계종 봉원사 주지 성국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왼쪽)과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이 손을 잡고있다.

또 태고종측 대책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부원장 보경 자월 해공, 총무부장 월해, 교무부장 법현, 기획부장 법안, 봉원사 주지 구해, 종회의장 인공, 종권수호위원장 대운 스님이 선임됐다.

김원우 기자

"도덕 · 역사 필수과목 마땅"

법장 스님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독도 및 일진회 문제와 관련 "학교에서 도덕과 역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3월 17일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예방한 자리에서 "독도 및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해 역사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진회 문제 또한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이 지식 위주로 돼 있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를 비롯해 범사회적으로 인간성 회복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도덕과 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각급 학교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승려 노후복지 연석회의 제안

조계종 일승회, 선거법 개정도 공론화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일승회가 제166회 임시종회를 앞두고 당면한 종책 현안과 올해 종책 활동 방향을 3월 16일 밝혔다.

일승회는 종책 현안과 올해 활동 방향으로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총무원-교구본사-중앙종회 연석회의' 제안 ▲중앙종회의원 면책특권과 표결방식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전력 ▲선거공영제 강화 및 선거권 연령(승납)문제 등 선거법 개정 공론화와 합리적인 대안 모색 등을 내놓았다.

일승회는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차 공사가 완료되는 올 7월 이후로 잡고 있다. 계파를 초월해 중앙종회 의장단, 각 상임분과위원장, 중진스님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구별 재적승에 비례한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 일승회는 "전체 중앙종회의원이 1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8차 韓中日 불교대회 10월 불국사서

15일 예비회의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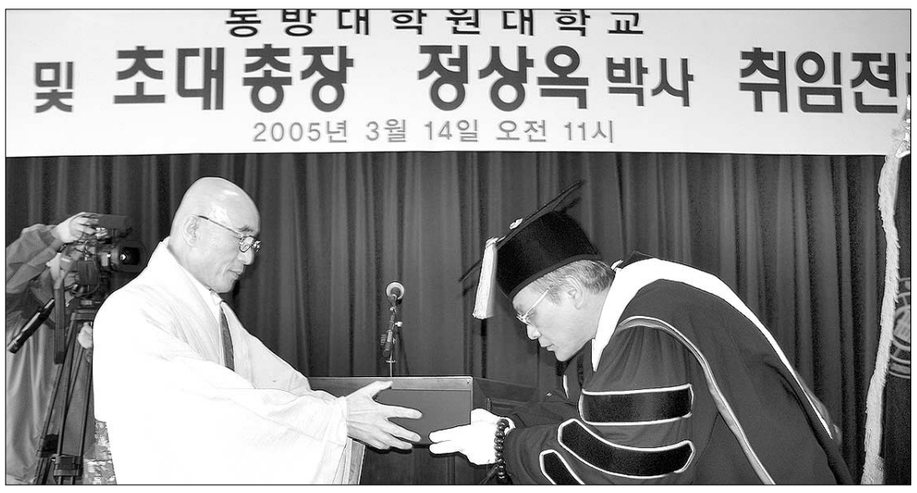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3월 15일 제주 라만다 플라자 호텔에서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교류협회 대표단과 예비회의를 갖고 제8차 한중일 대회를 경주 불국사 일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0월 24~26일까지 열리는 제8차 한중일대회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3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300명, 중국 100명, 일본 100명등 총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인류사회 발전과 3국 불교의 역할'에 대한 학술강연회와 각국에서 선정한 자유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대회는 ▲3국 불교유산 전시 ▲3국 불교음악 협연 ▲3국 합창경연 및 시범연주 ▲불교미술대전 ▲불교환경 사진전시회 등을 부대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대표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제4차 한국불교수행 중국체험단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이사장 운산 스님이 정상옥 초대 총장에게 학교 열쇠를 전달하고 있다.

초대총장 취임…첫 입학식

태고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210명 등록

태고종립 동방대학원 대학교 제1회 입학식 및 초대 정상옥 총장 취임식이 3월 14일 대학내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 및 총장 취임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조계종 원로 도윤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종회의장 인공 스님, 부원장 보경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 김응현 설립대표자겸 초대이사장, 김석진 동방문예진흥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운산 스님은 치사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입학한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문화 계승을 통해 21세기 세계화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옥 총장은 취임식사를 통해 "동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학과 전공의 전문화로 전통 학예를 이시대에 맞도록 재조명하고 새로운 체계로 정립해 국가번영에 기여하는 대학원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며 "2006년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미래예측학과 자연치료학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도 동방대학원 대학교에는 석사과정 30여명, 연구과정 27명, 문화교육과정 210명이 등록했다.

글 · 사진=김원우 기자

고침 본지 517호 23면 중 '괴산' 법천사를 '증평' 법천사로 고칩니다. 또 26면 중 아름다운 나눔장터는 '매주'가 아니라 '격주마다 열림'으로 정정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조동종 총본산 社團法人 韓國佛教曹洞禪林

원효불교대학 공개강좌 안내

본 대학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의 종찰인 원효사가 불교대학 개강준비 일환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본 대학은 부처님의 진리와 중도사상을 근본이념으로 선교겸학(禪敎兼學)의 교학체계(敎學體系)와 불교지도자 및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이신 오형근교수(철학박사)님을 모시고 공개강좌를 실시함을 알리오니 많은 동참하시여 불법의 진리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목
가) 조동선학 논총(曹洞禪學 論叢) - 필자 직강좌
나) 유식학입문(唯識學入門) -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자세하게 분류 체계화 설명
다)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 -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영혼설과 업력 윤회의 도리 해설
라) 반야심경 - 대승불교의 공사상 해설
마) 인도불교의 선사상 - 소승선과 대승선(조동선) 사상적 해설 강좌
2. 교육기간 : 2005년 4월 7일 ~ 12개월
3.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대학강의 기준)
4. 교육강사 :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 오형근 명예교수(철학박사)
5. 입학자격 : 가) 승려 및 일반불자(성별제한없음) 나)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6. 입 학 금 : 100,000원(원서료 및 교재비포함)
7. 수 강 료 : 50,000원(매월)
8. 제출서류 : 본대학 소정의 서류(여권사진 3매)
9. 수강신청 마감일 : 2005년 4월 6일
10. 특 전 : 가)본 대학졸업자는 졸업장 및 졸업 기념패 수여 나)본 대학졸업자는 종단 전교사 자격증 수여
11.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 원효사
원효불교대학 교학처 02)718-6221 / 713-0475

「曹洞禪學論叢」제1집 조동선학논총

◇ 曹洞宗 源流訣 - 五家法統次序譜
釋金堂 (파평산 휴휴암주)
◇ 조동종 默照禪의 연구
吳亨根 (동국대 명예교수)
◇ 曹洞禪思想의 연구
洪修平 (중국 南京大 교수)
◇ 羅末麗初의 曹洞禪
金永斗 (원광대 교수)
◇ 중국 조동선과 新羅禪師 - 「동산록」所載의 신라인식을 중심으로
卞麟錫 (전 아주대 교수)
◇ 眞如禪寺의 과거와 현재
崔錫煥 (월간 「선문화」 발행인)
◇ 현대중국 선종 중흥조 虛雲和尙 행장
一成 (운거산 진여사 방장)



조동선(曹洞禪) 첫 연구서 출간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대표 총무원장 今禪 鶴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삼각산 원효사 전화 02)704-8065, 713-0475 팩스 02)704-8064

자긍심은 높은데 취업은 글쎄…

동국대 재단, 교수 · 학생 · 졸업생 458명 설문

동국대-조계종 관계개선 요구 높아
취업위해 응용불교학 교육 강화 제시
발전저해 요인 "교수관심 부족" 35%

동국대 불교대학 구성원 상당수가 불교학 전공이 취업 및 진로를 결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교과과정 전반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국대 이사회 내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 · 이하 발전위)은 지난해 12월 6일~올 1월 21일 서울 경주 캠퍼스 교수, 강사, 대학원생, 재학생, 졸업생 등 총 458명을 대상으로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을 위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 17일 관련내용을 발표했다.

설문은 서울 경주 캠퍼스 교수 · 강사 107명(67명 회수),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생 132명(29명), 재학생 462명(236명), 졸업생 1616명(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발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8일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설문은 주로 재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교과과정, 교수임용과 교수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학원생(21.9%)과 졸업생(7.79%)의 응답이 저조해 학교 밖에서 보는 불교대학의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불교대학의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수차례 있었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데 반해, 이번 조사는 관련 정관개정 등 정책결정의 권한을 가진 동국대 재단이 교과과정 전반과 교수 임용과정 등의 문제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설문 내용을 간추린다.

재학 · 졸업생 모두 자부심 높다

불교대학입학동기를 살펴보면 학부생은 불교에 대한 관심(75.4%), 대학원생은 전공의 심화(41.4%)와 학자가 되기 위해서(37.9%)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 학부생이 막상 입학 후에는 취업과 진학(32.6%)문제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학문적 수요가 낮은 불교학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는데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이 느끼는 불교대학에 대한 자긍심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 졸업생 64.1%가 자신이 불교대학에 다니거나 다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불교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불교대학 이미지 제고(24.2%), 취업률 제고(23.6%), 유능한 교수 유치(18.1%) 등을 꼽았다. 또 종단과 관계를 개선을 위한 선행과제로 55.2%의 응답자가 '조계종-동국대 간의 연구협력체계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졸업생들은 불교대학의 사회적 · 불교적 위상저하의 요인을 동국대의 전반적인 위상저하(30.3%), 교수진의 수준저하, 종단의 지원부족(각 18.5%) 등의 문제를 지적, 최근 각종 대학평가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동국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불교 직장 얻고 싶지만 열악한 근무조건 걸림돌

불교학 전공이 취업 및 진로 선택에 불리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불교학이 사회와 불교계에서 수요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48.6%)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불교계 희망 · 추천 직장으로는 불교계 종립학교(15.0%), 불교계 시민사회단체(14.6%), 불교계 사회복지기관(12.2%) 등을 꼽았으며, 불교관련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71.2%의 응답자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낮은 임금(42.4%), 열악한 근무환경(21.2%), 자기발전 부재(12.1%) 등을 이유로 불교관련 직장을 갖지 않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응답자들은 불교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응용불교학 교육 강화와 교과과정 개선(51.0%), 학생들의 자기개발(19.0%), 종단의 관심유도(18.3%) 등을 제시했다.

교수사회 의식전환 필요

교 · 강사의 강의에 대한 성실성은 성실(45.5%), 보통(36.4%)이라고 답한 반면, 졸업생들은 불교대학 교수들이 학생상담, 지도가 부실(불만족은 36.5%)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졸업생의 상당수가 재학시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수진과 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 · 강사 상당수(36.2%)가 동국대의 교수 임용과정이 폐쇄적이라고 답해 그동안 이와 관련한 외부의 인식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반증했다.

교 · 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불교대학의 발전저해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교대학 교수진의 관심부족(35.2%), 교수간의 반목 분위기(33.3%), 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무관심(11.1%) 등을 지적해 현직 교수들의 화합과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독도영유권 침탈 중단하라"

불교단체 잇따라 日 규탄 집회 · 성명 발표

청년학생본부,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등이 연달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을 규탄했다.

대불청, 대불련, 기독청년협의회, 가톨릭청년학생연대 등 28개 청년단체가 활동하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청년학생본부'(대표 김익석, 이하 청년학생본부)는 3월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청년학생본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남북해외 특별결의문'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움직임이기에 용인 · 용납할 수 없어 적극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범죄적 과거사의 축소 · 왜곡을 조속히 시정 · 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한 기자회견문에서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지정 철회, 역사왜곡 행위 중단, 주일대사 추방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6일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 통과와 관련 "일본의 독도관련 조례통과는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교로 규정한다"며 "독도관련 조례안의 즉각 폐기 및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 조례안 폐기 △한일 어업협정 파기 △친일 청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 청산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이하 불교연대)도 "일본 극우세력이 지난날의 조선 침략과 강점을 합리화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하는 파렴치한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짓이다"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했다.

강지연 · 유철주 기자



조계사 일주문기공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종단관계자 및 정 · 관계 인사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조계사 일주문 기공식

올 부처님오신날 이전 완공

조계사(주지 원담)는 3월 12일 일주문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총무원장 법장, 원로회의장 지혜, 중앙종회의장 법등, 총무부장 무관, 기획실장 법안, 조계사 주지 원담,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을 비롯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종단 중진 스님 및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사 일주문은 우정국로와 경내를 잇는 관문으로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전흥수 대목장이 공사 전반을 책임진다. '솟을산문' 형식의 맞배지붕인 일주문은 15평 규모에 폭 8.8m, 길이 20.5m 높이 10m로 5월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교수포교사제 도입 요청

교불련, 법장 스님 예방

김용표 회장 등 교수불자 연합회 회장단은 3월 17일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자 교수들을 조직화 해 학교일선에서 포교하는 교수포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교불련에 등록된 회원수는 1500여명. 실제로는 5000여명으로 추산하며 이들 중 신청자를 접수하고 포교원 등의 추천을 받아 교수포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교불련의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군법당에 위문품 보낸다

군불교진흥회 2만여점

매년 군법당에 위문품보내기운동을 벌여온 (사)군불교진흥회(이사장 정각 · 법륜종 종정)가 올해에도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2만여 개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위문품은 경기도와 강원도지역의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발송되며, 위문품에는 음료수, 초코파이, 초콜릿, 과자, 합장주 등이 포함된다.

군불교진흥회는 위문품 제작 · 포장에 소요되는 5천여만 원을 회장단, 이사 등의 특별 후원금, 각 종단과 불자들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3월 14일부터 모금에 들어갔다. 자녀를 군부대에 보낸 불자들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부대에 지정기탁도 가능하다. 박봉영 기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장기기증 캠페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3월 12일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첫 장기기증 캠페인 사업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 날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2000여명의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회원등록의 필요성을 강조, 600장의 장기기증 회원가입 신청서를 배포했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4월 착수

분야별 계획서 검토후 실시키로

지난 2월 3일 지율 스님이 단식을 회향하면서 정부와 합의한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4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3월 12일 정부와 지율 스님측 공동조사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천성산 현장답사 결과 양측은 시추지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양측은 간천계곡 등 몇 군데 시추할 지점을 확인했으며, 양측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계획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되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율 스님측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조사계획서 취합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4월에나 환경조사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철주 기자

재가연대, 쌀 지원자 선정

45개 단체 · 개인 발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주관한 '제2차 시민운동가 마음나누기-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선정 발표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실련을 비롯한 45개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3월부터 매월 9인 1조로 40kg씩 2회에 걸쳐 쌀을 받게 된다.

조계사(주지 원담)와 봉은사(주지 원혜)가 각각 20가마와 25가마를 지원해 이뤄진 이번 사업에 대해 재가연대는 △신청순서 △소속단체가 동일할 경우 지역단체 △신청사유상의 절박성 △여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2006년에도 더 많은 협찬처와 이웃종교단체 등을 확보해 '제3차 시민운동가 마음나누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2005年 재가 在家 화엄학림 華嚴學林 제1기 수강생 모집

(사)자비신행회. 실상사 화엄학림 공동교육기관

실상사 화엄학림과 사)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대승경전의 꽃 화엄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한 <재가 화엄학림>이 문을 엽니다.

2년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 주야간으로 마련되며 초기불교, 부파불교, 유식, 중론, 금강경 등의 기본교육 과정과 화엄사상사, 화엄현담, 화엄경 등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재가 화엄학림 강사진은 도법스님, 재연스님, 각묵스님, 해강스님 등 현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진이 참여합니다.

그동안 재가불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화엄사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재가 화엄학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공과목

학 년	교 과 목	담 당 교 수
1	초기불교	재연 스님
	부파불교	각묵 스님
	대승불교개론	해강 스님
	중론	재연 스님
	금강경	각묵 스님
2	유식개론	각묵 스님
	대승경론	해강 스님
	화엄사상사	화엄학림 강사
	화엄현담	화엄학림 강사
	법계도기(법성게)	화엄학림 강사
	화엄경	화엄학림 강사
이수학점	2학년 4학기(27과목) 총 41 학점	

이수과정

재가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기본교육과목과 본 교육과목으로 구성
찾아가는 화엄학림을 통한 현장학습과 수련회, 특강으로 구성되며
졸업을 위해서는 총 35학점 이상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 주 1회 수업 : 주간(오후 2:00-5:00, 3시간)
  (매주 목요일) 야간(오후 7:00-9:00, 2시간)
- 찾아가는 화엄학림은 학기당 2회, 수련회는 학기당 1회
- 특강은 방학중에 실시
- 강의실 : 자비신행회 강당(광주 동구 내남동)

모집요강

- 대 상 :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분
- 정 원 : 총 150명(주간 100명 / 야간 50명)
- 모집기간 : 2005년 3월 25일까지
- 입 학 식 : 2005년 3월 26일 오후 3시(도법스님 개강 특강)
- 문 의 : 사)자비신행회 사무국 062-234-2732



(사)자비신행회. 실상사 화엄학림 공동교육기관 재가 在家 화엄학림 華嚴學林

20~30대 선호 … 기독교인 20% 넘어

참가이유 내국인 '자기성찰 기회' 외국인 '한국전통 이해'

템플스테이 참가 내 · 외국인 1668명 설문결과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국인 5명 가운데 1명, 외국인 5명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으로 드러났다. 또 내국인은 '자기성찰의 기회'로, 외국인은 '한국 전통과 문화의 이해'를 위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지난해 9~12월 15개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1494명의 내국인과 174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내국인

-참가 이유와 만족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국인들은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기 위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경우가 35%로 가장 높았다. 새로운 문화 체험(23%), 산사에서의 휴식(24%) 등도 주요 참가이유로 드러나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불과 참선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자 종교 및 연령 분포

참가자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37%, 개신교 10%, 가톨릭 9%, 유교1%, 무종교 38% 등으로 나타나 5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참가연령은 20대(37%)와 30대(26%)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19%), 50대(9%), 60세 이상(3%)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도가 낮아져 템플스테이가 젊은 층 포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형태로는 개인 참가자가 47%로 가장 많았고, 기업(23%), 일반단체(11%), 대학생(10%), 불교단체(9%) 순으로, 기업과 일반단체의 참가도가 높아 앞으로 대상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드러냈다. 성별로는 남자(53%)가 여자(46%)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참가자가 65%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울산은 1%에 머물러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20%, 교육 및 연구종사자가 19%로 나타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주부참가자가 12%로 사찰별 분석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 차후 주부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야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참가 이유와 만족도

같은 기간 외국인 개인 참가자 174명은 '한국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으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참선과 예불도 70% 이상의 호감도를 보였는데 특히 예불에 대한 호감도는 80%에 육박해 화려하고 장중한 의식 등 한국불교의 문화적인 측면을 좀더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종교 및 연령 분포

여자(53.4%)가 남자(44.8%)보다 참가비율이 다소 높았고, 미국인(17.2%)과 중국인(9.8%)인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캐나다 · 일본(각 6%), 독일 · 베트남(각 5%), 프랑스(4%)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했으며, 동양권보다는 서양권 외국인들의 참가가 두드러져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외국인 역시 20대의 참가율이 50.1%로 월등히 높았고 30대(20%), 50대(10%), 40대(9%), 60세 이상(4%), 10대(3%) 등의 비율을 보였다. 종교분포 역시 무종교 참가자가 35%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22%), 가톨릭(14%), 불교(13%) 등 불자가 아닌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시설 만족도

진행자의 친절성(95%) 및 전문성(90.2%)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 청결도와 편의도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화장실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설비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한국 비구니史 복원은 내 의무"

인터뷰 美 조지아大 이향순 교수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수입종교였던 불교가 토착불교로 변하고 있어요. '미국식 불교'가 시작되는 거죠." 미국 조지아 대학 비교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향순 교수(49 · 사진).

3월 13~19일 운문사 등지에서 열린 조지아대학 템플스테이 (관련기사 9면) 참가학생들과 함께 방한한 이 교수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인사가 의욕적으로 준비 중인 비구니 외국어학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년 동안의 생활과 학습이 영어로만 진행되죠. 외국문화를 제대로 익힌 스님들이 나오면 한국불교의 판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교수는 모든 스님들이 외국어공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젊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승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세계 어느 곳에도 한국의 승가와 같은 조직은 없거든요. 스님들은 승가를 제대로 운영해, 외국인들이 배울 있도록 하고 외국 상황에 익숙한 재가자를 통한 '이원적인 포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여기에 한국비구니들의 역할이 크죠."

이 교수가 이렇게 한국 비구니에 기대감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 혹심한 탄압 속에서 한국불교가 명맥을 이어간 것은 이름 모를 비구니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이 불교의 전부라고 믿는 일본불교의 출발이 백제 비구니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큰 기쁨을 느꼈어요. 한국 비구니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죠."

그때부터 이 교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한국의 비구니'를 복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조가 아무리 많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상(相)을 내세우지 않은 게 한국의 비구니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삶을 다시 밝은 빛 앞에 세우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교수는 조선시대 비구니 등의 역할 등에 주목한 다수의 논문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불교대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 교수는 비구니 스님 연구나 예술 문화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불교연구, 학제간 연구를 통해 불교적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찰내 개인 거주건물 재산세 부과

사찰 내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주거용이나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3월 16일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직접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등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다"며 "종교용으로 인정한 법당 건물을 제외한 시설의 내부가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정인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찰 내부의 건물이 종교 목적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 등 2억1370만원을 부과 처분한 관할관청의 과세에 불복한 경남 'ㅌ'사찰 서울 포교당으로 등록된 성북동 '0원'이 제출한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행자부의 최종 결론이다.

행자부의 당당 심사관은 "98년부터 사찰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비과세했다"며 "이 사찰을 세무조사 한 결과 모 건설회사 자택과 담장이 처진 채 접한 사찰건물 1동이 분리된 것을 확인하고, 사찰과 관련이 없는 주거용 주택에 세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북구청은 법당을 포함한 3채의 건물 중 불상을 모셔둔 1채만이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채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를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받은 '0원'은 "법당 건물 이외의 건물에는 외국인 스님들이 거주하며, 참선수행하고 있으며, 세금부과 대상이 된 건물은 부속암자로서 청소관리 등을 위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자치부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산하단체 '신도센터' 불사 제안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종 신도 · 포교 · 사회 · 학술 · 연구단체들이 가칭 '신도센터' 불사안을 마련, 3월 1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불사안은 2개 안으로, 하나는 현재 교육원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을 신도회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다른 안은 조계사 앞길 건너편 부지(견지동 73번지)에 신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는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21개 신도단체, 포교사단을 비롯한 6개 포교단체,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7개 사회단체, 불교학 연구회를 비롯한 학술 · 연구단체들이 입주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남동우 기자

불교단체 활동가 워크숍

불교단체활동가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이 개최된다.

조계종 사회부와 중앙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주요 실무자들은 3월 15일 모임을 갖고, 불교계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월 27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활동가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사찰오수처리시설 교육

조계종 사회부(부장 정념)는 3월 25일 오후 2시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5 사찰오수처리시설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설악산 봉정암, 내장산 도덕암, 북한산 금선사, 북한산 청학사 등의 4개 사찰과 2002년에 시설을 설치한 17개 사찰 등 모두 21개 사찰이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나를 먼저 돌아보자

최근 부산불교신도회 문제와 관련해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부산불교신도회에서 퇴직권고를 당한 A씨가 함께 일했던 재가자 B씨와 관련된 진정서를 들고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B씨 또한 조만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시점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A씨와 B씨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거나 '도대체 부산불교신도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두 사람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혹자는 이번 갈등이 두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불교신도회 조직이나 교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했고 또 어떤 이는 대화를 통한 지혜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A씨와 B씨, 부산 교계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표명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는 판단에 앞서 그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두 재가자의 '등돌림'이 주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인간의 삶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화로서 풀 수 없는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면 내 주장을 펴기에 앞서 한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상대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힘써 내 몸을 되살펴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 부산 불교계와 부산불교신도회를 위하는 합의점을 찾는 대화의 봄바람이 A, B 두 사람에게는 물론 부산 교계에 불어와야 할 때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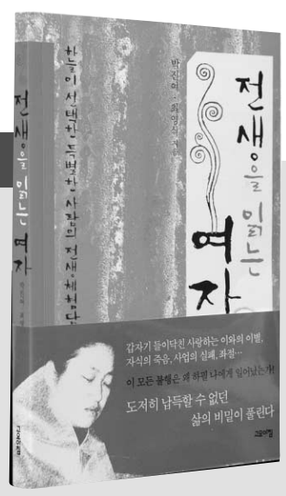
에드가 케이시에 못지 않은 놀라운 리딩 능력의 소유자 박진여씨의 최면투시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카르마(업)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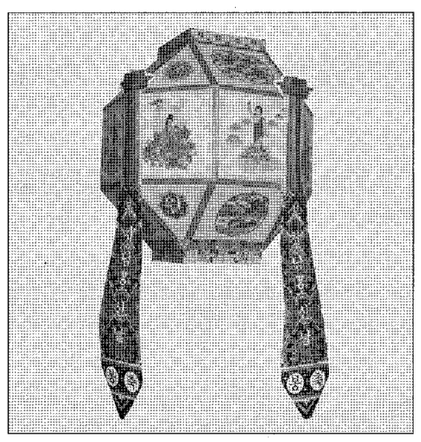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996-6156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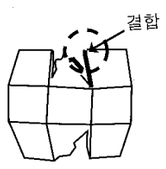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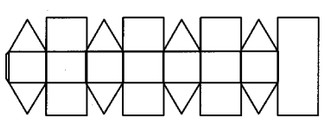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복지인프라구축 지역민 '관심집중'

부산 용호복지관, 지역 기업 · 관공서 등과 자매결연

부산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이 지역의 기업, 관공서, 병의원, 봉사단체, 지역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민들이 지역복지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협약식을 통해 시민여객, 동명대학, 해군 3함대 의무대, 부산시립 중앙도서관, 신세계이마트 문현점, 김인영 내과 등 10여 단체가 용호복지관의 결연단체가 됐다. 이들 단체 중에는 1999년부터 후원,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해온 단체도 있지만 자매결연을 통해 한층 더 폭넓고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한 단체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마트 문현점의 경우, 협약 체결 전에는 직원들끼리의 봉사활동에 그쳤으나 체결 후 봉사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높아지면서 봉사참여 인원 증가, 후원금 책정에 이어 회사 차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빠르면 4월 중 창단될 용호복지관 용호햇빛극단도 지역 주민이 이웃들의 복지를 직접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복지관에서 공연을 펼치면서 인연된 지역 연극단체인 남구연극회의 박동민 회장이 용호햇빛극단의 창단을 적극 돕고 있다.

용호햇빛극단은 빠르면 5월 열리는 복지관 주최 용호장승축제에서 첫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연극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용호햇빛극단은 매년 정기공연 2회, 방문공연 2회를 목표로 노인정, 아파트 단지, 학교, 노인대학 등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특히 향후 어린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극단을 통한 교육연극이나 음악, 미술 등의 전문가들과의 협약으로 보다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도 구상 중이다.



용호복지관은 3월 17일 김인영 내과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연내 100건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참여단체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용호햇빛극단' 창단, 주민에 문화 서비스
'인연의 고리 100건 만들기'로 협약업체 발굴

이 밖에도 용호복지관은 사옥 이전으로 중단됐던 동국제강의 후원과 봉사도 협약체결로 되살리고 용호동 적십자봉사회, 적십자불교봉사회 등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용호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웃들의 복지를 챙기고 다양한 사업의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내에 '인연의 고리 100건 만들기'를 목표로 협약업체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중 복지관 한쪽 벽면에 '사랑 나눔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고 봉사나 후원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등재할 계획이다.

이춘성 부관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힘이 돼 주면 지역 복지에서 못할 일은 없다"며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지역복지 현장에 신바람 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051)628-6737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소림사 참회산림대법회

부산 소림사(주지 혜전)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 28회 소림사 참회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참회 산림 대법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에는 자비도량참법기도가 봉행되며 24일부터 매일 혜인 스님, 무심 스님, 통광 스님, 종범 스님, 묘허 스님, 설우 스님 등의 법문이 이어진다. 참회 산림법회 회향 후 3월 31일에는 방생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소림사 참회산림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법사이고 소림사 회주 정일 스님의 은사이신 금광 스님이 48년 전 화엄산림, 법화산림과 함께 봉행해왔던 법회로 산림법회가 흔치 않았던 당시, 하루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법회였다. (051) 468-4497 천미희 기자

우곡선원 청소년 참선 교실

(사)우곡선원(http://www.wookok.org)은 2005학년도 시행되는 월 한차례 토요휴업일 제도를 맞아 청소년들의 심성개발을 위한 참선(명상) 교실을 연다.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해운대 오션타워 1930호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참선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4차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참선 교실은 몸과 마음 가꾸기, 주의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있다.

명상, 선기공, 호흡법, 3분 명상, 마음열기, 토론 등의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좌선의 자세와 방법, 반가부좌 좌선 체험 등의 프로그램 후에는 학생들이 느낀 점 발표하게 함으로써 참선을 통한 마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백섬과 해운대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자연 속 명상'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1)740-6288

천미희 기자

대구 · 경북 108 여성불자회 창립

대구 · 경북지역의 여성 불교지도자들이 3월 8일 대구 · 경북 108여성불자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8여성불자회는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불교예술가 박소현 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108여성불자회에는 구후선(대구 대성사), 권운자(대구 부도암), 김승규(포항 황해사), 박태연(대구 부도암), 장성숙, 이재남, 김선희, 정봉남(직지불교대학), 진선화(대구 정법사), 김미연(보덕사), 조경숙(감응사), 김순옥(포항 옥천사), 김경자(보문사), 이분선(보광사), 심순옥(황룡사), 정정희(한마음선원 포항지원), 김옥란(영남불교대학) 씨 등이 참여했다.

108여성불자회는 앞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자원봉사 및 후원, 여성불교회관 건립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편협성 버리고 불국토 건설에 힘쓸 터"

박소현 초대회장



"갈등과 반목은 화합으로 승화시키고, 이타의 보살행원을 실천하며, 무시와 차별은 자비로써 치유하는 108여성불자회가 되겠습니다."

3월 8일 출범한 대구 경북 108여성불자회 박소현 회장(사진)은 "개인의 인연 따라 스님과 종단을 구분하는 편협성을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인간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역 여성 불자 108명이 뜻을 모았다"고 창립취지를 설명했다.

"여성불교회관 건립 방송 모니터 활동 등 계획"

"종단과 사찰 구분 없이 모든 여성 불자들이 함께 모여 불교발전을 논의하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박 회장은 여성 불교회관 건립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또 다양한 계층의 여성 불자가 모인 만큼 방송모니터를 통한 불교지킴이 활동과 노인의 전화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서 소현화실을 운영하며 불교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 회장은 "지금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안동 영주 구미 등 제2, 제3의 108여성불자회를 조직해 언젠가는 온 산하대지를 태우고 불국토를 이룰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053)625-0108

배지선 기자

"경험 · 연륜 맘껏 발휘하세요"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 · 경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
거리환경지킴이 등에 배치

부산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는 3월 17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단 '양정 그린(GREEN) 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혜총 스님, 안영일 부산진구청장, 박홍재 부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47명은 발대식 선서로 일을 통한 보람을 찾아가는 노년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사진).

양정 노인 일자리 사업단은 지하철지킴이, 교통질서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를 비롯 다도, 동화 구연,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등의 자격 보유자들이 활동하는 강사단, 재가독거노인 도우미, 재생비누 만들기 사업단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혜총 스님은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배우고 사회로 환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866-0454

한편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산하 기관인 대구남구시니어클럽(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도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덕노인복지회관과 함께 남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2005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사업 설명, 사업 참여자 선서, 사례발표, 지성희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의 '고령화사회의 노인의 역할'에 대한 초청강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어르신은 모두 300여명.

대구 남구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문을 연 재활용전문매장인 '행복한 나눔가게'가 3월 한 달간 계절물품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복한 나눔 가게는 "겨울의류, 가전제품, 가방 등 겨울 중고품을 500원에서 3,000원의 저렴한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053)474-1144

또한 경주시니어클럽 어르신사업단도 18일 발대식을 갖고 경주지역 4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가, 건달바풍물패, 문화유적보존 사업단, 찰보리빵사업단, 차문화 예절반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천미희 · 배지선 기자

포항 불교 · 천주교 화합 결의

지도자 모임 구성 정기적 사절단 교류 약속



시장의 종교 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포항지역 불교계와 천주교계 지도자들의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포항 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과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 천태종 황해사 주지 용암 스님 등 지역을 대표하는 5명의 스님은 3월 11일 대구 대교구 4대리구 조정헌 주교대리신부, 이경기 사목담당신부 등 5명의 신부들을 만나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때 축하사절단의 정기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등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사진).

또, 양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 자리를 가칭 종교 화합을 위한 수행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향후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두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불교와 천주교 두 종교간의 이 같은 계획은 신임 포항 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이 최근 취임하면서부터 종교간 화합 차원에서 적극 논의 돼 왔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 동림 동문회
제 6,7대 회장 이 • 취임식 및 정기총회

◆일 시 : 불기 2549년 (2005년)3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
◆장 소 : 동국대 옆 앰버스더 호텔(19층 오키드룸)
◆안 내 : 02)2270-3171

연락처 : 제 7대회장 선묵 혜자 스님
수석부회장 : 진 우 스님, 법 운 스님
사 무 총 장 : 덕 오 스님
기 획 실 장 : 선 타 스님
총 무 부 장 : 법 만 스님
재 무 부 장 : 현 종 스님

전 화 : 02)936-1700, 011-412-443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 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봉 제 7대 회장 이 · 취임법회 행

초 대 합 니 다

귀의 삼보하옵고,
물씬한 봄내음이 피어오르는 이 때에 제방의 대덕 큰스님과 제불자님의 법체 청안하시길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 삼보를 수호하고, 전법 포교 실천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제7대 심완식 회장을 선출하여 이 ·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두루 동참하여 주시어 본 법연을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임회장 이외윤 · 신임회장 심완식 · 봉행위원장 박지일 합장

◆일 시 : 불기 2549(2005)년 3월 30일(수요일) 오후 6시
◆장 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안 내 : (02)3446-1990, 3437-7300, 720-1836

주최 :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주관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한국불교법사대학)
후원 : CBC 108.TV

수행·포교·문화 도량으로 '변신'

강화연등국제선원, 4월 중순 재가선방 '고경선원' 개원

강화연등국제선원이 달라진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참선수행도량 역할을 했던 데서 재가자 참선도량이자 외국인들의 한국불교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도 벌인다. 수행 · 포교 · 불교문화체험 등을 아우르는 도량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화연등국제선원은 4월 중순경 내 · 외국인 재가자 선방인 '고경선원'을 개원한다. 지난해 4월 착공해 최근 완공된 80평 규모의 고경선원은 최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참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도, 발우공양, 기초교리 강의, 간화선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외에 주5일제에 맞는 주말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 외에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개인이나 단체에 관계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불교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연등국제선원은 현재 조계종의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단

가족단위 주말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노동자 복지활동 강화
소식지 제작 적극 홍보 방침

체로 사찰체험을 요청해오고 있다. 이들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연등국제선원은 150여명이 기거할 수 있는 요사채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포교에도 적극 뛰어든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활동. 연등국제선원이 위치한 강화 인근의 인천, 김포, 금단, 양곡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등국제선원은 우선 이들을 위한 법률자문 및 의료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병원과 변호사를 섭외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또 이들이 강화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김포 인근에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전해들은 강화 전등사와 선원사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일수 연등국제선원 종무실장은 " 내 · 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재가자선방과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식지도 만들어 연등국제선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032)937-7033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충북사찰, 장병 불교활동 지원



충북불교총연합회 스님들과 37사단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충북도내 사찰들이 형편이 어려운 군장병 가정을 돕고, 군부대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불교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육군 37사단 초청으로 3월15일 37사단을 방문한 15명의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 스님들은 장병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37사단과 매년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하고 이를 통해 장병들의 불교신행활동을 적극 후원키로 했다.

또 사단 측으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연합회 스님들은 한 사찰이 한 명씩 자매결연해 이들의 가정을 돕기로 뜻을 모으고,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만남에는 범추(청주 풍주선원 선원장) · 각의(청주사암연합회장, 용화사주지) 혜암(제천불교총연합회장, 봉정사 주지) · 현진(청주 관음사 주지) · 혜철(옥천 대성사 주지)스님 등과 37사단 김일생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참모 및 연대장 등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행주대첩기념제서 영산재



행주대첩기념제에서 고양사원연합회 스님들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경기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 '행주대첩기념제'에 불교계가 참가, 올해 처음으로 천도재와 영산재를 시연해 호평을 받았다.

고양시사원연합회(회장 도명)와 서울 봉원사는 15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3월 14일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열린 '제412회 행주대첩기념제'에서 행주대첩 당시 목숨을 잃은 영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 및 천도행렬 시연에 이어 봉원사 스님들이 영산재를 시연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씨(고양시 공무원불자회장)는 "천도행렬과 영산재 시연으로 행사가 한층 빛이 났다"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 불교의식을 행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분노의 끈 놓고 관용의 마음 갖자"

탁발순례단 '좌우대립 희생영가 위령재' 봉행



신전마을 위령재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총무 종우 스님은 영가를 위해 청혼소와 장엄염불을 했다.

전남지역을 순례중인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지난 3월 12일 낙안 신전마을에서 '좌우대립 희생영가 위령재'를 봉행했다.

생명평화 탁발순례단과 마을주민,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50여년전 비극의 현장인 신전마을 입구에 제단을 마련하고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날 위령재를 집전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청혼소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인간역사의 비극 현장으로 불행의 원인이었던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찾고자 한다"며 "영가는 물론 살아있는 모두가 분노와 증오, 원한과 복수, 미련과 집착의 끈을 놓고 너그러운 가슴으로 관용의 마음을 갖자"고 했다.

위령재에 참석한 여순사건유족회 장준표 회장은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원한을 푸는 일로 가는 곳마다 억울한 영가들을 위로해 달라"며 생평평화 탁발순례단에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낙안 신전마을은 1949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인에 의해 마을주민 22명이 희생당하고 32가구가 불태워진 비극을 안고 있다. 이준엽 기자

당진 정토사 군발전 기원법회

충남 당진 정토사(주지 선오)가 3월 27일 오전 11시 정토사에서 '제5회 효도잔치 및 군민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향토문화와 효사상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선망부모 극락왕생발원 조상천도대재, 군민발전 기원법회, 가요 · 국악 · 사물놀이 등을 곁들인 효도잔치 순으로 진행된다. (041)356-1383 한명우 기자



정찬호군 수술비돕기 나눔의 날 행사에 7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참했다.

'암 투병 찬호를 도웁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는 지난 3월 13일 무등산 문빈정사 나눔광장에서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펼쳤다.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정찬호(8)군을 돕기 위해 마련된 나눔의 날 행사에는 문빈정사 신도회와 미르치과병원 자원봉사팀 등 7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사찰전통 국수와 쑥전 등의 음식을 판매했다.

눈보라속에 열린 이번 나눔의 날 행사에는 총 300여만원의 수익금이 모였으며 3월말 찬호 수술비로 지원한다.

생명나눔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234-6602

농협 617-01-146875 예금주 : 생명나눔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가평 현등사

자연이 수행·포교 원동력



현등사는 불사와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가평의 중심사찰로서 위상을 되찾고 있다.사진은 주지 초격 스님이 2월 말 현등사를 방문한 인근 군부대 장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가평에서는 유일한 전통사찰이자 가장 오래된 사찰인 현등사. 사실 현등사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는 사찰치고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지가 자주 바뀌면서 지속적인 신행과 포교활동을 하지 못했고, 사찰을 가꾸는 데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4년 전 초격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등사는 외형부터 많이 변했다. 극락전 해체복원불사가 이뤄졌고, 지장전과 삼성각의 단청도 새로 했다. 또 응진전이 건립됐고, 극락전 뒤쪽의 축대도 새로 쌓았으며, 2km에 이르는 진입로도 새로 놓여졌다.

불사 · 불교대학 운영으로 위상 높아져
지역특성 고려한 단풍제 · 포도축제 계획

내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불교대학이 개설돼 체계적인 신도교육이 시작됐고, 산악회와 불교대학 총동창회가 결성돼 신행활동이 활발해졌다. 또 아미타회상도, 관음탱화 등 10여점의 현등사 성보들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조계종 관람료위원회로부터 관람료사찰로 지정받았다.

또 주지 초격 스님이 가평군 상 · 하면의 22개 사찰이 연대하는 사암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고 현재 수석부회장을 맡으면서 지역사찰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 이와 함께 인근 군부대 법당인 호국연화사의 자매결연을 통해 군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지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현등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근 군부대 장성들과 각급 기관장들이 줄지어 방문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옛 명성을 되찾은 현등사는 이제 관람료사찰로서, 지장기도도량으로서, 대중의 쉼터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람료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일주문과 불이문, 백팔계단 불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 가을부터는 템플스테이도 열 계획이다. 주변 경치가 빼어나고 포행코스도 좋아 산사체험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십분 살리겠다는 것. 기도객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제공할 생각이다. 아울러 포도로 유명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올 가을에는 운악산 단풍제 및 포도축제를 개최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현등사 일주문 아래 유치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지난 2월 유아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땄는데 활용해야지요." 주지 초격스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031)585-0707 한명우 기자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 1장을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 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 형 : 신문원형(40cm × 55cm) • 절 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 격 : (상 · 하 2권) 총 80,000원(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 2003년(상 · 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도와주세요

급성 백혈병 투병중인 황초희양



명신여고 3학년 여름방학 때 발병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지난해부터 투병중인 황초희 양(19). 휴학을 하고 가톨릭 성모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에서 4차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황양은 골수이식을 받으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다.

황양의 가족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골수 센터 등에 의뢰, 미국에서 골수 일치자 2명을 찾아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골수운반비용 및 이식 비용이 약 8천만원 정도 예상돼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료비 선지급 때문에 집을 팔아 1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지불한 황양의 가족은 현재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다.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불자들의 힘으로 투병하고 있는 한 소녀의 생명을 되살리자"며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02)733-7277

나눔의 손잡기 성금

윤선애 -1만원
변용태 -10만원

총 누적금액: 38,943,47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수증 스님의 전시회에는 자유분방한 붓터치가 살아있는 60여점이 공개된다. 연꽃그림 '和顔愛語(화안애어)'.

독거노인 돕기 연꽃그림 자선展

수증 스님, 수익금 전액 기부…3월30~4월5일 경인미술관



허름한 단칸방이 즐비한 강동구 강일동. 이 지역의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의 시름이 커졌다. 방을 비우자니 주어진 이주비로는 거처를 마련하기 힘들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하자니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 살 곳이 없다. 이들을 위해 한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연꽃 그림들을 내 놓았다.

서울 금화사 주지 수증 스님(사진)은 3월 30일~4월 5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연꽃그림 자선 전시회를 열고, 판매된 그림의 수익금 전액을 이들에게 기부한다.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대표 각현)' 이사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스님이지만, 올 봄 안으로 길거리에 나앉을지 모르는 노인들을 위해 선뜻 자선전시회를 제안했다.

조성된 기금은 '노인 그룹홈'을 마련하는데 쓰여진다. 현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2~3개 방이 있는 집을 얻고 노인들 5~6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꾸리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스님은 "낯선 환경과 차가운 시선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한 안정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의 화제(畵題)도 화안애어(和顔愛語)라고 지었다. 환하고 밝은 얼굴빛, 그리고 정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야말로 이웃에 대한 가장 진솔한 자비의 실천이라는 생각에서다. '닦아서 증득하는(수증 · 修證)' 마음으로 그린 그의 60여 점의 연꽃 그림에도 그 같은 생각이 그대로 묻어난다. 얌전한 수행자의 모습을 닮은 초기 연꽃 그림과는 달리, 그의 최근 연꽃에서는 자유분방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감이 살아 있다. 꽃이 향기를 나눠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듯, '봉사'라는 경계를 여읜 스님 마음자리의 반영이다. (02)429-1488

강신재 기자

"내손으로 비누 만들었어요"

한솔복지관 장애아동 체험학습

"고양이 모양 비누 만들래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성남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이 장애아동들을 위해 3월 16일 경기도 화성 허브농장에서 연 '햇살교실' 체험학습 현장. 장애아동 14명과 SK C&C 자원봉사자 14명이 하루 동안 일대일 결연을 맺고 허브향 가득한 비누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상민(가명 · 10)이와 함께 '고양이 비누'를 만들던 정우석(31)씨는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장애 아동들과 SK C&C 직원들의 즐거운 시간.

한솔복지관 관장 성화 스님은 "극히 한정적인 장애인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장애아동들이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31)716-4214

화성=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연화회 · 보리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매주 금요일 구로복지관에는 연화회와 보리회가 연합하여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한다. 사진은 3월11일 연화회장 이연(오른쪽), 보리회 회원의 봉사 모습.

"오늘따라 밥이 아주 맛있어!"

"아유, 우리 어르신 보살님들 솜씨가 좋으셔서 그렇지요."

3월 11일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적산). 매주 금요일마다 노인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는 보리회 회장 장인자(57) 보살에게 복지관을 찾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칭찬을 한다. 그러자 장 보살은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봉사팀인 연화회 보살들의 음식 솜씨 자랑에 여념 없다. 서로 다른 모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십수 년을 함께한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는 이들은 구로구 봉사팀인 연화회와 목동법안정사(주지 효경) 도반 모임 보리회다.

구로복지관의 역사와 함께해온 연화회. 13년 전 구로복지관이 개원하자 찾아온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봉사를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집에서 가져온 식료품으로 노인들의 점심을 만들어 냈다. 연화회는 구로복지관 자원봉사의 틀을 만든 장본인들인 셈이다.

"어르신 봉사자님들이 참 대단하세요. 그 뒤를 또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나가야지요."

연화회의 활동 사항에 감탄하면서도 이제 자신들도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보리회. 구로복지관에서 일한 것은 2년 정도지만, 이미 5년 이상 다른 시설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사 수발, 장학사업 등을 해와 봉사 활동 경력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봉사자들이 세대를 넘나들며 서로 끌고 밀어 함께 가고 있어 구로복지관 노인식당에는 언제나 웃음이 묻어난다. 이제 더 젊은 봉사자들이 활동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으로 간직하면서 연화회와 보리회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날 까지 함께 활동하기를 서로 소망하고 약속한다.

김강진 기자

▮후원해 주세요 - 아이들에게 책과 컴퓨터를

구로복지관에서는 올 2월부터 '빈곤아동 · 청소년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매주 토요일, 지역 내 빈곤 아동들에게 무료 식사제공은 물론 학습실 및 컴퓨터실을 개방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연화회 이연 팀장은 "아직 초창기라 물품이 많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책이나 집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를 전달하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02)852-0525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한국불교 해동종 창종 7주년 기념법회

종 정 해운 경우
부종정 대곡 법보
사서실장 보각

승정원장 용성 일암 원로원장 도운
총무원장 도암 혜우 포교원장 혜정

종회의장 대법 부 의 장 정관, 도일

사정부장 천강 총무부장 정일 재무부장 도봉
교육부장 법헌 사회부장 지원 포교부장 도월

총무국장 도일 교육국장 인묵 사회국장 도법
포교국장 도승 사정국장 해월 충주분원장 화도

■ 일 시 : 2005년 3월 26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주 이화예식장
■ 문 의 : 한국불교 해동종 총무원 043)853-2855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면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렴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생활불교 운동으로 재도약"



인터뷰 창종 40주년 맞은 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스님

올해로 창종 40주년을 맞은 불입종. 불입종이 '대중적인 종단'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스님(제천 송화사 회주)은 3월 초 불입종 총본산인 제천 송화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 금년을 종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입종은 최근 전국 130여개 사찰에 신도회 활성화와 신도배가를 독려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1사찰 1봉사단체 결성, 가족법회 창립, 법회 운영 및 신도교육 내실화, 학생 · 어린이법회 개설 등 포교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불입종은 또 <기초교리> <종도신행요집> <사경집> <신앙수기집> 등을 발간, 문서포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종단의 대외 홍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부산 · 경남 종무원을 분리하고 경북과 전남에 종무원을 신설하는 한편, 각 종무원 산하에 1개의 사찰을 개방형 기도처로 지정, 일반인 포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사찰 1봉사단체 결성 · 가족법회 창립
어린이 법회 전국 130여개 사찰로 확대

종조건 건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창종조 태허 스님의 유품을 수집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태허 스님이 주창한 '생활불교' 이념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어느 종단보다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온 불입종은 그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찰마다 한문교실, 사경교실, 글짓기교실과 같은 어린이 특수법회를 운영하고, 어린이법회가 개설돼 있지 않은 사찰에 대해서는 종단차원의 지원을 통해 법회를 개설토록 할 방침이다. 불입종은 종단 산하 130여 사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어린이 포교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불입종이 이렇게 다각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불입종이 내세우고 있는 '생활불교' 이념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다, 종단의 정체성 확립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불입종이 이같이 판단하게 된 데에는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다. 불입종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승려와 신도들의 자질이 향상됐고, 포교와 사회활동에 나설만한 조직도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종단 안팎으로부터 포교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아 왔다.

1965년 태허 스님이 창종한 불입종은 '불지지견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 즉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모든 중생에게 열어 보여서 깨닫게 하고 지견에 들게 한다는 종지(宗旨)를 바탕으로 하면서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생활 속 불법 실천'을 주창해왔다.

사찰수와 승려수(350명)로만 보면 한국불교 10대 종단 안에 들 정도의 규모다. 그러나 포교 및 사회활동 보다는 신도교육과 조직정비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불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경암 스님은 "사실 우리 종단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활동범위를 넓히고 인재를 양성해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단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한명우 기자

조계종 교육 기초2(1)년, 기본 4년으로

승개추 개선안 확정…전문교육은 5년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 추지위원회(위원장 종범 · 승개추)가 기초교육 2년(또는 1년)+기본교육 4년+전문교육 5년제의 승가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승개추는 3월 11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3번째 제도개선 초안을 검초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승개추는 오는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기초 · 기본 교육의 교육연한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교육원은 기초 · 기본 교육을 '2년+4년' '1년+4년' '2년+3년' '2년+2년'으로 상정했으나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정규학제가 4년인 점을 감안, 기본교육은 4년이 돼야한다는 대다수 스님들의 주장에 따라 '2년+4년' '1년+4년'을 원칙으로 교육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전문교육도 △학림과 율원은 2년 △승가대학원은 은해사 3년 · 운문사 2년 △전문선원은 의무 4안거+4안거(4년) △대학원은 석사 2년+박사 3년 △특수학교는 어산본과 2년+전문어산과 3년 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학인이 전문교육까지 마치는 데는 최소 10~11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본교육 개선과 관련해 교육기관 정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교육원의 당초 동국대학의 기본교육기관 해제를 상정했으나 동국대 교수 보광, 중앙종회의원 향적,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등의 반대 입장을 분명해 기존의 교육법 부칙3조(기본교육기관에 동국대 포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의 총 재학인원에 대한 제한선도 30명으로 정해졌다. 현행 승가대학령이 최저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승개추는 이를 통해 향후 사미 8곳, 사미니 4곳 정도로 전통강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천태종 신도조직별 연수

자질 향상 · 특성 강화…결속다져

천태종이 청년회 어린이회 지도교사등의 연수와 부문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천태종 중앙청년회는 4월 2~3일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천태종 중앙청년회 임원 및 청년회장단 단합법회를 개최한다.

청년회 지도자들의 상호교류와 지도력 향상을 위해 열리는 이번 단합법회는 각종 특강과 청년회 운영 사례발표, 중앙청년회에 바라는 점 발표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총무원 교무부는 남부지역 25개 사찰의 천태종 어린이 체육대회를 준비중이다. 4월 24일 대구시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체육대회는 천태종의 역군이될 어린이 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043)423-7100

이에 앞서 천태종은 학생회와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3월 19~20일 구인사 인광당에서 신앙체험 수련회를 열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28기 행자교육원 16일 해인사, 142명 입방

조계종 제28기 행자교육원(운영위원장 현응)이 3월 16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개원됐다.

지난 2월 전국 교구본말사 권역별 행자교육을 이수한 행자 184명(남행자 122명, 여행자 62명)가운데 입방갈마에 합격한 남행자 84명, 여행자 58명 등 총 142명이 17일 고불식을 치렀다.

23일간의 행자교육을 수료한 행자들은 4월 6일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스님)가 주관하는 5급 승가고시를 통해 종단 예비승인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다. 시험과목은 △사미 · 사미니율의 △사미 · 사미니 위의문 △초발심자경문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예식의궤 △42장경 △조계종사 등 총 8과목이다.

조용수 기자

"마이산 탑사 요사채 부지 금당사 경내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2월 17일 진안 마이산 금당사의 임야 40여 평에 건립된 탑사의 요사채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마이산 탑사 요사채 부지는 금당사 경내지로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제1토지(탑사 경내지 내에 있는 금당사 임야 40여 평)는 원고(금당사) 사찰과 지리적 ·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토지로서 원고 사찰(금당사)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기보다는 소유권만 원고에게 있을 뿐 원고사찰의 경계 안에 있는 주요시설물들과 동떨어져 오히려 피고(탑사) 사찰에 인접하여 있어 원고의 경내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밀각장학회 첫 장학금 전달

진각종 밀각장학회(이사장 회정)는 3월 13일 밀각심인당에서 구자원(전북대 기계설계학과 3년)학생과 석현우(평택대 사회복지학과 1년) 학생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밀각장학회는 밀각심인당에서 수행 정진하다 열반한 고 수희주 보살의 유지를 받든 가족들이 지난해 1월 불우한 소년 · 소녀가장과 불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원을 기탁해 설립됐다.

김원우 기자

한국인 희생자 환국기원법요식

한일불교문화교류協, 28일 도쿄 우천사서

일본 도쿄 우천사에서 제2차 대전 당시 희생된 한국인 영령 위령 및 환국기원법요식이 열린다.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도쿄 우천사 본당에서 한일양국대표단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전 한국인희생자 영령 위령 환국기원법요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령재는 추선의식에 이어 양국 대표의 표백문 낭독, 헌화, 추모사, 평화기원문 채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한일국교 40주년기념 불교도우호친선회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오찬을 함께하며, 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 유골의 조속한 환국 추진의 의의와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후 양국 대표단은 산디카나와 프린스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한일 양국의 불교도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유골 봉환문제를 논의한지 10년이 됐다"며 "한국인 희생자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조속히 유골을 환국시킬 수 있도록 일본측과 함께 이번 대회에서 매듭짓는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방불교大 홈페이지 오픈

dongbang.org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법장)이 3월 10일 홈페이지를 보완해 재오픈했다(사진).

새롭게 문을 연 동방대 홈페이지(dongbang.org)는 학사행정과 과운영, 재학생 · 동문 참여, 사이버강의 등의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가 사이버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도록 했다. 또 불교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불교뉴스, 법문검색, 불교용어검색 등 불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적 · 출결관리를 온라인화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문들의 참여공간으로 동문마당을 개설하여 학교 관련 공지사항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우 기자

보우국사 탄신 704주년 기념 인물집 간행

(사)대륜불교문화(태고)연구원(이사장 무공)은 3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탄신 704주년기념 태고보우국사 인물집을 간행하고, 방중기념비도 건립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범종파적으로 태고보우국사 선사상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산하 지부를 전국에 결성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황금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美 조지아대 국비 장학생들 운문사 템플스테이 현장



난생처음 보는 새벽예불. 운문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새벽예불에 참여한 조지아대학생들.

벽안(碧眼)의 대학생들이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찾아 물을 건넜다.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미국 조지아대 국비 장학생 14명이 3월 15~17일 300여
비구니 스님과 사미니들의 수행도량 청도 운문사로 찾아온 것이다.
멀리 서역 땅에서 고비사막과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조사들의
손을 통해 면면이 전해진 진리의 '법등(法燈).' 대학생들은 그 진면목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는 듯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한국 스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책·영화 보다 훨씬 진한 감동 받았죠"

미래 지도자 안목 키우기 위해 세계적 명소 방문
"한국불교 특별하다"…국비장학생 14명 지원



"한국불교, 안녕하세요" 운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조지아대학생들은 먼저 경내를 둘러보며 한국불교 전통의 향훈을 맘껏 들이켰다. 맨 앞 한국인이 이향순 교수.

세계문명 탐구해 미래 미국사회 지성인으로…

이번에 운문사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14명 모두 주정부가 대학 단위마다 선발하는 조지아대 4년 국비(國費) 장학생이다. 이들은 14일 불국사 등 경주 불교유적, 18일 미황사 등을 둘러보았다. 미국 정부는 장래 미국사회의 지도자가 될 '떡잎'들의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철저히 미국 밖에서 사고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젊은 지성들에게 제공해, 그들로 하여금 미래 조국의 청사진을 그려 보게 하는 것이다.

조지아대학에서는 매해 이런 장학생을 20명씩 선발한다. 그들은 장학프로그램에 따라 매해 세계 4곳의 명소를 방문하는데, 한국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그중 14명이 운문사 템플스테이에 지원했다.

2003년에 이어 다시 조지아대학 참가단을 인솔한 스티브박사(조지아대 장학재단 Foundation Fellowship 부소장)는 "특별히 가치가 있는 곳을 방문한 후, 그곳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보고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같은 곳을 두 번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올해는 인종차별의 현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감옥 등 4곳이 선정됐다. 한국불교와 운문사만은 특별하다고 판단했기에 다시 방문키로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운문사에서의 2박 3일 동안 학생들의 시선은 유난히 날카롭고 진지했다.

"한국은 강력한 승가의 전통이 살아남은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들었다.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책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들을 오늘 직접 목격했다." (타이, 생화학 전공)

"나는 영화를 통해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불교도 영화 속 한 요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운문사 대웅전 앞에 서는 순간 한국불교가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줄 알았다."(사이먼, 영화학·철학 전공)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소임을 맡아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놀랐다. 모두가 즐겁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인상에 남는다." (비제이, 비영리경영학 전공)

"한국불교엔 특별한 무엇이 있다"

조지아대 학생들에게 특히 운문사는 한 권의 '한국불교학 개론서', 영화 '만다라' 속 장면과 같았다. 산과 안개에 둘러싸인 풍경, 천년의 향기가 풍기는 도량 앞을 흐르는 개울물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스님과 스님을 통해 이어진 한국불교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극도의 경쟁 속에서 그들은 쉽게 혼자인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은 한국불교를 통해 '함께 살아감'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미국 지도자감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은 혼란스럽다. 결과적으로 평화의 상징이라 믿었던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파자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국가는 어느새 '덩치만 큰 말썽쟁이'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벌써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감지하는지 모른다. 한국불교와 운문사에서 미래의 대안을 발견하고자 하는걸까?

'세계 최강국' 미래지도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조지아대에서 영화학과 철학을 전공하는 사이먼은 운문사를 가기 직전 방문한 경주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 불국사 탱화들을 디지털카메라에 담는 작업이 그것.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의미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패트릭(세포생물학 전공)도 석굴암에서 법당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법당과 석등 사이에서 강력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구도와 배치는 의도적인 것 같은데 제대로 본 것인가?"고 묻는다. 타이는 운문사에서 제공한 사찰 음식을 먹은 후 "김치의 차가움과 밥의 따뜻함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의 메뉴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 단순하면서도 깔끔하다"고 평했다.

그들은 진짜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이 본 것은 얼핏 한국불교의 외양이다. 조석 예불, 발우공양, 다도체험, 요가, 간경 참관, 연등 만들기, 산행 등 스님들의 일상은 대부분 체험했다. 그러나 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배운 후 "다리가 뻣뻣해짐을 느끼는 순간 다리를 약 10도 정도 펴니 훨씬 나았다"라고 느낌을 말하는 그들이 간화선의 심원한 원리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108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나, 발우공양의 독특한 정신보다 "젓가락보다 포크의 사용이 더 편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서 불교가 미국에서 꽃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주 조금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한국불교의 진수를 조금씩 파악해 가는 듯 보였다. "대웅전의 어간문은 어른스님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니(음악학, 역사학 전공)는 "불교의 평등사상에 위배된 것이다. 붓다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되묻는다. 대웅전을 구석구석 뜯어본 제이크(스페인어, 생물학 전공)는 "나무를 사용해 완벽하게 조립한 이 건물을 만든 사람들은 대단한 지성을 지녔을 게 분명하다"고 불교의 미적 감각을 높게 평가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독특한 한국불교가 '세계 최강국'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어떤 내적인 자양분을 줄 지 자못 궁금해진다.

운문사=강유신·사진=박재완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달마 12호-그림: 35×125cm 액자: 47×155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초보불자들의 신행모임인 화림선단은 격주 열리는 사경법회로 회원들의 신심을 다진다. 일배 한구절 사경에 몰입한 회원들의 모습에서 치열한 구도열이 엿보인다.

수원 '화림선단' 사경법회 현장

글씨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씁니다

의왕 용화사서 격주로 수행 … 독송·요가도

불교를 체득하기 위해 사경법회를 여는 초보 불자들의 신행모임, 화림선단(花林禪團). 꽃과 숲을 닮고 싶어 이름도 '화림(花林)'으로 붙인 화림선단의 모임 운영방식은 여느 단체와는 다른 독특한 구석이 많다. 서로 다른 직업, 지역,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을 나누는 도반이 된 화림선단의 사경법회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대자비로 흐른 지혜의 물이요, 먹은 능엄선정의 굳은 먹입니다. 선정의 먹으로 지혜수를 갈아서 실상법신의 문자를 옮겨 씁니다."

3월 14일 밤, 12명의 불자들이 외는 '사경 관념문'이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용화사(주지 덕민)의 관음전에 울려퍼진다. "또르륵" 목탁이 일성에 절을 하고 또 한번 울리면 <반야심경> 경구를 독송한다. 다음은 허리를 숙이고 경전을 옮겨 쓴다. 법당안은 사경의 구도열로 뜨겁게 달구어진다.

이들은 3년전 '불교가 좋아서' '실천하는 불자로 살기 위해' 모인 수원, 의왕, 군포 등 인근지역 직장인들로, 6개월여 전부터 화림선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고 연령층도 3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사경법회가 열리던 이날,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선 김성진 교사(제천농고 조경과)가 좌복을 깔고 입정에 들었다. 그는 회원 가운데 가장 먼 충북 제천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왔다. 법우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밤 8시, 용화사 지철 스님의 집전으로 법회가 열렸다. 사경은 <천수경> 독경과 관음정근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야 시작됐다. 막내둥이 손경수 세무사(수원 가람세무회계컨설팅)가 목탁을 들고 회원들의 마음을 다잡는다.

"사경을 할 때에는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경은 불법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자기 것으로 실행하는 기도이며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반듯하게 줄을 맞춰 선 뒤 주변을 가지런히 정리하고서야 사경에 임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스러지기를 수십번, 한생각 일어날 때마다 참회를 거듭했다"는 이미향씨(요가 강사)는 시종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사경에 몰입하고 있었다.

사경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출장을 취소한 박종설씨(건축사 대표)도 무릎을 꿇은 채 한자한자 써내려가는 모습이 자못 진지하다. 그는 "늘 독송하던 경전인데도 사경을 해보니 뜻을 이해하게 돼 절로 환희심이 일어난다"며 "사무실에서도 마음이 산란할때면 사경을 한다"고 쑥스레 털어놓았다.

초심자가 대부분인 화림선단은 모임이 결성된 이후 경전 독송과 요가를 스스로 익혀왔다. 그러면서도 초청법사의 어려운 법문은 마다했다. '법문 없는 법회'로 6개월을 끌어온 것. 그래서 택한 것이 사경이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민학기 변호사는 "아무리 좋은 불교라도 그릇이 갖춰져있지 않으면 담을 수 없다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갖춰나가기 위한 수행으로 사경을 택했다"며 "알아야 몸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 불교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2주에 한번 모이는 화림선단 회원들에게 법회는 직장생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보는 시간이다. 늦은 시간,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직장불자회와는 달리 직장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 회원들의 마음이 한결 편하다.

화림선단은 사경 외에도 요가와 참선을 겸하고 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다담으로 그간의 수행과 일상을 교감한다. 10시가 넘은 시각, 그제서야 회원들은 용화사 일주문을 나선다.

글 · 사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이탁수 우리은행서울불자회 회장



불교의 생활화 실현 회원 확대 가장 시급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 고생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회원 모두가 불교가 생활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월 16일 창립 6주년 기념법회에서 제3대 우리은행서울불자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탁수씨(50 · 부천서지점 지점장)는 4년여간 맡아온 전국금융단 불자연합회 운영위원장 외에 또하나의 감투를 쓰게 됐다.

이회장의 돈독한 신심과 열성적인 활동을 지켜봐 온 회원들이 회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결과다.

이날 이회장은 불교의 생활화와 회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말로 취임인사를 대신했다. 지난 2년여간 총무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이었다. 특히 신입회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인사업무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서울과 부산에 결성돼 있는 불자회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큰 원을 세웠다.

"우리은행의 전체 직원은 1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 불자회의 회원을 합쳐도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올해말 3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합시다."

이회장은 어렸을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88년 다시 사찰을 찾았을 때도 그 때문이었다. 자광(慈光)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자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이 회장은 경전을 끼고 산다. 출 · 퇴근 때에는 차안에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사무실에서 금강경 독송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이 회장은 고문과 부회장, 부 · 차장 등 30명이 넘는 인원으로 새 임원 · 집행부를 구성했다. 우리은행 불자회에 주어진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소중한 도반들이다. 현동관 총무부회장(금천구청지점 지점장)은 "무거운 짐을 이탁수 회장님에게 맡겼지만 집행부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불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박봉영 기자

"생명의 존귀함 삶의 기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환경문화학당' 열어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가 매월 한차례 열고 있는 환경문화학당은 인기가 많다. 법우회 회원들이 '만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을 낭독하고 있다.

"티끌 하나 풀 한포기 물 한방울 밥 한그릇에도 우주가 있고 만중생의 노고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여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이치를 알아,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맞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3월 15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 법당에서 '만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이 낭낭한 목소리로 퍼져나왔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매월 열리는 정기법회를 지난 2월부터 환경을 주제로 한 테마법회로 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도기환) 회원과 가족들.

지난달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응 스님의 법문에 이어 이달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이태수 고문이 초빙됐다.

"고운 털을 얻기 위해서 사육과 살생을 합리화시키거나 음주와 사냥, 낚시 등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오온(五蘊 · 생명체의 정신작용)과 사대(四大 · 생명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바르게 보고 참불교를 실천해야 한다"는 이태수 법사의 말에 회원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불교환경연대와 연계해 열리는 '환경 테마법회'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회원들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낮시간대에 법회를 열고 있어 부부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점도 테마법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테마법회의 아이디어를 낸 정찬연 교화부장은 "법회의 형식을 약간 바꾼 것 뿐인데 회원들이 늘 열던 법회에서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내친김에 회원들의 관심을 더 끌어내기 위해 환경파괴 현장과 생명존중사상이 깃든 사찰의 모습, 친환경 삶을 살아가는 사찰 등을 둘러보는 현장학습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문화학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신나기만 한 도기환 회장은 "수행법이나 불교문화와 같은 주제를 법회 프로그램으로 끌어올 생각"이라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글 · 사진=박봉영 기자

군포경찰서 '자비회' 창립

3월 15일 첫 법회 봉행

군포경찰서에도 '자비회'라는 불자모임이 생겼다.

자비회는 3월 15일 군포경찰서 경승실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또 초대회장에는 방상수 정보과 경사를 선출했다.

방상수 회장은 "회원들이 신심을 쌓을 수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내실을 기하면서 회원들의 화합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자비회는 앞으로 교리공부와 성지순례, 관내 복지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영호남 산악인 합동산행

4월 10일 통영 불모산서

부산불교산악회와 대구 대경불교산악회, 광주자비산악회는 4월 10일 통영 사량도에 위치한 지리산과 불모산, 옥녀봉으로 합동산행을 떠난다. 박웅락 부산불교산악회장, 권윤기 대경불교산악회장, 오길수 광주자비산악회장 등 영호남 산악인 불자 3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산행은 지역간 벽을 허물고 불교를 매개로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졸업 · 입학 기념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아이벗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I-BUD 메일 매일 쏟아지는 불교세상 - 언제나 부처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뉴스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30여명이 매일 생산하는 기사가 즉시 업데이트 되며 불교뉴스에 대한 해설, 분석 등도 함께 기사로 서비스 됩니다. 또한 문자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불교계의 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불교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기사 제보 코너가 있어 쌍방향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찬불가코너에서는 다양한 행사 및 의식곡을 비롯해 창작 찬불가까지 서비스되며 교계 일정을 매일매일 상세히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벗 단말기의 첫 페이지를 재미있게 꾸밀 수 있는 스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법문
이시대의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지장백고좌, 길을 묻는 이에게, 주제가 있는 법문은 주로 문자형태로 큰스님 가르침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방장, 선원장, 주지 스님 등 다양한 계층의 스님과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법문의 경우는 영상으로 직접 큰스님의 생생한 법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e-BOOK
불교계 최대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신간,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여시아문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E-BOOK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교양대학
크게 불교학 강의, 경전 강의, 문화강의로 나누어 다양한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과 문자로 강의를 볼 수 있으며 직접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강의는 불교미술, 다도, 꽃꽂이 등 다양한 강좌들을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벗 단말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사이버기자와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버법당
매일매일 하루를 경책하는 경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향후 자신이 속한 사찰의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직접 사찰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등접수, 기도 접수 등 사찰의 다양한 종무행정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불교문화샵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불교문화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최면개인지도

그동안 최면을 배우긴 했으나 활용치 못하시는 분들

전생, 빙의치유, 각종질병, 우울증, 비행청소년 교정

사찰을 비롯 수가 없는 스님들, 배울곳이 원거리에 있어서 등 여러조건이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께 본인이 전국어디든 출장하여 상주하면서 확실히 완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011-597-6700

제3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 모집

기초과정 3개월 (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도량석,쇳송,상단예불,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대령관욕,지장청,신중작법,관음시식 등)
고급과정 3개월 (49재,예수재,수륙재,전문범음범패)
특수반 (천수바라 ,오공양작법,요잡바라)

011-849-0961/051)554-1518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염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새로 꾸민 포교당에 삼존불과 후불탱화 저렴한 보시금으로 보시받습니다

010-7324-5115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행자 모십니다

▷ 경기도 평택 조계종 사찰
011-9150-9190

禪 비법 강의

청안락 하십니까? 강호 제현님들이여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많이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것입니다 배우면 스님! 불사에 만락하실겁니다

- **강의내용** : 귀신보는법(빙의, 사주학) 돌아가신 조상님을 직접만나는법 산소풍수법(간단함) 산소 속을 직접본다 (강의시간 : 5시간)

010-3189-3525 토굴산승 합장
(경기 강원 지역 스님 방부 됨)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기타
주 2회(수, 토요일)
10시 30분~13시까지
4개월(기초에서 실습까지 책임완성)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숫자와 운명 개인지도

못사는 방법이 한가지라면 잘사는 방법은 10가지이다.
의 저서 직-강의
아울러 각 길 흉 事
(사: 개운 반운법 및 다수 등...)
대처 방편술(예방비법)도 함께 전이 합니다.

031)633-1517

수강생 모집

주역 원전 강좌

- 3월2일 개강 매주(수) 오후 7-9시
- 4월6일 개강 매주(수) 오전 11-1시
- 회비 : 6만원
- 기타 : 오운육기론 (화) 오후 7-9시
대학소주 (월) 오후 5-7시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8970

희귀 난치병(암) 영가 장애 치유

불교와 최면의
절묘한 조화
성 원 사
02)845-4301

사업 하실분

적은 자본으로 새로운 사업
하실분 1분만 모심
인터넷쇼핑몰 겸 매장판매
SBS 이색상품 방영. 발명특허 출원제품
참조 www.bujukshop.com

011-537-1739

경리보살 구함

50세 이하. PC 가능한 자
월 4일 휴무. 숙식가능한 사람
월 보시 90만원
경주시 강동면 국방리 왕룡사원

054)762-4269
017-531-77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고양시

031)978-9782

생활불교 사주명리 질병 의학 상담

전문연구하는 스님이
보시금 부담없이
암자나 사찰 인연처를
찾습니다

016-867-30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수도권. 50세이상

011-241-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부천

032)684-5516

병원치료비 관계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급히 처분하고자 하오니,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실 스님이나 불자로서 좋은 인연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011-831-6434

행 자 모 심

(스님이 되실분,50세이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황 룡 사**

종무실 054)972-3174
종무실장 011-9942-24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포항시

010-7160-2734

강원도 홍천의 조용한 산사에서 무보시로
약2년간 기도정진후 앞으로 동자스님들을 모시고
함께 수행정진하실 비구스님 한분과 비구니스님 두분을
모시고자 하오니뜻있는 스님들의 연락바랍니다

▷**연락시간** : 오전 6시30분~8시30분까지, 오후 8시30분~9시00분까지

033)435-89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빌라 밀집지역
- 법당, 주방, 거실 넓음, 방1개, 베란다,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500만원 (휴일지급가능)

010-8678-860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동화백화점 부근)
- 3층건물중 3층(옥상사용가능 약 200평)
- 방 4, 화장실, 욕실완비. 62평(삼존불 각단탱화)
- 상가밀집지역(앰프시설완비, 집기일체양도)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답사후 가액 절충가)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7165-5670

출가학교 및 행자 모집

▶ 출가학교 3기 : 40세이하 독신 남
4월 15일~5월 5일(3주간)
교육비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053-474-8228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해외 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심

한국 사찰로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종교국으로 부터 설립 허가를 득한 사찰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고 한국기업만 10,000여개의 회사가 상주한 중국 청도에서포교의 꿈을 실현 할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 해외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 이력서, 자기소개서 FAX로 제출

FAX : 031)906-5108 / 전화 : 031)901-1954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시스템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유치원, 식당
오피스텔, 기숙사, 가든, 고시원 상가

이런점이 좋습니다
① 간편한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쾌적한 난방 ④ 건강한 난방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규사 직수입품입니다.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7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을 시공한 사찰전문 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에서 고급과정까지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4. 4
월 · 화반 /수 · 목반 / 금 · 토반 (주 · 야간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경로자 우대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 산 : 좌천 지하철역 1번 출구 옆(다전리치텔 1004호)
문의 : 051)644-8571. 018-312-7110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 은행석베개볼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생명의 빛 생명의 기

(주)금강닥터에서는 북한3대 특산품이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금강약돌을 수입하여 은행석이란 제품을 개발 화제가 되었으며 추가주문이 쇄도하여 감사를 드리며 음이온을 첨가하여 더욱 나아진 신제품 은행석을 추가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베개속에 신비의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을 첨가하여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 머리를 맑게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압상승 억제효과
◆**팔 찌** : 전신에 기를 골고루 전달하여 심장박동을 원활하게 하며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다이어트에도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제품을 직접 선 체험하시고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위치: 경기	●위치: 포항	●위치: 경북
●법당: 15평	●법당: 20평	●법당: 24평
●요사: 21평	●요사: 50평	●요사: 34평
●부지: 800평	●부지: 1500평	●부지: 3800평
●가액: 7억	●가액: 5억5천	●가액: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① 8억(대250/건138) ② 5억5천(대175/건90)
- 경기 ③ 9억(840/건383) ④ 9억(700/건180) ⑤ 2억5천
- 원주 ⑥ 토골8천 ⑦고찰2억2천(1000/63) ⑧ 납골당25억(대4만평/건210평)
- ⑨ 납골당부지3억(대24000평) ⑩ 절터관악산계곡20억(2085평)
- 안양보 3천원80 (70평) 수원보 2천원100 (65평옥상130)

※ 사찰, 사찰터 다양보유,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제주도 땅 안내

● 위치 : 제 주 도
● 토지, 임야, 별장지
● 농가주택. 전원주택지
● 사실 분, 파실 분

064)711-1447
011-9773-4414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011-9635-323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법당, 식당, 종무실, 주지실구비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 자 모 집
011-9150-9190

사 찰 안 내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위치 : 서울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부지 : 천평
●법당 : 18평 외 미륵불	●법당 : 12평
●요사 : 23평, 산신각	●요사 : 30평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양평
● 대지: 160평, 건평: 65평
● 가액: 1억6천만원 (사정상 급 양도)
● 특징: 어린이집이나 임법당으로 현지역에서 최적지임
● 실수요자만 전화요

011-9757-1333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내 최요지
● 평수: 30평 3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1-202-2205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지리산 깊은 산중 사찰 (산청과 대원사 중간)

기운이 장하고 전망이 웅혼하며 맥반석계곡에 접한 동남향 명당터. 무문관 수행이 가능한 4개의 방사와 법당외에도 심야전기, 기름 보일러, 황토방이 설치된 여러채의 건물에 총 15개의 방사와 1000여평이 넘는 부지, 만오천평의 임야, 아래마을까지 2.5키로 일체의 소음없고 청정한 기도, 참선도량 가액, 오억원

010-6398-5730, 011-9136-1314

사 찰 안 내

● 위치 : 이천 시내
● 부지 : 55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 : 30평(목재)
● 양도가 : 6억(융자가능)
● 교통좋으며 산밑에 있음

● 위치 : 부산시 구포
● 평수 : 65평 (2층건물, 2층에 위치)
● 법당 : 25평
● 요사 : 방 2개
● 보증금 : 3천/700,000 시설비 : 3천만원
※ 주차시설 20대있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수원 시내
● 평수 51평, 건평 50평 2층
● 구조 : 1층 전세 2층 법당 요사 주차가능
● 가액 : 1억 6천(전세포함)

031)254-6425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중 허가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633-1
● 다가구 주택, 3층
● 대지 78평, 건평 150평
● 가액 : 3억 5천(절충가능)

031)416-5484
011-9074-548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서면 최요지
● 총 40평
● 큰사찰 이동 관계로 급히 양도하고자 함
● 가액 : 2천5백, 월 70만원 (전세, 시설비 합)

011-9921-5975
051)803-3275

경관 수려한 사찰을 원하십니까!!

● 위치 : 경산 와촌면 음양리
● 대지 : 총부지 813평 (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공터 200평) ● 건물 : 건축물 45평
● 전체부지를 자연적으로 조성됨
● 특징 : 본존불, 탱화 (고려시대 고불과 똑같이 조성)
● 가액 : 3억 2천만원 가능 (융자 6500만원 포함)
●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사절

011-9378-5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소재
● 부지 : 약 1,000평
● 법당 : 30평(구한옥, 단청)
● 요사채 : 40평(신축)
● 가액 : 1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적합

● 위치 : 울산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70평
● 법당 : 35평(2층)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산신각, 용왕당 10평(3층)
● 가액 : 1억9천
● 특징 : 신시가지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아주 좋음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50평, 건평20평
● 수라히여 깨끗함
● 가액 : 2천 7백만원

055)391-3799
011-9207-2488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100만원

011-9238-99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15년된 포교당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돈암동 (대중교통 편리)
● 법당 : 20평,방1,거실,목욕탕 삼존불,탱화,기타시설,집기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및 집기 포함 7백만원

011-763-7099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부근 (한라공대옆)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미륵불,약사불, 관세음보살님), 요사채 20평 ※ 산세 수려하고 경관 좋음
● 가액 : 2억

033)766-0057
011-471-1996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각 15분거리)
● 산신각, 천연동굴 15평, 산신백옥불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납골당 터 가능, 대웅전, 주지실, 종무실 별도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중계인사절)
● 산새수려하고 기도, 별장용지로도 최적지

011-369-415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포교당 안내

불교교양대학 용도로 적합
● 위치: 도봉역 지하철 5분거리
● 건평: 110평 법당: 80평
● 방4개, 시설일체 완비 큰주차장 있음
● 가액: 보증금 9000만원 월 180만원

010-8771-6442

사찰 안내

● 위치 : 통영시 근교
● 총면적 약 5500평 법당 약 20평, 칠성각 약 10평 산신각 1동, 요사채 목조1동 15평, 양옥 1동 30평
● 계곡청정한 고찰
● 가액: 2억5천

055)637-5927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동사거리 남부시장 옆 3층건물중 3층
● 크기 : 약 53평. 법당, 삼존불,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2)2645-4200
011-621-92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건물 : 요사채(37평) 큰방3개, 주방, 화장실
● 법당 : 대웅전(고건축 신축건물) 22평
● 특징 : 시골 야산 마지막터(산세수려)
● 가액 : 4억 5천(1억7천 융자포함) (답사후가격절충 可)

011-530-8490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부지 : 611평
● 2층건물 1층 : 48평, 2층법당 : 27평
● 산세좋고, 청룡백호, 심야보일러
● 가액 : 2억3천만원

041)932-0533
011-9020-603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연신내역 부근
● 평수 : 23평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6368-2590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80만원(조정가능)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남포동 농협뒤 전철2분
● 구조 : 평수 56평 (한옥식 온돌방, 법당 및 방 5개, 주방, 욕실) 게르마늄 온돌, 삼존불, 삼존탱화, 집기 일체(피아노, 영단, 엠프 포함)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조절

011-9193-2351
010-8674-4484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5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스님의 사정상 싸게 양도함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서부 정류장 근처 약70평, 2층 건물 중 2층
● 시설완비. 잘꾸며진 법당 삼존불, 주차가능
● 가액 :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308-4225

암자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화성2리 일반 주택 암자
● 대지 : 160평
● 방4칸, 입식 주방, 다용도실 수세식 화장실, 창고 2칸 5층 석탑
● 가액 : 2천만원

011-9838-1654

토굴 안내

● 위치: 전북 임실군 관촌면
● 대지 151평
● 건물 23평
● 방3개, 입시주방, 창고 2
● 가액: 2천2백만원

063)433-3357
010-4804-5478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35평
● 불상 5불 각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051)524-8108
011-844-989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상가 2층
● 평수 : 법당 42평, 삼존불, 각종 탱화, 스님방1, 큰공양간1
● 보증금 2천만원 / 월 7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16-580-1573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사찰안내

● 위치: 위치: 서울 동작구 대방동
● 대지: 184평, 건평 184평
● 1층 법당: 30평, 방3개, 사무실, 부엌 2층 요사채: 방 5개. 지하: 창고, 주차장, 화장실
● 가액: 답사후 가액 협의
● 교통편: 전철1호선, 7호선, 버스, 대중교통 편리
● 입지: 반경 2km 內 중산층 아파트 5만여 세대

02)882-1995
011-9646-1990

휴양처 안내

● 위치: 여주 남한강변 경관최고 12평 원룸
● 기도나 공부 건강상 휴양하실분 적합
● 쇼파, 침대, 가스랜지, 식탁 무료드림 조용하고 깨끗함 즉시 입주가
● 가액: 급전세 2000만원

031)885-1966
010-6349-1966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범물동
● 3층 중 1층(35평)
● 시설 : 법당, 공양간, 화장실, 뒤뜰(10평),법당내 오승상, 오불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 주변 주차시설 편리 도시가스 에어컨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39-6630

휴양처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구옥 방1, 입식주방, 기름보일러
● 기도나 공부 건강상 휴양하실분 적합 조용하고 깨끗함 즉시 입주가
● 가액: 급전세 900만원

031)885-1966
010-6349-1966

암자 안내

● 위치: 충남 천안
● 건평: 법당 18평, 삼성각 5평 주지실 13평, 요사채 19평 대지 350평사용 토지사용세 1년에 50만원, 가액 7500만원
● 산세 아늑하고 편안함 수행과 포교에 적합 ● 모든시설 완비

010-7770-3223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053)986-222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월촌 지하철 1분 거리
● 단독 4층 건물, 건평 53평
● 구조 : 법당, 방2, 공양간, 다용도실, 삼존불, 호신불 3
● 보증금 :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만원

016-526-8231
016-869-245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주례동, 3층건물 2층
● 평수: 45평, 큰법당, 방2칸 입식부엌 및 화장실
● 법당: 삼존불, 지장불, 신중, 산신, 용왕불, 각탱화, 영가단설치
● 전세 500만 월 45만 주인과 협의 시설비(모든 집기 포함) 15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참선지도 관계로 급 양도

011-847-2992
010-4879-6579

포교당 안내

● 위치: 일산 탄현동 아파트단지 (5만가구)
● 법당: 38평, 삼존불 건물은 상가건물 3층
● 특징: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 및 생활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조정가능 (시설비만 내시고 생활해 보셔도 됨) 이전관계로 급

031)912-2756
016-239-1475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330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해외사찰 안내

● 사찰명 : 고려사 (korea temple)
● 위치 : 인도 비하르 보드가야 (bodhgaya gaya bihar india)
● 대지 : 2천 5백평
● 가액 : 10억

※ 인도불교 4성지 중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에 한국최초로 세워진 고려사를 인수하여 세계적으로 한국불교를 선양하고 깨어나는 인도의 불교세계화 물결에 따라 세계불교 교류와 함께 21세기 수행과 포교의 참신하고 원력있는 새 주인을 찾습니다.

011-307-347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요지
역학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님이 운영하는 포교원으로, 중요 저서의 집필 작업 관계로 시급히 양도코자 함.
● 시설, 비품 등 최고, 최상으로 완벽하게 갖춤.
● 서책 등 개인 사물만 갖고 떠나고자 하며, 인수자에게는 역학비법을 최단기간에 완벽하게 전수 함.
● 시설, 비품 등 절반 이하에 양도.
● 가액 : 7천만원

010-6252-5247
스님 직접
※ 문의전화는 오후 1 ~ 7시 사이 요망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3층 건물 2층
● 법당, 방2개, 주방, 화장실, 옥상, 창고1개
● 가액 : 전세 보증금 1천만원,월 45만원 시설비(삼존불, 탱화, 인등, 연등, 집기류 일체 포함) 1,500만원.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51)529-3302
010-6236-2848

‘우리말 불교개념 사전’ 나온다

동국대 100주년 사업 일환, 불교학자 110명 참여

120여 주요개념 어원 · 사용례 등 포괄적 설명에 초점

내년 상반기 간행 목표

주요 불교개념의 뜻풀이는 물론, 텍스트상의 용례, 그리고 관련된 현대적 논의의 흐름까지 짚어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전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이 사전은 단편적인 뜻풀이 위주의 대다수 사전들과는 달리 불교의 주요 개념 120여개를 어원 · 사용례는 물론 의미의 역사적 변천 및 인접개념과의 관계, 출전 근거까지 일일이 밝혀내는 내용으로 편찬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은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2003년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04년부터 편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편찬위원회(위원장 서윤길)가 사전 편찬 작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110여명의 국내 불교학자가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110여명이면 국내 불교학자들을 거의 망라한 수준으로, 불교학계의 지적 역량을 총결집한 불사라 할 만하다.

편찬위는 먼저 불교의 주요 영역을 ‘인간관’ ‘세계관’ ‘수행론’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주요 개념을 뽑아냈다. ‘인간관’에 붓다 · 아라한 · 보살 등 20여개 개념, ‘세계관’에 일체 · 무상 · 연기 등 50여개의 개념, ‘수행론’에는 간화 · 계율 · 깨달음 등 50여개의 개념이 포함됐다.

이렇게 선정된 개념들은 집필자의 박사논문 주제 또는 주된 연구 분야와의 관련성을 감안해서 할당됐다. 집필자와 주제어를 살펴보면, 동국대 서윤길 교수(고려시대 밀교 연구)가 ‘즉신성불(卽身成佛)’, 조용길 교수(초기불교의 업사상 연구)가 ‘업(業)’을 주제로 집필했으며, 충남대 이평래 교수(여래장사상연구)는 ‘진여(眞如)’, 전남대 이중표 교수(아함의 중도체계 연구)는 ‘오온’을, 경남대 최유진 교수(원효의 화쟁사상)는 ‘화쟁’을 집필하는 등 집필자의 전문성이 잘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풀이는 △어원적 근거 및 뜻풀이 △역사적 용례 및 텍스트별 사용 예 △인접개념과의 관계 및 현대적 논의 △출전 근거와 참고문헌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하나의 개념을 시대별로 살피는 한편, 관련 개념과의 관계까지도 설명해내다보니 집필 분량이 방대해졌다. 편찬위는 집필 분량을 주제어당 200자 원고지 150~200매로 책정했다. 한편의 논문을 방불케 하는 분량이다. 이렇게 집필된 사전은 1200쪽짜리 책 5권과 색인 1권으로 편찬될 예정이다.

편찬위원장 서윤길 교수는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은 동국대 100주년 기념 학술분야 사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전을 통해서 불교 개념의 본래 의미와 변형된 의미,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의 현대적 의의까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전 내용 미리 엿보기

임승택 교수 풀이 ‘사념처’ … 상좌부 수행자들의 실천방법 · 특징 소개

3월 17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각)에서 경북대 임승택 교수가 발표한 논문 ‘사념처’는 <우리말불교개념사전> 구체적인 주제어 풀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사전 편찬 지침에 따라 집필된 원고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 실천체계의 핵심인 사념처(四念處)에 대해 임 교수는 먼저 사념처를 한문 · 산스끄리뜨어 · 티베트어 · 영어로 표기한 뒤 경전에 근거해 정의하고, 개념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인접개념으로 ‘지속적인 관찰’ ‘위빠사나’ ‘알아차림’ ‘마음지킴’ ‘사마타’ 등과 비교해 차이점을 드러냈다.

또 초기불교의 <대념처경> <염처경> <입출식념경> 등과 아비달마 문헌인 <대비바사론> <아비달마구사론> 대승불교의 <유가사지론> <마하지관> 등에서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피며 개념의 역사적인 의미 변천을 밝혀냈다.

가장 돋보인 부분은 현대적 해석과 논의를 다룬 부분. 이와 관련 임 교수는 ‘현대적 적용과 실천’ ‘현대적 논의’로 항목을 구분했다. ‘현대적 적용과 실천’ 부분에서는 마하시(1904~1982), 고엔까(1924~), 붓다다사(1906~1993) 등 오늘날 남방 상좌부 수행자들의 실천 방법과 특징을 소개했다.

또 ‘현대적 논의’에서는 사념처의 위빠사나가 선정(禪定), 즉 사마타 상태와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국내외 학자들의 설을 소개했다. 논문 말미에는 집필자가 참고한 원전 및 번역본, 논문 및 단행본 등을 밝혀놓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문화재 보존 자연활용이 최고 과학”

이태녕 박사 연구과정 밝혀

‘고미술의 과학’ 릴레이 강좌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에 ‘숨어있는’ 과학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 과학계 석학들의 릴레이 강좌 ‘고미술의 과학’이 3월 17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강당에서 이태녕 서울대 명예 교수(화학 · 사진)의 강연으로 막이 올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특강에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그 열기에 부응하듯 팔순을 넘긴, 문화재보존학계의 태두이 박사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열띤 강의로 수강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박사의 강연 주제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제습(除濕)의 지혜와 문화재 보존문제’. 이 박사는 공주 송산리 6호 고분과 석굴암,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전에 녹아 있는, 조상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지혜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이 박사는 화학도로서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인연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956년 방문한 송산리 6호 고분. 지하구조물이고 다습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을 포함한 벽, 천정의 벽돌 표면 전체가 완전한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고 말았다. 순간 발견한 것이 연도 중앙부를 통해 뻗쳐 있는 배수로였는데, 건조한 벽면과 달리 벽돌로 만들어진 배수로는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벽면의 벽돌이 겹으로 쌓여서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 효과를 내 온도가 높은 반면, 바닥에 접해있던 배수로 표면은 낮은 온도를 유지해 냉각판 구실을 함으로써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습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이다. 이 일은 이 박사를 문화재보존과학의 길로 이끌었다.

이 박사는 석굴암에서도 자연제습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그는 석굴암 밑에 있는 두 개의 샘이 석굴암 바닥을 흐르면서 결로를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재를 보존하는 지혜에 대한 이 박사의 관심은 고려대장경 판전으로 이어졌다. 그는 경판을 온전하게 보존해온 판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1991년 센서를 직접 제작해 수다라장과 법보전의 내부 여러 곳에 설치하고 미시기상환경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판전 내부 온도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2~3도 높은 수직 분포를 보이나, 수평분포는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났다. 내부 습도는 옥외에 비해 변화가 완만하며 공간 내에서 거의 동일했고, 판가 위 경판 사이의 온도변화는 공간에서보다 느리고 작았다. 이로 인해 목제품 열화 원인인 수분 응축이 줄어 경판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보존에 유리한 기상환경이 형성된 원인으로 이 박사는 경판이 들어있는 ‘틈새상자’의 특성에서 찾았다. 경판은 두 매씩 포개져 배열돼 있는데, 각 경판의 손잡이(마구리)와 이웃한 경판 사이에서 작은 틈새를 갖는 ‘상자’가 형성된다는 것.

위와 아래가 트여있는 틈새상자는 판전 내 대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한다. 맑거나 건조한 날의 경우 틈새로 상승대류가 형성돼 경판의 수분이 감소하고 틈새 습도는 높아지는 반면, 기화과정에서 틈새 기온은 내려간다. 반면 습한 날은 습한 공기가 경판을 지나며 습기를 빼앗기게 되고, 이 같은 액화과정에서 틈새 공기는 기온은 올라간다. 이 박사의 이 같은 설명은 온도와 습도, 상대습도를 측정한 결과와 일치했다.

50여년의 연구 인생에 화두로 지녀왔던 문화재보존의 지혜를 풀어내기에 100분이라는 강연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지 이 박사는 문화재 보존철학을 피력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문화재란 조상의 얼과 교신할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보존 · 복원 작업은 언제나 가역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재의 최종 상속자가 아니라 과도적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박익순 기자

석굴암 고려대장경판전

두개의 샘이 자연제습 메카니즘

경판 ‘틈새상자’로 습도조절

보문사 마애여래좌상 보물지정 추진

고산사 목조석가모니좌상 대전시 문화재 지정



대전시가 보물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대전시는 3월 16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유형문화재 제19호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의 국가문화재(보물) 지정 추진을 결정하고, 대전시 동구 식장산의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과 아미타불화를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대전 유일의 마애불인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은 광배(光背)와 불신(佛身)이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된 고려전기 불상으로 큰 학술 · 공예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발바닥이 위로 향한 채 앉아 있는 좌상이며, 나발(부처의 머리카락) 위에 육계(부처 정수리의 혹)가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높이 322cm, 무릎너비 230cm.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 좌상은 머리가 큰 듯하지만 안정감 있는 자세를 취한 17세기 불상이며, 아미타불화는 1815년 정안 스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조성연대와 조성 장소, 봉안처, 배경 등이 분명한 작품이다.

박익순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유물진열 개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1층 고고관 상설전시 작업의 일부를 3월 14일 공개하며, 용산 새 박물관에서의 유물 전시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이날 이뤄진 전시작업은 유물을 수장고에서 전시실로 옮겨 전시장에 진열하는 과정으로서, 고고관에 전시될 2700여 점 가운데 금영총 출토 금관 1점(보물 338호)을 비롯한 44점의 작업이 공개됐다.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를 아우르게 될 고고관은 도입부 ·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 · 초기철기 · 원삼국 · 고구려 · 백제 · 가야 · 신라 · 통일신라 · 발해의 11개실로 구성되며, 전시면적만도 약 1000평에 달한다.

박물관측은 “고고관 가전시를 6월 말까지 마치고 보완을 거쳐 전문가 및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연행사를 가진 뒤 9월 말까지 새로운 상설전시실을 꾸밀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기사념쳐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저자특강/서광 스님 (미국 보스톤 서운사)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
마음을 정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법…



일시__ 2005년 2월 24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__ 불광교육원 3층 대륜당

정원__ 선착순 180명

접수__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02-420-3200)

서광 스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미국 보스톤 서운사 주지. 월간 불광에 오랫동안 현대 심리학과 마음공부에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으며, 불광출판사의 스테디셀러인 『그냥 바라만 볼 뿐이다』, 『불교상담심리학입문』, 『마음의 치료』,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한영불교사전』 등을 펴냈다.

since 1974, 정통불교의 맥을 이어온 순수불교잡지 월간「불광」정기구독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일주문



관응 스님 열반 1주기 추모법회

김천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은 3월 18일 천불전에서 전 조계종 원로 관응당 지안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공모사업 최우수단체 선정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현장 스님은 2004년 추진된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제30회 무등산 풍경소리

광주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3월 25일 오후 6시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연주자 정인봉 씨 등 초청, '제30회 무등산 풍경소리'를 개최한다.(062)226-0107



군 지휘관 위한 특강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3월 16일 포항 특정 경비지역사령부 강당에서 군 지휘관과 군 가족들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바른' 대표변호사 취임

대불련총동문회 김동건 상임고문이 서울고등법원장을 퇴임하고 최근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 통합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14주년 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은 3월 25일 오후 6시 부산 크라운 호텔에서 정관 스님을 법사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도당위원장 선출

제17대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 · 북제주 갑)이 3월 12일 열린 열린우리당 지역대표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제주도 대의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무용단장에

원로무용가 김백봉(경희대 명예교수) 씨는 3월 16일자로 세종문화회관 산하 단체인 서울시무용단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



육군 을지부대 헌병대장 취임

육군 5군대 헌병대 송충근 소령(대불련 총동문회 상임이사)은 3월 5일자로 육군 을지부대 헌병대장으로 취임했다.

"마임은 禪의 또다른 언어"

'삶과 죽음' 공연 화계사 국제선원 보행 스님



"마임은 선(禪)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계간지 '문학과 창작'이 3월 14일 중앙대 대학로 캠퍼스에서 개최한 '봄맞이 시의 축제'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마임을 공연한 보행 스님(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 사진).

"청춘을 다 바쳐 익힌 마임은 출가한 후에도 선의 진리를 표현하는 강렬한 언어로 남았습니다. 사찰과 선방에서 스님과 신도들 앞에서 몇 차례 선보여온 적은 있었지만 절 밖 마임 공연은 출가한 후 처음입니다." 상송 '세라비'에 맞춰 약 5분간 펼쳐진 마임을 통해 스님은 '고해 속 인생의 구도를 향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임은 필요할 때, 준비된 사람들 앞에서만 하려 합니다." 지나치게 대중교화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 스님은 "리투아니아의 마임 배우들의 한국 공연을 여러 차례 주선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그들을 통한 해외포교 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다. **노병철 기자**

"경봉 스님 뜻이어 동량 기를 것"

일념장학회 새이사장 이영채 씨



"경봉 스님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밑거름이 될 동량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일념장학회의 뜻을 끊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재단법인 일념장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 이사장으로 추대된 이영채(68.대원행 · 사진) 보살은 일념장학회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명의 신심 깊은 신규 회원을 영입하기로 하고 최금순(선법행) 회장, 최정화(미타월) 총무 등이 뜻을 모으고 있다.

이 대원행 보살은 1971년 경봉 스님께 법명을 받고 공부하던 11명의 보살이 주축이 돼 창립된 일념회의 창립 회원으로 30여 년 동안 일념회의 총무를 맡아왔다.011-552-2765 **천미희 기자**

자이툰 부대 "불심 이상無"

아르빌서 임무 마친 강의중 군법사



"중생 구제라는 법사의 사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1진과 함께 이라크 아르빌로 파견됐던 강의중(소령 · 사진) 법사가 최근 임기를 마치고 3월 5일 귀국했다.

"여름에는 60도까지 올라갔다"는 강 법사는 "작년 아르빌 현지 한국 최초의 사찰 평화사를 개원했다. **강유신 기자**

"세계어린이 포교사업 추진"

대불어 신임회장 지현 스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3월 12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6대 회장으로 지현 스님(송광사 율원장 · 사진)을 선출했다.

지현 스님은 이날 "중요성에 비해 어린이포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좀 더 근원적으로 어린이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금강산 신계사 최고의 성지로…"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



"2000만 불자들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를 최고의 불교성지로 만들겠습니다."

3월 18일 교계 기자들과 만난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사진)은 '금강산 불교'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현대 특유의 '뚝심'을 계속 강조한 김 부회장은 "올해 5월 대규모연등행사를 시작으로 고승초청법회와 각종 방생법회 등 10월까지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아산은 이를 위해 불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요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조만간 법명을 주시겠다고 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김 부회장은 "북한지역 사찰복원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철주 기자**

교육 강화로 범패 발전 토대 마련

옥천범음대학 새 학장 일운 스님



"신라때 범패를 들여온 진감선사의 맥을 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정통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곧게 이어나가는 것이 옥천범음대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3월 7일 제 3대 옥천범음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일운 스님(사진)은 불교전통의식인 범패의 발전적 계승을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형을 모르는 의식 구현은 껍데기를 차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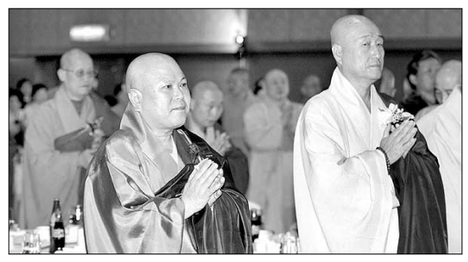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사학의 탄탄한 교수진을 적극 활용해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정 이수에만 급급한 사설 교육기관과 차별되는 양질의 강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산재 의식은 신구의(身口意) 모두를 부처님께 오롯이 올리는 공양이라는 것을 수강생 모두가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상주권공 · 각배 · 영산 등의 기본적인 교육 외에도 작법 강의를 개설했고,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 한해 실습과정 1년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 가을부터는 의식에 쓰이는 악기인 '호적'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적 눈높이에 맞춘 의식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범패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의식의 깊은 멋을 제대로 구현한다면, 이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범패를 배우고 또 느끼려 하지 않겠습니까."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태현 스님 '지장삼부경' 출판기념법회



태현 스님(안양 불국사 주지 · 사진 맨 왼쪽)이 편찬한 지장삼부경 출판기념법회가 3월 17일 정오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룸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 중앙종회의원 장적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5주년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3월 13일 서울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출범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김기병 명예단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이날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포교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일산노인복지관 일자리사업 발대식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명인)은 3월 4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고령사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05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이후 노인들은 거리환경 개선, 행정기관 보조, 건물청소, 교육강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031)919-8677

인사

금강대 △교학처장(겸 정보전산원장) 조성환 △기획실장 진충달 △불교문화학부장(겸 불교학전공 주임교수) 최종석 △사회과학부장(겸 사회복지학전공 주임교수, 사회복지연구소장) 고수현 △도서관장 권탄준 △금강어학원장 하응천 △방송국 주간(겸 중어통역전공 주임교수) 최병학 △불교문화연구소장 최기표

위덕대 △정교실장 권영택 △대학원장 임재찬 △불교대학원장 장익 △사회복지대학원장 최용민 △경영대학원장 배도순 △교육대학원장 진창영 △교무처장 홍욱헌 △학생처장 이명기 △입학처장 김형렬 △행정처장 엄해식 △대학박물관장 박홍국 △대학신문방송사주간 김무생 △취업인력개발센터장 이명기 △학생생활관장 김영찬 △기원정사관장 김무형 △밀교문화연구원장 장익 △진각사회복지연구소장 성희자 △신라학연구소장 이정옥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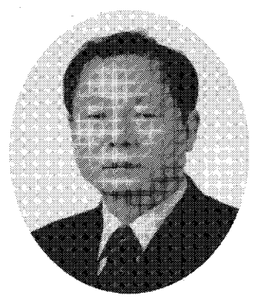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나무 산삼으로 일컬어지는 국내산 토종오가피와 최고의 산삼인 천종 산삼 원근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으로 탄생한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불자 세상보기

김 한 기
서울 은석초등학교 교감

연기법으로 '교육' 지키기

기러기 아빠, 일진회와 학교 폭력, 입시 전쟁, 교육비 비중 세계 1위 등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해가 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이다. 필자가 30여년간 교육의 현장에서 접했던 사례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그 원인과 해결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시절, 시험을 보는 중에 한 아이가 자료물을 꺼내어 적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지적은 않고, 시험을 마쳤다. 아이들을 내 보낸 뒤 가방을 열어보니 어른 글씨로 요점 정리와 예상 문제가 빼곡히 적혀있는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다른 아이 엄마들이 만점과 1등을 자랑하고 다녀서 부럽고 초조한 마음에 친한 엄마 셋과 함께 과목별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나눠 갖고 외우기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아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세 명의 아동끼리 비교도 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요점 정리에 다 있는데 틀렸다고 혼을 냈을 것이 눈에 선했다. 아이들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커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어리석음이었다고 한다. 어리석음이란 바로 연기에 대한 어리석음이다. 연기법을 쉽게 해석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으로, 그 아이가 행한 커닝은 부모의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 된 것이다.

자녀 교육은 서두르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여 년 전 중학교 교사 시절, 학교 방침으로 가출하면 퇴학시킨다고 발표했던 적이 있다. 우리 반 아이가 가출을 하여 삼일 만에 돌아왔다. 가출이유를 물었다. 새끼 새를 키우던 아이는 새벽부터 농사일을 해야 하는 부모가 계속 울어대는 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화를 내며 갖다버리라 하자 가출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새가 불쌍하고 키우고 싶어 농협창고 속에 들어가 삼일 동안 새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은 엄격함이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포근함이 있어야 한다. 부모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아이와 통하면 아이는 갈 곳이 있는 것이다. 학교 규칙도 만능은 아니다. 가슴을 열어 놓고 대화가 있어야 한다. 문제 학생의 출발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는 알아야 한다.

남의 아이만 지도하며 내 아이에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 3인 외동딸이 돈을 일찍 벌어 가정에 보탬을 준다며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을 하겠다고 했다. 비평준화 지역인 분당에서 일류 고등학교로 진학할 실력은 못되고 부모 기대에 맞추지 못할 듯하자 고민 끝에 탈출구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택한 것 같았다. 그때 네 실력에 맞는 고등학교를 택하고 원하는 것을 전공하라고 권했다. 딸에게 좋아하던 미술을 하게 하니 공부도 같이 열심히 했다. 그 후 무난히 미술대학에 진학한 딸이 벌써 3학년이다. 아이의 소질에 맞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 부부가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그리 쉽지는 않았다.

12연기 중 애(愛)부터 고통이 생긴다고 한다. 사랑하는 것을 가지려(有)하니 쉽게 갖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녀만큼 큰 사랑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가 더 커지는 것이다. 부모의 체면과 아이에 대한 기대에 무리한 요구가 커질수록 자녀는 부모와 친구, 선생님과 멀어져 문제아들끼리 모이게 되며 집단 폭력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법정에 선 기러기 아빠의 사건도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 이산가족을 만들었고, 아이들의 인격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지 않은 결과물이다. 어쩌면 올바른 자녀교육은 연기법을 잘 알고 행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의 등불로 삼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우린 365일이 '독도의 날'

한일간 정신적 물질적 채권채무 관계를 계산해 본다면 한국은 분명 채권국이다. 일제 36년 이전 역사가 그랬고 그 이후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채권국인 한국이 모질지 못했던지, 아니면 채무국의 뻔뻔함 때문이었던지 그동안 채권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거나 해결될 기미를 보인 적이 없다.

일본 시마네 현의회가 지난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독도가 일본 영토라 적극 주장하고 나온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뻔뻔함을 확인하게 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전쟁범죄를 희석하고, 정신대 문제에 떳떳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 자체가 채무에 대한 성실치 못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그런 나라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숙명을 지고 있어서인지 그동안 많은 것을 양보해 왔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영토에 관한 것으로 여타의 한일 관계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타국 영토를 자국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의 도발이다. 독도가 예부터 한국 령이라는 것을 수많은 옛 문헌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왜 일본은 새삼 이 같은 도발을 하는 것일까.

지금은 동북아 국가끼리 손잡고 EU와 같은 동북아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일본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켜 세계인의 손가락질 받을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일본이 아직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방 후 한국의 어느 정권도 일본과 독도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 하고 어딘가 허점을 남겨 두어왔다는데 있다. 미적지근하기는 참여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역시 국민 전체의 정서라기보다 민족주의를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적 일면이 강하다. 그동안 독도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사회는 들끓는 일과성 냄비현상을 보인 후 곧 잊혀지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끝난다면 독도문제는 되풀이 되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는 독도문제로 한국 사회가 끓어오르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은 이번에 독한 결단을 내야 한다. ■김징자(칼럼리스트)

이렇게 들었다

재난과 공생

삼계는 편안함이 없도다. 불타는 집과 같도다.
뭇 고통이 가득 차서 몹시 무섭다.
항상 생로병사의 두려움이 있다.
이 같은 두려움은 불과 같이 항상 타올라 그침이 없다.
여래(如來)는 이미 삼계의 불난 집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한거(閑居)하시며 임야에 안처하신다.

〈법화경〉

세계 곳곳에서 자연 재해와 같은 대재앙들이 불러온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신음소리가 높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만큼이나 그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 나누려는 인간애가 꿈틀거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3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쓰나미(지진해일)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긴급사태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다. APEC 21개 회원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05년도 1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APEC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 대응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가 일으킨 파장이 피해 당사국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국가와 나아가 전 세계로 번져갈 수밖에 없다는 '지구공동체'적 가치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회원국의 합일점은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현실 앞에서 지구촌 가족들이 나눔과 공생으로 만들어 낼 희망을 얘기한다. 자국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국제협력기구가 오랜만에 공생의 값진 교훈을 일깨울 씨앗 하나를 심은 셈이다. 이 씨앗이 무차별적으로 몰아닥친 대재앙 앞에서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인간애의 열매를 선사할 것이라 믿는다. 일찍이 '삼계는 편안함이 없도다. 불타는 집과 같도다'라고 설파하며 '대승'의 길을 강조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열매와 다르지 않기에.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혜우 · 혜철 스님의 '감동 포교'

517호 1면에 실린 혜우 스님과 혜철 스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불교계에 이런 스님들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철 스님은 도라지 특화사업을 옥천군이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스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했을까. 보살의 정신이 아니고서야 내 일도 아닌 일에 발벗고 나서 몇 년 동안이나 노력할 수 없다.

스님은 당신이 돈을 벌고자 절 마당 한 구석에 도라지를 3년씩이나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마련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과학대 등에 의뢰해 점검을 받을 정도의 철저했던 스님의 준비성과 노력도 존경스럽다.

차 재배 농민을 위해 제다교육원을 무료로 열어준 혜우 스님도 한줄기 감로수 같은 삶을 사는 분이라는 생각이다. 폐교를 인수해 차 재배 농민들이 한 단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털어 농민들을 위한 삶에 헌신하려는 스님은 진정 보살로 보였다.

이런 두 분 스님들처럼 포교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 말씀을 온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혜우 스님과 혜철 스님 같은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희민(서울 노원구 상계동)

출가연령 제한 풀어야

조계종은 그들만의 종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성별, 속세의 지위 등 모든 세속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며, 근기에 따라 방편을 펴 제도하셨다.

그런데 조계종은 고령 출가자교육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가를 제한하는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폐단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들만의 종단이 되어 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 불교 종단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조계종의 아집과 독선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큰 원력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kim(붓다뉴스)

불교성지 보존 제대로 하자

3월 초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성지를 잘 가꾸자는 내용의 세계불교성지보존회가 창립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교 초전지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것 같았는데 이번 보존회의 창립으로 우리나라의 불교성지들도 잘 보존되고 복원되고 관리되었으면 한다.

보존회는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불교 초전지에 기념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정말 그 시대 현실에 어울리는 사찰이 건립되기를 바란다. 국적도 알 수 없는 사찰을 초전지에 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법한 기념 사찰이 되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의정(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독자 시

생로병사는 어디에…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은데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기러기 날으나
자취 없으니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래가 산을 오르고
토끼가 용궁 찾으면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서남북과
상하(上下) 없을 때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철근(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불교방송 창사 15주년 기념, 중국 실크로드 불교 성지순례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역로, 실크로드 성지순례!

불교방송에서는 창사 15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6일과 23일, 5박 6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불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서역 최대의 도시 우루무치를 시작으로 중국 3대 석굴인 막고굴, 삼장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했던 고창고성과 세계문화유산인 교하고성 등을 견학하며, 만년설산과 초원의 눈부신 경치를 감상하고, 마지막 날에는 북경의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광 합니다.

지도법사는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하시는 진명스님 노적사 주지 종후스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동 참 금 : 1,080,000원(5박 6일)
●비 자 : 중국 비자비용 24,000원 별도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까지
●출 발 : 2005년 4월 16일(토요일)
4월 23일(토요일)
●문의전화 : 불교방송 705-5302, 5303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4/16 4/23	인천 북경 돈황	CA 124 국내선 CA1287	11:00 13:05 14:05 17:40 20:30	인천국제공항 3층 L과 K카운타사이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 북경도착 후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북경 출발 돈황 도착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중 석	기내식 현지식
				HOTEL 태양호텔급		
제02일 4/17 4/24	돈황 유원	전용버스 야간열차	22:46	아침공양 후 4세기 부터 1000년에 걸쳐 조성된 막고굴 견학 -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제17굴 - 조우관을 쓴 삼국인 벽화가 있는 제220굴 237굴, 335굴 명사산, 천년동안 마르지 않는 월아천 순례 유원으로 이동 후 열차로 트루판 향발	조 중 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열차박(4인 1실)		
제03일 4/18 4/25	트루판	전용버스	06:50	트루판 도착 후 서유기의 배경인 화염산 및 석굴사원 천불동, 옛 고창국의 수도인 고창고성(삼장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한곳)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교하고성, 소공탑 견학 후 휴식	조 중 식	현지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트루판 호텔급		
제04일 4/19 4/26	트루판 우루무치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 후 우루무치로 이동 (2시간30분소요) 우루무치 박물관, 인민광장, 홍산공원 회족시장(바자르)등 견학 후 휴식	조 중 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급		
제05일 4/20 4/27	우루무치 천산 우루무치 북경	전용버스 국내선 CA1902	16:35 20:05	아침공양 후 천산으로 이동 천산 천지 유람 및 설산 조망후 우루무치 귀환 우루무지 출발 북경도착 후 호텔 휴식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특급호텔급		
제06일 4/21 4/28	북경 인천	중국항공 CA125	14:00 17:00	아침공양 후 천안문광장, 자금성 관광 후 북경 출발 인천 도착 후 해산 - 성불 하십시오 -	조 중	호텔식 기내식

문의전화 : BBS 불교방송 (02)705-5301~3 / www.bbsfm.co.kr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기2549년 마하몰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등



▮ 공단등
· (大)23Cm/(中)18cm/(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빨강, 흰색(영가등)



▮ 캐릭비닐터만월등
· 32cm × 32cm
· 분홍,파랑,빨강,노랑, 초록,색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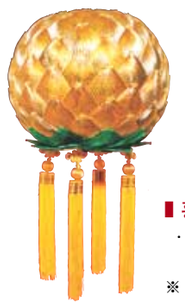
▮ 비단팔모접등
· 28cm × 24cm
· 분홍,노랑초록,빨강,파랑



▮ 연꽃등
· 진분홍,연분홍,주황,연두,보라



▮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숙고사, 프라스틱 · 고급본염인쇄 · 1박스 = 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 황금연등
· 20인치,13인치,10.5인치, 8인치,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사용



▮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 오렌지,흰색(영가),오색 등



▮ 팔각조립등
· 26cm × 28cm
· 핑크,오렌지,초록,파랑, 봉축빨강,봉축노랑, 성도일빨강,성도일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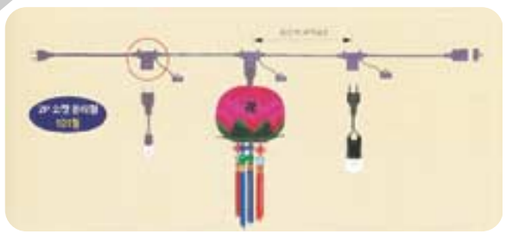


▮ 풍경등
· 빨강,분홍,노랑, 초록,파랑



▮ 종 등
· 40cm × 27cm
· 노랑,연두,분홍, 빨강,오렌지

연등전선







▮ 사찰용 연등전선 (법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수막



▮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 봉축현수막 :세로(실사) · 6mX90cm (60,000원) · 7mX90cm (70,000원) · 8mX90cm (80,000원)



▮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봉축캐릭터용품



▮ 봉축리본 세트
· 일반 : 25,000원 · 고급형 : 35,000원 ※100개 1세트



▮ 연꽃리본
· 25,000원 ※ 100개 1세트



▮ 봉축캐릭터 앞치마
· 4,500원 ※ 200벌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사찰명인쇄 및 내용변경 가능



▮ 봉축 버튼 · 4,000원 ※10개 1세트



▮ 봉축 풍선세트 · 30,000원 ※ 100개 1세트(대롱 포함)



▮ 봉축 타이슬링
· 2,800원
※ 4개 1세트

▮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 90Cm×135cm
※ 다른 사이즈 제작가능



▮ 차량용 깃발
· 4000원
· 20X30cm

단체주문상품



▮ 캐릭터 벽시계 (플라스틱)
· 15,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 헤드폰 알람시계
· 24,000원
(하늘색,은색)



▮ 순금카드
· 15,000원
· 25,000 (케이스포함)



▮ 황향목 담채연꽃차걸이
· 8,000원(1개)
· 34,000(5개)



▮ 달마선화(達摩禪畵)
· 50,000원
· 무불스님 작품(액자별도)
· 450mm X 695mm



▮ 캐릭터 벽시계 (원목)
· 20,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LED라이트 알람시계
· 18,000원
(핑크,그린,화이트)



▮ 연실열쇠고리
· 6,000원
▮ 연실합장주
· 6,000원



▮ 풍경차걸이
· 4,000원
· 갈색,분홍,연두



▮ 이미지 큐브
· 10,000원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일대기
※ 다량주문제작 가능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구수~한 사람의 향기 가득 담아요

향기도반의

‘사랑의 된장 나누기’ 이정임씨


이정임(사진 오른쪽) · 최연식 부부가 담근 된장은 이들 부부의 환한 웃음만큼이나 넉넉한 인정(人情)과 따스한 봄햇살을 머금고 익어간다.

9년간 전국 50여 사찰, 복지원, 소년가장 등에 된장 보시

유통업 사장에서 빚쟁이로…스님에게 배운 된장으로 재기

IMF 이후 귀농, 웰빙바람 타고 성공…99년 ‘신지식인’에

내년 ‘온 사람의 선방’ 준공, 참선하며 나누는 공간 마련

“이정임 아저씨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미진이에요. 해마다 겨울이면 이렇게 된장 한 통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도 김치가 나오긴 하지만 아저씨가 보내준 된장하고 장아찌가 제일 맛나요. 동생 우철이는 매일 아저씨가 보내 주신 장아찌로만 밥 먹어요….”,

“이 거사 보세요. 해마다 이역만리 우즈베키스탄까지 고국의 된장이며 고추장을 보내주시니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초등학교 6학년 미진이가 또박또박 정성껏 눌러쓴 감사의 편지, 일제치하 당시 징용에 끌려가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정형진(85) 할아버지가 보내온 눈물 젖은 감사의 편지. 누구에게 보내온 편지일까. 바로 소외받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이웃들에게 ‘정성과 사랑’이라는 양념으로 된장을 담궈 보시하는 된장장수 이정임씨(52)에게 보내온 편지들이다.



매일 장독에 담긴 된장을 푸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오른손은 장독이 올라 울긋불긋 만성피부염이 생겼지만 “된장 잘 먹었다”는 감사의 편지 한통에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 이씨. 그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에서 된장을 판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된장만 파는 된장장수가 아니다. 전국의 인연 닿는 사찰 50여 곳과 100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 충북지역의 고아원, 양로원 등 30여 곳에 된장을 보시하는 ‘사랑의 된장 아저씨’다.

이뿐만이 아니다. 절에 공양물로 올라온 콩은 스님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메주나 청국장으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9년 동안 된장을 보시하다 보니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도 많다. 절에 가면 ‘된장 거사’,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된장 천사’로 통한다. 1년이면 어림잡아 2천명에게 보시할 된장과 하루에도 수 십명의 손님들이 먹을 된장을 공급하다 보니 된장독만 약 3천 개가 넘고 1년 동안 보시한 된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 만 원이 훌쩍 넘는다.

“아무 반찬이 없더라도 된장찌개 하나에 밥 한 그릇이면 그럭저럭 허기는 채울 수 있잖아요. 한참 클 나이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햄이며 고기며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양껏 챙겨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이정임씨는 원래 된장장수가 아니었다. 1988년까지만 해도 속칭 인천에서 잘 나가는 유통업 사장님으로 불릴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렸던 이씨. 하지만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친구에게 보증 서 준 것이 화근이었다. 보증을 선 친구 회사의 부도로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어음결제 압박과 은행에서의 차압은 결국 그를 도산의 나락으로 몰고 갔다. 우선 깡패까지 동원한 빚쟁이들 때문에 아내 최연식씨(47)와 아들 호경이를 데리고 조치원으로 몸을 피했다. 주머니 속엔 꼬깃꼬깃해진 만원 권 몇 장뿐. 그 돈으론 1월의 칼바람을 피할 여관방 하나 못 잡을 형편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아내와 함께 남의 집 과수원과 논농사일을 나가며 날품을 팔아 1년에 20만원 하는 방 한 칸 짜리 집을 겨우 얻었다.

슬래이트 지붕이라 여름엔 새벽 3시까지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잠을 설쳐야 했고 겨울엔 온 가족이 이불 속에서 입김을 불며 오들오들 추위에 떨어야 했다. 모기에 뜯기고 땀띠 때문에 온몸에 수포가 잡힌 아들 호경이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햇볕에 시커멓게 그을린 아내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불연듯 지난날 안산 화림선원 주지 스님에게 배웠던 죽염을 넣은 된장이 생각나지 뭡니까. 바로 이거다 싶었죠. 그 날로 온 가족이 충북으로 내려와 청주 월명사 주변 공터에서 된장 담그는 일을 시작했죠. 불평이나 원망한번 없이 언제나 제가하는 일을 응원해준 아내의 내조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됐지요.”

노력을 거듭한 끝에 ‘된장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된장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살맛이 났다. 예전엔 그렇게 새벽이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빨리 새벽이 와서 된장을 팔았으면 하는 즐거운 욕심도 생겼다. 이런 행복도 잠시. 1992년 여름 내내 계속되는 장마로 인한 산사태는 3백여 개의 장독을 모조리 삼켜버린 것이다. 두 번째 맛보는 좌절과 실패였다. 흙더미에 덮힌 깨진 된장독을 끌어안고 3일 밤낮을 울었다.

“된장은 살균효과가 있어 피부에 닿으면 장독이 오를 정도로 독하죠. 그런데 깨진 된장독 안에서 하얗게 살이 오른 구더기 몇 마리가 꿈틀대며 살아 있지 뭡니까. 너희들은 이 독한 된장을 먹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달콤한 설탕과 꿀만을 먹으며 세상 살기를 바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자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투지가 불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제 인생의 스승이었던 셈이죠. 허허허”

1997년도에 그간 저축했던 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땅을 사 된장을 팔았다. 그런데 그 해 겨울 IMF가 터지면서부터 귀농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의 된장은 일약 ‘웰빙된장’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 1999년도에는 신지식인으로 뽑혀 교도소, 복지관 등에서 강연요청을 받은 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얼마의 강연료가 나오지만 괴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차비하기에도 모자라 오히려 자신의 돈을 보태가며 강연을 다녔을 정도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모두 제가 만든 된장을 사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해서 가난했을 때, 배고팠을 때를 잊고 혼자만 잘살면 안되죠. 당연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 야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된장을 나누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까웠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98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장 담그기 교실’이었다. 11월 첫째 일요일과 2월 마지막 일요일 1년에 두 번하는 행사지만 이씨의 장맛이 맛있다는 소문이 얼마나 파다했으면 한번 행사를 열 때마다 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이씨는 피곤하거나 싫은 내색 없이 그의 트래이드 마크인 웃음으로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점심이며 저녁까지 대접해 가며 열과 성을 다한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108배와 참선수행으로 아침을 맞는다. 돈벌이를 위한 된장 팔기가 아닌 그야말로 구수한 사람냄새 나는 된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돈 때문에 생기는 탐진치를 염불과 108배로 훌훌 털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가 만든 된장 속에 웃음과 행복과 건강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는지 장남 호경이(23)와 쌍둥이 상준(14) · 경준이도 이 일을 이어 받길 원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이면 그가 된장을 팔고 있는 운곡리 마을 한켠에 ‘온 사람의 선방(가칭)’이 완공된다. 누구든지 와서 참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리 머지 않은 4~5년 후엔 고아원도 준공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과 최대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내 집처럼 최고로 편안하게 느끼고 뛰놀 수 있는 고아원을 만드는 것이 그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진흙 속에서도 향기로운 연꽃은 피어나듯이 오늘도 그의 된장은 사람냄새 구수하게 풍기며 그렇게 익어가고 있겠지….

괴산=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개국 10주년 불교TV
불교TV 개국 10주년 기념 큰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 간 : 3월 6일 ~ 5월 8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불교TV 무상사 법당
문 의 : 02)3270-3300

3월 6일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3월 13일 각성스님 화엄학회 회주
3월 20일 혜거스님 금강선원장
3월 27일 혜국스님 제주 남국선원장
4월 3일 월주스님 前조계종 총무원장
4월 10일 보성스님 승광사 방장
4월 17일 법산스님 前정각원장
4월 24일 종범스님 중앙승가대총장
5월 1일 고우스님 봉화각화사선덕
5월 8일 묘허스님 단양방곡사 회주

나의 수행법

김의식 (中)



참선점검표는 나에게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줬다. 좌선을 함으로써 급한 성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며, 덤벙되며 실수 하던 것이 순간순간 내 마음을 살피는 행동으로 바뀌었다. 또 집중력의 강화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됐고, 이치에 맞는 생활을 좋아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성 심장병이 사라지면서 밤에 설치던 잠자리가 편해져 생활의 리듬도 되찾게 됐다.

하지만 참선 중에서 간화선으로 가는 방법은 쉽지 않았다. 늘 새로운 마음가짐과 수행법을 갖춰야 했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공부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기초 선서(禪書)의 탐독.

먼저 <임제록>을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다보니 <임제록>을 손에서 뗄 수 없었다. 그간 참선점검표를 써오면서 경험했던 마음공부의 궁금증과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됐다. 아니 흥미로웠다. 때문에 난 <임제록>을 거의 외다시피 했다.

공부에 진전없자 기초 선서 탐독
궁금증과 어려움 하나하나 해결

그리고 그동안 참선수행경험과 공부 됨됨이를 점검받기 위해 서옹 스님을 찾아갔다. 법문도 듣고, 친견의 기회를 수시로 가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

"저는 나름대로 불서를 많이 접해 부처님의 말씀을 더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겐 체험된 것이 아니어서 번잡함만 더해 갑니다. 어떻게 불교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서옹 스님은 "'왜? 어째서, 마삼근, 이뭣고'를 불철주야로 의심해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 후로 난 주야로 20년간 화두참구를 계속했다.

초기에 한 3년을 쪼아대니, 온몸이 서늘하고 청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순간순간 인과들이 풀어지는 화두생활을 계속해갔다.

참선수행을 통한 마음공부는 내게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다. 참선은 활발발한 정신을 이어가는 것과 이 활발발한 정신은 부동심(不動心)에서 출발한다는 것. 하지만 의문이 들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움직임 없는 마음에서 활발발한 정신이 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런 의문이 조금도 이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은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움직일 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본마음'이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본마음'이 아닌 '가짜 마음'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고, 안 움직일 때 산란해지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인가? 다시 고민했다. 화두를 집요하게 들었다. (계속)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자기성찰 통해 괴로움의 뿌리 뽑기



출가 및 열반절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참회수행이 한창이다. 사진은 관음참법도량인 나주 불회사의 참회정진 현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출가·열반절 집중 수련 '참회수행' 요체와 핵심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조 혜가 대사와 제자 승찬 사이에 오간 '참회문답'. 승찬은 이어 스승 혜가 선사에게 무상(無相)참회의 경계를 내어보인다.

"오늘 죄의 본성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본래 여여한 공(空)인 것처럼, 죄의 티끌 또한 그러합니다."

"됐다(그리고 입을 닫다)."

삼조 승찬 스님이 제시한 참회(懺悔)의 원리. 이 같은 무상참회는 육조 혜능 대사가 <육조단경>에서 강조한 '자성(自性)참회'로 연결된다. 즉 '제법의 참된 실상을 여실히 보면, 삼세에 지은 죄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그럼, 참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성찰 없는 삶은 허망한 업 놀음일 뿐'이라는 참회수행법. 3월 17·24일 부처님 출가·열반절을 맞아 '지혜의 칼날'로 망상의 뿌리를 자르는 참회수행법(懺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회 없는 수행은 없다'

지난 1991년 관음대참회수련원을 개원한 나주 불회사 주지 정연 스님은 "참회 없는 수행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참회가 근본무명인 업식(業識)을 녹이는 마음공부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참회는 모든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업식의 정화 없이는 어떤 수행법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장을 해결하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모래로 밥을 짓는 꼴입니다. 참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참회 수행법을 강조하는 일산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도 마찬가지다. 어떤 수행법이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수행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발원도 세울 수 있고 용맹정진도 할 수 있다.

"죄든 업이든 이것들은 자성이 없습니다. 마음이 삼독심을 좇아 일어나는 망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아온 죄라도 한 생각(一念)에 없어집니다. 참회수행이 공성(空性) 논리에 입각해 마음을 본래 자기 자리로 되돌리게 만들어 줍니다."

절·염불·진언 등 다른 수행법과 동시에 진행
생활에서 겪는 문제, 스스로 원인 깨닫게 돼

참회는 자기발원

육조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영원히 번뇌 망념을 짓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이 참회"라며 무상참회법문을 했다. 즉 '참(懺)'이 자기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라면, '회(悔)'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란 의미다. 달리 말하면, 참회는 자기발원(發願)인 셈이다.

이 같은 참회수행법은 천태지의 대사가 제시한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그 수행흐름을 살필 수 있다. 사참은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기에 보통 수사분별(隨事分別)참회라 한다. 반면 이참은 이치의 실상을 보고 죄를 멸하는 참회로 관찰실상(觀察實相)참회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이참은 제법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자성이 공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사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업의 제거를 위한 참법인 셈이다. 흔히 일반적으로 '참회한다'는 것은 사참에 해당한다.

'토털수행법'이라 부르는 이유

이런 참법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에게 '토털수행법'이라고 불린다. 참법이 절 염불 진언 독경 사경 등의 다른 수행법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절참법, 미타참법, 진언참법, 관음참법, 자비도량참법 등 참법의 유형이 다양한 것도 이런 점에서 비롯된다.

그럼, 참법이 진언 염불 절 등의 다른 수행법과 병행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무외 정사(무애심인당 주교)는 '참법의 포용성과 다양성'에 있다고 설명한다. 참회수행법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기참회로서의 사참과 불법의 지혜를 깨닫는 이참까지 그 원리를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참회는 자기성찰로 인한 마음공부의 원력과 발심을 다양한 형태의 수행법으로 구체화시킨다. 때문에 참회가 불교 수행법의 기초이자 '토털수행법'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외 정사는 육자진언염송을 통해 법신불이 곧 자신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언참법이 중생의 신구의 삼업(三業)을 부처의 삼밀(三密)로 전환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즉 참법이 맹목적일 수 있는 진언염송을 적극적인 수행으로 바꾸면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 인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실시간에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옴마니반메훔'을 외는 순간순간 마다, 참회로써 자기죄업의 실상을 여실히 확인하고 '즉신성불(卽身成佛)'의 가능성을 재확인한다는 의미다.

미타참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양산 정토원장 정목 스님은 참회가 피상적일 수 있는 염불수행을 수행자 스스로 자기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강조한다. 참회가 염불수행을 수행자의 내면으로 더욱 치열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참회가 염불수행에 기폭제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어떤 변화 일으키나?

참회 수행법이 일으키는 변화는 '발고여락(拔苦與樂)'에 있다. 즉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즐거움을 준다'는 것. 무엇보다도 자기 참회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직접 살피면서 스스로 자기업장이 녹아가는 모습을 확인, 실질적인 자기변화를 이끌어낸다.

매년 한번씩 서울 도선사에서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하고 있는 전업주부 강화자(63·서울 석관동) 씨의 경우는 '참회를 식사 후 설거지'로 비유한다. 알게 모르게 지은 일상속의 잘못을 늘 참회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강 씨는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도박으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잦은 불화를 일으킨 남편이 한없이 미웠고, 모든 것이 남편 탓인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10권의 참법을 매일 한 권씩 독경하고 절을 하는 자비도량참법기도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다가왔다. 특히 강 씨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큰 죄를 짓고 구렁이로 환생한 황후 치씨가 양무제에게 참회를 고하는 '자비도량참법의 인연설화'를 통해 남편에 대한 원망을 접게 됐다고 한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기도 내내 울었다.

강씨는 또 7권을 독경할 때, '발심수행으로 원수를 용서한다'는 구절을 읽고, 자신이 남편과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됐고, 남편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

이처럼 참법은 자기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수행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해낸다. 현실 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문제들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자비도량참법>은 중국 양나라 무제의 지시로 여러 학승들이 편찬한 참회수행서다. 총 10권으로 구성됐고, 권마다 참회글, 발원문, 3천배 참회문 등이 담겨있다. 이 참법의 특징은 자비를 증장해 모든 중생을 고해에서 해탈케 해주는 참회법문들로 편집됐다는 점이다.

<자비도량참법>의 특징은 독경, 절 등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살의 수행단계인 '십지(十地)'와 총 1719배의 절 횟수를 각권 마다 배대했다. 가령 1권에는 십지의 '환의지'를 절 횟수는 63배를, 마지막 10권에는 '법운지'와 186배를 할당해 놓았다.

이 같은 <자비도량참법>은 '10일간 10권 자비참법' 또는 '100일 정진기도' 형식으로 전국의 사찰과 수행단체에서 참회수행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현재 <자비도량참법>을 통해 참회기도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 도선사, 통도사 부산포교원, 수원 봉녕사, 포천 법왕사, 대구 원만사, 서울 정수암,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진주불교회관 합천 백련암 등 20여 곳이다.

영 험 도 량

수년간 팔공산 입산 용맹정진 기도로써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과 가피력을 증명하신
無有心佛(무유심불) 불토사 큰 스님께서
(고통 · 육체 · 슬픔 · 마음 · 신경 · 정신)
세계의 고뇌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불치성 질환 무병과 업장 및 전생문제 등을
무유심불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 가피로서
큰 스님의 원력과 스님들의 지극한
기도발원과 극진한 지도로 본인 각자의
기도정진으로 극복 치유합니다.
無有心佛 약사여래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불 토 사
연락처 : 종무소 033)343-0103(숙식가능)
전 송 033)344-0406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단곡리
오시는길 :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10분거리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화 금
• 탱
• 개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제45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3월 26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 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발기부전, 만성두통, 견항통, 오십견,
구완와사, 이명, 비염, 중이염, 천식,
아토피 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무릎관절통, 손 발목 관절통, 만성체증
비결침술로 1회 ~ 6회만에 완치되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0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가 전문의가 될 수 있다
※ 중풍, 소아마비, 간경화, 각종 암 등은 별도상담
비 법 강 좌
※ 선착순 10명, 숙식 제공함 ※
• 일 시 : 3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10시간교육)
• 보시금 : 일백만원(미리예약 3월28일까지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016-663-2159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① - 사불(寫佛) 수행

線을 그려 禪을 본다

"본격적으로 수행은 하고 싶은데…, 책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재가불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많은 재가불자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행법별로 전문가를 대신만나 물어봐줬으면….'

본지가 이런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들과 함께 나섰다. 각 수행법의 핵심과 구체적인 행법을 매월 한차례 지면에 담는다. 첫 회는 '선(線)을 그려, 선(禪)을 본다'는 사불(寫佛)수행. 사불수행 2년차 이현순(54·경기 마석), 초참자 김영숙(45·경기 광명) 씨가 3월 16일 사불수행연구회 부회장 법인 스님(서울 공덕사 주지)을 찾아 '사불수행의 ㄱㄴㄷ'을 물었다.



올초 사불수행을 시작한 김영숙 씨(왼쪽)가 법인 스님에게 사불수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속의 그림은 이현순 씨(가운데)가 지난 동안거 기간동안 매일 관세음보살사불지.

호흡 깊고 길게…감정 이입 금물 어머니 생각하듯 불보살 관해야

먼 길을 달려왔다. 새벽 6시에 경기 마석의 집을 나서 서울 구로구 공덕사까지 오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 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았을까? 그것도 100일간 한 장씩 그린 '관세음보살사불지'를 양손에 들고서.

이유는 간단했다. 법인 스님을 뵙자마자 이현순 씨가 물은 질문에서 그 까닭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큰 선을 그릴 때 붓끝이 흔들려요. 호흡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호흡을 길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흡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이 불자님의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큰 호흡을 가지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해요.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깊게 들어 마시고 길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사불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호흡을 놓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호흡을 챙기세요. 깊게 들이쉰 숨을 복부의 단전까지 끌고 내려가세요. 급하지도 늦게도 않게요. 그러면서 자기 호흡을 잘 가다듬으세요. 그런 다음, 들숨에서 한 호흡을 가지런히 가둬놓고 한 획씩 선을 그려나가면 됩니다."

동안거 기간에 맞춰 관세음보살사불 100일기도 마친 이 씨는 사실 2년 전만 해도 붓 쥐는 법조차 몰랐다. 심지어 펼쳐놓은 밑그림만 봐도 어리둥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다. 하지만 물을 사람이 없었다. 때문에 이 씨는 사불수행에 대한 의문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질문 바통을 받은 사람은 올 초 서울만해대학 불교공예학과에서 사불수행을 시작한 김영숙씨. 불보살 모습을 관하는 관상법(觀像法)에 대한 질문부터 던진다.

"관상법이 사불수행의 핵심이라는데, 불보살님들의 모습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불보살들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관해보세요. 어머니가 늘 입는 옷, 짓는 미소들을 연상하면 내 마음에 어머니의 모습이 걸림 없이 들어오죠. 관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불보살의 상으로 마음에 옮기세요. 그러면 애써 상을 그려 내려하지 않아도 무의식중에 불보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이현순 씨는 '과연 사불로써 선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꺼내놓는다. 10년 넘게 간화선 수행을 해온 이씨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다.

"사불수행은 '사불선(寫佛禪)'이예요. 내 손으로 직접 부처님을 모시면서 '내 안의 부처'를 확인하고, 그 자성불(自性佛)을 밖으로 그려내 자신의 눈으로 보며 부처와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김영숙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스님에게 묻는다.

"그럼, 사불선의 궁극적인 경지는 어떤 건가요?"

"굳이 부처님을 관상법으로 바로 보지 않아도, 붓끝으로 그리지 않아도 부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불선의 경지예요. 선과 부처님 그리기가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이지요."

질문은 사불수행 할 때의 주의할 점으로 이어진다.

"사불수행을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감정이입을 해서는 안 돼요. 망상과 번뇌가 관상과 호흡에 장애로 작용하게 되니까요. 초심자는 우선 불보살의 상을 관할 때, 지나치게 그 모습을 집착하면 안 돼요. 자칫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중참자의 경우는 관상법에 집착해 불보살을 오랜 시간동안 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거울을 보듯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불수행에 들 때에는 오로지 그 순간에 다가오는 형상과 호흡에만 집중하고, 순간순간의 변화에만 치밀하게 관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사불수행 지도하는 법인 스님은…



법인 스님(사진)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불교계에 사불수행 바람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고 지난 2002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불수행 시연회'를 불교계 처음으로 개최한 장본인. 이 행사에서는 조계사와 봉은사 신도회, 길상사 청년회가 참가하는 등 사불수행의 대중화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후보인 박정자 씨와 사불수행연구회를 결성했고, 최근에는 서울에 사불전문도량 공덕사(02-2066-8061)를 창건했다.

지난 81년 강원도 월정사 지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서울 금강선원, 서울 동산불교대학, 서울 만해대학 등에서 재가불자들에게 사불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사불수행 포인트는?

사불수행만이 가지는 특징은 단연 불보살의 모습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조성해내는 과정에서 수행이 익어가는 것이다. 분별작용으로 오염된 마음을 부처님의 원만 상호인 32상 80종호의 형상으로 깨끗하게 지워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불선에서는 망상의 뿌리를 미리 정화하고 참회를 반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망상을 타파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사불수행은 초심자가 붓이나 볼펜, 종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 일반적으로 재료에 따라 사불수행을 분류하면, 금니사불 은니사불 먹 사불 다색(多色)사불 등. 또 그리는 대상과 발원에 따라 석가모니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이나, 연꽃이나 사천왕상 등을 사불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사불수행을 배울 수 있는 단체는 서울 동산불교대학(02-722-0108), 만해대학(02-738-3385) 전국에 10여 곳이 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0> 내가 죽거든 조문객이나 부의금을 받지 말라

올초의 일이다. 불교계 신문을 뒤적이다가 한쪽 구석의 아주 신선한 기사에서 눈길이 머물렀다. 한적한 토굴에서 혼자 열반하신 초삼 스님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평생 올곧은 수행자로 살다가 다비식마저 아는 몇몇 스님네가 모여 조촐하게 치렀다는 것이다.

20~30대 시절에는 화려한 다비식이 잔칫날처럼 좋아보였다. 총림에 오래 머문 탓으로 많은 다비식을 치렀고 또 다른 사찰의 영결식장에 더러 가보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거리를 만장대열과 꽃상여로 장엄한 영암 스님 다비식이 출가 이듬해 처음 본 절집 장례식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옛날 '국장(國葬)' 수준이었다. 그걸 보고서는 대뜸 '나도 열심히 수행해 큰스님이 되면 저런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지' 하고 철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후 많은 큰스님들의 장례식도 거의 그 정도 규모였다. 하지만 절집에 사는 햇수가 늘어가면서 그런 다비식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산중 대중과 문중 식구들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차츰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비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객비'는 그 전체 액수의 거대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누어주는 일도 늘 걱정이었다. 그 장면은 언제나 거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비식 이후 문도간의 불협화음, 재산권 분쟁, 그리고 최근 모 유치원의 폐쇄 등에서 보듯 스승의 뜻과는 십만 팔천리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도 심심찮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혜능 선사는 열반을 앞두고서 아주 소박하게 장례식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육조단경〉에 나온다. 이 부분 만큼은 '돈황본'과 '덕이본'이 별로 차이가 없다.

"잘 있거라. 이제 그대들과 이별하노라. 내가 입적한 후에 세속적인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이나 공양물을 받거나 상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불법의 가르침도 아니며 나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두 단정히 앉은 채로 좌선을 하라. 내가 간 이후에도 다만 법에 의지해 수행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하라."

이 부분은 선종(禪宗)의 장례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원론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다. 우선 울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생사불이(生死不二)'이기 때문이다. 조문이나 부의금도 받지말라고 했다. 민폐가 되기 때문이다. 상복도 입지 말라고 했다. 지금은 문도들이 가사를 수하지 않고 장삼차림으로 조문객을 받는 것으로 거의 정착화 되었다. 현재 제대로 지켜지는 건 이것 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다비식 이후에도 스승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점이다.

육조혜능 "울지말고 상복도 입지 마라" 당부 가르침에 어긋나는 다비장 객비로 속앓이

스승의 유지와 가풍은 가능한 한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조문객도 맞이하지 말고 부의금도 받지 말라고 하였으니 무슨 객비를 나누어 줄 일이 있겠는가.

다비장 객비 피해가 심하다보니 종단의 원로 어른들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거의 한계치에 온 것 같다. 어른의 복과 덕을 대중에게 회향한다는 이 아름다운 절집의 미풍양속마저 '강제의무공양금'이 되어 골사나운 모습 연출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담 역시 눈덩이만치 늘어나 또다른 고(苦)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불법의 가르침도 아니고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다른 의미에서 '망(亡)은사를 욕되게 할까봐' '마지막 길이니까' 감히 어느 제자도 '없애겠노라'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능 선사 유훈 이후 또다른 관습의 뿌리는 질기고 깊기만 하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가락동 로데오거리 200M 문정역 문정1동 동사무소 대한미륵창운회 유불선천기도장 성남방향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법(法)도 또한 공(空)하다

있다(有)·없다(無) 같은 말이라니?

제가 누누이, 우리가 객관적 사태라고 부르는 것 또한, 실은 주관적 관심의 흔적이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말과 이름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다"는 물론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은 ~이다"라는 것 또한 이미, 주변과 세상에 대한 모종의 '판단'인 바, 그것은 이런저런 관심과 이해관계에 의해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객관적 사태란 없습니다. 아니, 이 말은 정확하지 않은데, 보다 정확하게는 "객관적 사태는,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객관적 사태가 아닙니다. 붓다는 그래서 "진리는 아리안의 고귀한 침묵 속에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바, 법(法)도 또한 공(空)한 것!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이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일체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술병에 반이나 남은 술

좀 어렵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술병에 술이 반밖에 안 남았다"와 "술병에 술이 반이나 남았다"는 서로 다른 진술입니까 같은 진술입니까? 아비달마라면, 여기서 '밖에'나 '이나' 따위의 강조구는 분명 주관적 개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술병에 술이 반이 남아있다"는 진술은 객관적 법(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수 등이 주도한 대승의 중관(中觀)은, "술이 있다"라는 진술 자체가 이미, 술에 대한 발성자의 '관심'을 포함하고 있고, 그 사태를 향한 모종의 '태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려 합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술이라는 대상은 지각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거기 얼마쯤 담겨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지는 더더구나 않았을 것이며, 당연히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유무(有無)는, 이른바 객관적 사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자아의 관심에 의해 '의미화된 것으로서의 존재'와 관련된 말임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불교가 유무(有無)를 말할 때, 그것은 법(法)이 아니라 상(相)에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요컨대 불교가 말하는 무(無)는, 교실을 들어서며, "어! 아무도 없네!"라며 문을 닫을 때 그때 판단한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 교실에는 실제 여러 학생이 어울려 떠들거나 책을 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다른 방에서 "기집애, 여기 있었네" 하면서 찾던 유(有)를 확인하고 안도할 것입니다.

유무(有無)에 대한 이 주관적 태도는 그 여학생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내 몸, 내 가족, 내 새끼, 내 편당, 내 민족, 내 국가라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고, 제 편의대로 세상을 사는 바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토록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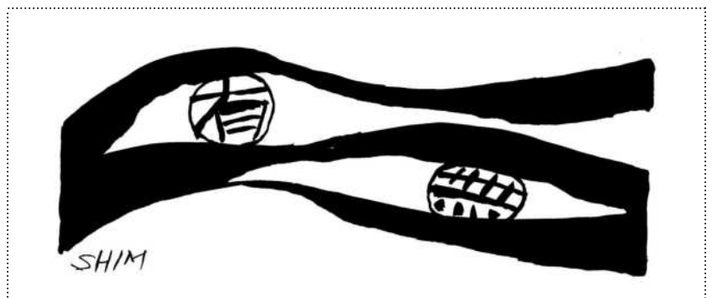
각자 독백만 하고 있는 분절된 삭막한 도시가 우리가 사는 풍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이 그토록 아상(我相)과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과 수자상(壽者相)을 경계하고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그리고 이름을 떠나야, 우리는 서로와 더불어 마음과 말을 나누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有)와 무(無)는 결국 같은 말이다?

유무(有無)와 시비(是非)를 말할 때, 오고감(去來)을 따질 때, 많고 적음(增減)을 말할 때, 좋고 싫음(好惡)를 말할 때, 그 어디든 아상(我相)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상이 침묵의 실제(實際)를 간섭하고 그것을 토막 내서 차이를 만들고, 그것은 늘 차별로 미끄러집니다. 불교는 이 분별(分別)이야말로 세상의 비참과 곤혹을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기억하실 것은, 유(有)와 무(無)가 정반대의 극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 아상(我相)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불교 언설의 역설과 모순, 모호함과 아이러니의 진원지입니다.



불교는 경전의 언설장구(言說章句)마다, 유와 무가 결국은 같다는 것, 그 둘을 동시에 벗어나야만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구정녕 가르칩니다.

불교, 그 가운데서도 중관(中觀) 불교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사구백비(四句百非)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구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有)도 아니다. 무(無)도 아니다. 유이면서 동시에 무인 것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도 또한 아니다." 이 냉혹한 거절은 어떡하든 유와 무를 거머쥐려는 우리의 노력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거절이야말로 불교가, 그리고 나중 선의 조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준 노파심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현실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들 그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작고 사소한 것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을 두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고통을 받았으며, 남들과 다투고 심리적 소모를 벌여 왔던 지를… 그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은 다 어디 가 있나요. 불교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한 판단과 의견들이 다들 부질없는 어린애 장난 같은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문제'로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세세한 시비(是非)와 그 상위범주로서의 유무(有無)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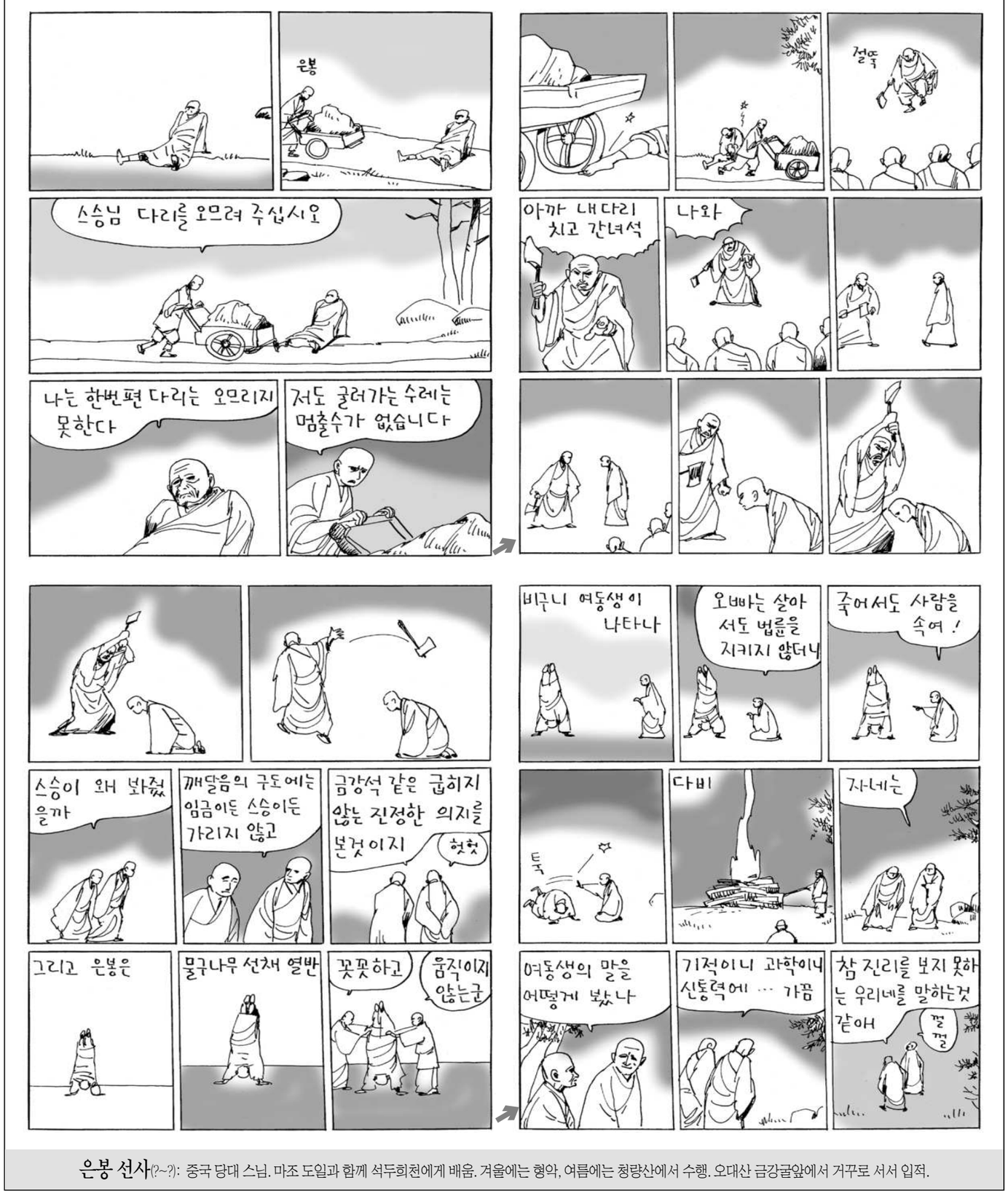
모래성을 쌓고 허물며 노는 아이들

그러니 바깥의 반연(攀緣)을 쉬고 깊이 숨을 들이키십시오. 세상은 본시 고요하고 평등(平等)한 것, 우리는 법계(法界)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조각을 하며 장난치고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놀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성을 빼앗고 부수기에 으르렁대던 아이들도, 해질 무렵 어머니가 부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래성을 짓밟고 발로 이긴 다음, 저녁을 먹으러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 더 유의할 것은, 이 소식을 가르치는 불교의 가르침 또한 실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유희의 마음으로 세상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가르침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더 없이 위대한 지혜이고, 말후구(末後句), 즉 최종적인 한 마디인 만큼, 더 위태롭고 더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 독성을 스스로 해독하고 나섭니다. "내가 말하는 지혜는 그러나 지혜가 아니다(佛說般若波羅蜜, 卽非般若波羅蜜)." 이 자기부정이야말로 불교가 진정 최상의 지혜임을 일러주는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⑥0 은봉선사의 '물구나무' 입적

조태호



은봉 선사(?~?): 중국 당대 스님. 마조 도일과 함께 석두희천에게 배움. 겨울에는 형악, 여름에는 청량산에서 수행. 오대산 금강굴앞에서 거꾸로 서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도인(道人)이 무엇입니까?"

문 경전을 읽다보면 도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도인(道人)의 정의(正義)를 내린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학자)

답 1 : 도(道)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줄 아는 것이고, 그 실력자를 도인이라 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다 알아들으려면 삼처전심(三處傳心)과 팔만장경의 뜻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지가 도인이다. 하지만 그 뜻에 계합하지 못하고 신통이 내는 것은 요술(妖術)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술(道術)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된다. 그것은 본심(本心)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 말씀은 본심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소개한 말이다.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도인이 아니다. 마음에 대한 소리인데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선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 분상, 그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격이 됐다는 것이 도인이다. 도인이라는 것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걸 못 알아들으면 도인이 아니라 요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힘을 알고 신통이 나는 것이 도술이다. 요술은 요사스런 생각이 통일되면 나타나는 것이다. 추번뇌를 항복받아서 나타나는 도술은 소승교(小乘敎)의 도인이 쓰는 것이고, 추번뇌·세번뇌를 모두 항복 받고 나타나는 도술은 최상승선, '마음을 깨달은 도인'이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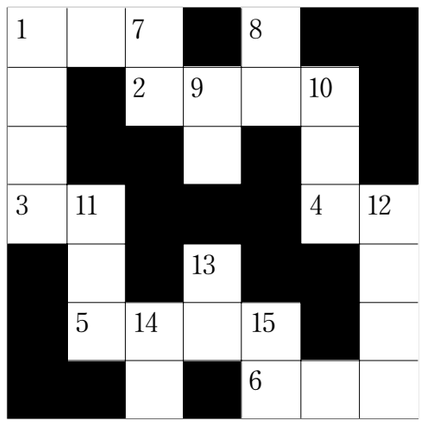
답2 : 내가 생각하는 도인은 동트는 새벽이면 밤사이 내린 감로이슬을 마시고, 생솔 잎을 한 움큼 뜯어서 뱃속을 달랜다. 백설처럼 단아한 흰옷을 입고 노루 사슴을 타고 청산을 누비며 때로는 백학을 타고 속세를 나툰다.

입에는 백향단약을 머금고 눈은 천리를 주시하며 귀는 만세에 두루하니 얼굴은 백면에 티끌이 없으며 몸에서는 광휘가 찬란하고 손 한 번 휘저으면 삼천리를 날아가고 한 발짝 움직임이 지도를 접어서 달리더라.

그와 말하는 이는 참새와 소나무와 토끼풀이요, 그가 하는 말은 기이한 언어라서 범인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눈으로 말하고 말할 때는 기이한 광명이 수를 놓고 입에는 욕이 없고 입을 열면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요. 피부로 호흡하며 부드럽기는 봄날의 미풍과 같아라. 콧속에는 만세를 비추는 신비구슬이 둘이니 가히 요지경의 기인이라. (춘심)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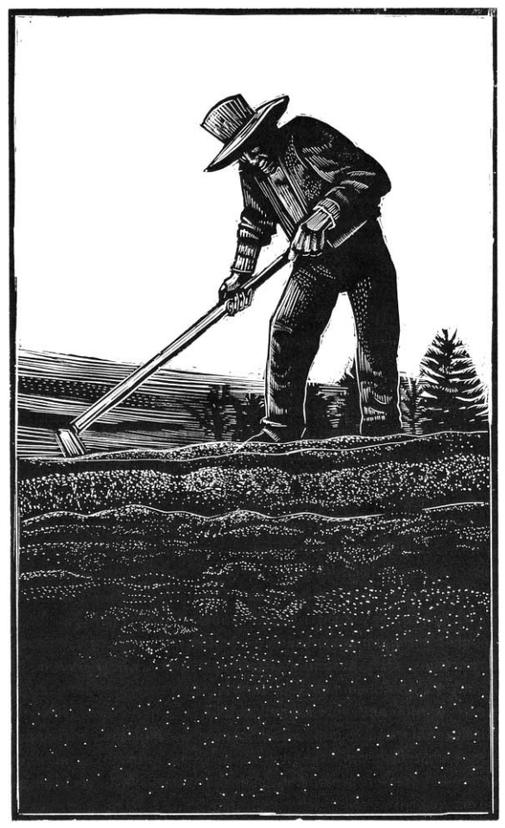
1. 출근상황을 적는 장부 2. '뿔을 바로 잡으려다 오히려 소를 죽임' 3. 해가 지는 일 또는 해넘이 4. 처음 대하는 얼굴, 숙면(熟面)의 반대 5. 조선시대 식사예절로, 음식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다섯 가지 마음가짐 6. 지도에서 표준해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들을 연결한 곡선.

세로

1. 싯다르타 태자가 생사해탈의 대원을 세우고 왕궁을 떠난 날로 음력 2월 8일 7. 병력 등이 하천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놓아만든 다리 8. 남을 웃기려고 하는 우스운 행동이나 말 9. 각 부문이나 항목에 대한 논설, 총론의 상대적 의미 10.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1. 상식에 벗어남 12. 벽을 보고 참선하는 수행법 13. 크게 깨우침 14.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가격 15. 초파일에 등불을 달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일.



잠든 영혼 일깨우는 소로우의 편지



'내가 가진 부는 무한하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이기 때문이다'고 말한 소로우는 자신의 고향 콩코드에서 손수 밭을 일구는 등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다.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류시화 옮김
오래된미래 펴냄
9천5백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목수, 측량 기사 일을 하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는 문명을 등지고 미국 콩코드 월든 호숫가의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자연주의자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2년 2개월 뒤인 1848년 그가 다시 고향 콩코드 시내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콩코드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우스터에 사는 신학자 블레이크가 보낸 편지였다. 소로우보다 한 살 연상이던 블레이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빈둥거리며 삶을 소비하는 실패자로 평가 받던 소로우의 위대한 정신을 알아보고 그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두 사람의 편지는 소로우가 생을 마칠 때까지 13년 동안 계속되었다. 첫 한 편만 블레이크의 것이고 나머지는 소로우의 편지다. 그 편지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바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소로우가 살던 콩코드의 오두막집.

블레이크는 소로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불안한 영혼에 대해 토로하며, 더 진실하고 순수한 삶을 일깨워 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소로우는 우리가 삶에서 슬픈 이유는 삶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라고 답한다. 자연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전 생애에 걸쳐 영적 진리를 추구한 소로우의 구도자적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편지들은 그가 얻은 깨달음과 삶의 지침이 담겨져 있다.

내용이 짧고 일상적이지만, 대다수의 편지들이 그의 독립심, 수행, 자연과의 교감, 그 자신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등 소로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이 책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들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신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믿은 소로우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특히 영적인 믿음에 대해 허식을 부리는 것을 경계했다. 이 책의 편지들에는 소로우의 영적인 사상들이 정면에 그리고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블레이크가 소로우에게 영적인 스승을 대하듯 다가갔기 때문이다.

블레이크와 더불어 소로우의 이 편지들을 받는 사려 깊은 독자들은 정신의 자극을 받고 생의 영감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정의 내릴지라도 이 편지들은 지혜의 서간문인 것이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장작 몇 개를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신성한 불을 지필 수 없다면."과 같은 소로우의 말은 삶의 지혜 그 자체다.

류시화 시인의 한층 물이 오른 번역도 이 책의 깊이를 더해주는데 일조한다. 류씨는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단순 번역을 뛰어넘었다. 그 중거가 바로 책 속의 편지마다에 소로우의 다른 책이나 삶에서 연관이 있는 글이나 말, 자신의 생각을 주석 형식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월든 숲을 몇차례 다녀온 그가 재구성한 책이기에 더 깊게 소로우를 만나게 해준다.

월든을 깊이있게 읽은 '내공'있는 독자라면 이미 곳곳에서 눈치를 챘을 것이다. 소로는 '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샤드'등 인도경전을 곁에 두고 살았지만 영적 체험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으로 여겨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월든에도 수많은 암시만을 심어놓았다.

이 편지글들은 구도자로서 소로우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는 데 기왕의 그의 책에서 가졌던 미진한 갈증을 풀어준다. 예컨대 "필요하다면 신조차도 홀로 내버려두라. 나는 만일 그를 더 사랑한다면 그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를 만나러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단지 그를 홀로 남겨두고 돌아설 때입니다"같은 구절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우리가 삶에서 슬픈 이유는 삶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장작 몇 개를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신성한 불을 지필 수 없다면."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었으며 아름다운 콩코드에서 태어난 것을 무엇보다 큰 행운으로 여겼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부와 명성을 쫓는 화려한 생활을 따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글을 쓰며 인생을 보냈다.

소로우는 생전에 자신의 저술로 어떤 경제적인 성공이나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생활한 2년간의 경험을 기록한 <월든>은 19세기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책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 수감됐던 사건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 <시민의 불복종>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그의 문화적, 사상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요즘에 와서는 19세기를 살았지만 21세기적인 환경의식을 지녔던 사람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1862년 5월 6일, 결핵으로 44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전문가 서평



지식인의 죄와 벌
피에르 아술린 지음 | 이기언 옮김
두레 펴냄 | 1만2천8백원

기억은 주관적이다. 그것은 처음과 끝이 달라 때론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당신의 그것이 달라 서로를 등지게도 한다. 뒤섞이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며 편의에 따라 지워지기도 한다. 한 사람만의 내밀한 경험으로 갇혀 있을 수도 있으며, 연인 사이의 추억처럼 너와 내가 공유하는 애틋한 무엇일 수도 있다. 언젠가의 광주처럼 도시 전체가 떨리는 눈으로 날밤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축구공 하나에 나라 전체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겯는 것일 수도 있다.

무너지는 빌딩을 보던 처연한 눈으로, 그러나 이제는 뛰는 심장을 쏘기 위해 가늠자를 노려보는 눈으로. 기억은 그렇게 변한다. <지식인의 죄와 벌>은 기억, 그 가운데서도 시대의 기억을 책임지는 기자와 작가의 책임을 묻는 책이다. 책은 공평하다. 1944년 8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프랑스에서 나치에 부역한 지식인들에 대한 숙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이 저마다의 '말의 무게'를 가진 채 '대숙청'을 향해 달려간다.

시대의 기억을 책임지는 자여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출신의 작가 알베르 카뮈가 펜을 든 것은 파리가 해방을 맞은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다. 1944년 8월 30일 카뮈는 납활자 자국이 선명한 날선 신문 사설 하나를 내놓는다.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감히 용서를 거론할 것인가? 칼은 칼로밖에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잊어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내일을 담보해 주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기억에 근거한 정의 자체이다."

'기억의 정의'를 요구하는 한 켠에선 "우리는 학살자와 희생자의 헷바퀴보다는 더 나은 것을 바란다"(프랑수아 모리아크)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논리가 고개를 든다. 그러나 프랑스는 단호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프랑스 문예>)

프랑스는 때론 비이성과 권력의지가 혼합된 숙청을 감행하기도 했지만 동족에겐 칼을, 이민족에게는 달콤한 펜과 혀를 굴렸던 부역자들을 '기억'하는데 결국 성공했다.

프랑스에서도 악몽처럼 머리를 짓누르며 기억을 왜곡시키려는 헛된 노력들이 있어 왔다. 지은이는 "부역자들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숙청 주도자들의 잘못을 거론하려고 기를 쓰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딱 잘라 주문한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이 책의 부제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자들이다. 모든 기억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옳은 기억은 정의를 보장한다.

누구 말처럼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온" 우리의 해방은 어떠했는가. 그 해방공간의 기억은 누구의 것이며, 지금-여기 반민특위의 좌절조차 남의 기억으로 대신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김남일('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

동천사 불교대학 송파시민선원

교육목적

간화선(참선)으로 무명속에 있는 참마음을 찾아 생활속에서 얻은 스트레스 및 화를 소멸하여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교육과목

1. 불교학개론, 선학, 반야, 금강경
2. 벽암록, 무문관, 전등록, 육조단경 등

※ 확실한 참선 지도

● 법 어 : 동천사 조실스님
● 지도교수 : 차차석, 김영덕 교수 外 다수.
● 선 원 장 : 금봉

교육과정 3개월
모집기간 수시모집
문 의 송파시민선원 02)420-5009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님들께 청정한 황토물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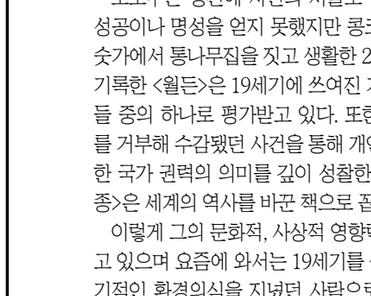


지혜스님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라는 선몽을 주신 것입니다.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황토물 지장수를 드려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님들께 지장수를 드려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발원하였습니다.
나쁜일을 지으면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백의관세음보살님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포교당 연화정사는 자비의 마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항상 선행을 행하며, 부처님 정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시어 우신 1리 연화정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상원사 포교당 연화정사
041)588-7779,010-6772-7485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반 3개월 과정 (제21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4월 7일 (목) 오후 2시, 본대학 강의실(목탁,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문의 전화 02)720-1836 733-1959

불교에서 찾은 인간 해방의 길



인도로 간 붓다 -그의 삶과 가르침
암베드카르 지음
이상근 옮김
청미래 | 1만5천원

최하층 계급에서 장관직까지 오르며 소외받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암베드카르가 쓴 불교입문서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불리는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1891~1956).

힌두교의 전통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의 최하층계급인 '불가촉천민(하리잔)'으로 태어나 장관직에까지 오르며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그는 죽기 두 달 전인 1956년 10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불가촉천민 수십만을 이끌고 불교로 개종했다. 인간의 평등권과 신분제 해방의 길을 불교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신은 단순한 '불교도'이길 원했음에도, 사람들은 이를 종래의 불교와 구별하여 신불교(新佛敎, 네오부디즘)라 일컬었다. 암베드카르가 부처님의 출가이유와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영혼이나 윤회, 전생, 업 등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인도로 간 붓다>는 암베드카르가 개종을 감행하며 일반인들을 위해 집필한 불교입문서로,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여실히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담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삶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집안의 14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포이(영국의 인도인 용병) 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봄베이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인도로 돌아와 1942년 총독 정부의 노동 장관을 역임했으며, 같은 해 불가촉천민의 전국적인 정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1946년에는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됐고, 인도의 네루 내각에서 법무장관에 오르는 등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정부 관료와 언론인, 대학교수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되는 계급적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카스트제도를 인정하는 힌두교에서는 더 이상 사회변혁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불교에서 그 사상적 기반을 찾았다.

암베드카르가 체계화한 불교교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구조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타개하는 본질적인 '해방의 해석학'이라 일컬어진다. 그는 힌두교가 가난한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현실을 개인의 '업'으로 돌리는 것과 달리, 다만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스러지는 인연의 연쇄 고리만이 있을 뿐이며 이 인과의 고리를 푸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주장했다. 바른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심어 준 것이다. 또한 그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한 삿다르마(정법, 正法)라고 그는 정의한다.

'니카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평전(評傳) 형식으로 정리한 이 책에서 암베드카르는 부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서 참다운 삶과 수행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스승과 부처는 하나"

구루요가 수행 이렇게

<달라이 라마의 자비명상법>은 달라이 라마가 열아홉 살에 쓴 구루 요가 수행법인 <영적인 스승과 관세음보살의 불가분성: 모든 성취의 근원>을 라마 툽텐 예세(1935~1984)가 해설한 책이다. 구루 요가란 탄트라 수행에서 구루(스승)와 부처를 하나로 보는 수행법이다.

1부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수트라(Sutra)와 탄트라(Tantra)가 갖는 접근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2부 '달라이 라마에게 배우는 구루 요가'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수행법을 한 문단씩 해설하고 있다. 3부 '자비명상 수행하기'에서는 자신이 스승 즉, 부처와 하나되는 법이 무엇이며 진언은 어떻게 염송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4부 '수행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매 순간을 명상의 순간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일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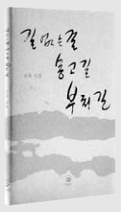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자비명상법
라마 예세
툽텐 해설
박윤정 옮김
정신세계사 | 1만원

몽골에서 만난 부처

길 위에서 완성되는 기행시는 때로 풍광이나 감흥의 묘사를 넘어 선성찰을 느끼게 해 준다.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의 기행시를 모은 시집 <길 없는 길 몽고 길 부처 길>은 말을 타고 초원을 건너고 '겔(유목민들의 거주용 천막)'에서 잠을 자면서도 '깨달음'의 끈을 놓지 않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길은 털털거려/ 고행(苦行) 길이네.// 길은 멀기만 해/ 인내의 길이네.// 길은/ 없어/ 모두 길이네./ 몽고 길이네."('몽고 길 1' 전문)

"시를 쓴다는 것은 시간에 내몰리기 쉬운 일정과 마음에 쉼표를 찍는 일"이라는 진옥 스님은 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여수노인복지회관 관장을 역임했다.



길 없는 길 몽고 길 부처 길
진옥 스님 시집
하얀연꽃 | 8천원

재밌는 일화에 담긴 숨은 지혜 찾기



우파니샤드, 귓속말로 전하는 지혜
이재숙 지음 | 풀빛 | 9천원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책을 권하는 일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그 책이 어른들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철학 고전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각 독서 단체나 대학들이 선정하는 '추천도서'에는 <논어>나 <유토피아> <자본론> 같은 철학 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아닐 수 없다.

도서출판 풀빛이 펴내는 '청소년 철학창고'는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자처한다. 허우성(경희대) 윤찬원(인천대) 정영근(서울산업대) 허남진(서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50여 권의 고전을 선별했고,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해당 분야의 일선 교사들이 필자로 나섰다. 어렵고 딱딱한 기존의 고전 해설서를 벗어나 강의를 하듯 쉽게 풀어썼다.

'청소년 철학창고' 그 두 번째 책으로 <인도 철학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가 나왔다. 책은 18종의 <우파니샤드> 중 일부를 뽑아 '나에게 소중한 사람' '감각의 한계' '요가의 진실' 등 10가지 주제로 엮었다. 나찌께따가 염라대왕을 찾아간 이야기나 땅 속의 악마 아수라와 하늘의 신들의 싸움 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담고 있다. 재미있는 일화 속에 담긴 숨은 지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편, 도서출판 풀빛은 '청소년 철학창고' 시리즈로 <삼국유사>와 <금강삼매경론> <대학 중용>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불교디자인 개척 … 화필 인생 40년



흰구름 오려서 누더기 깁고
고현 글/그림 | 종이거울 | 1만5천원

일러스트레이터(회화와 디자인 사이에 있는 분야)로 30여년 동안 '불교미술의 현대화, 불교 디자인의 개척화'라는 화두를 잡고 살아온 고현 교수(조선대 디자인학부)가 화필 인생 40년을 정리한 책을 펴냈다.

지은이의 그림과 불교에 얽힌 인연 이야기들이 책을 읽는 재미에 불교에 대한 지평까지 넓히게 해준다. 그중 지은이가 10년 전 경기도 화성의 모 사찰의 탱화 제작과 장엄불사 관계로 출입하면서 느낀 감회는 감동 그 자체다. 이 절에는 와병중인 주지 스님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 70세가 넘은 할머니 80여명이 함께 살고 있다. 장장 8년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소변 받아내며 병상을 지키는 봉사자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지은이는 '내가 내 부모한테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며 고개를 떨군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는다. '화필삼매(畵筆三昧)'를 통해 이들에게 장엄한 <법화경>의 세계를 시각적(視覺的)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다.

지은이는 "불교작업 30여 년에 이번처럼 힘들게 끌고 간 경험이 없었다. 장마철에 연구실이 비가 새는 통에 그려놓은 절반의 작품을 다시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이 절에 살고 계신 스님들의 모습이 필력의 원천이 됐다"고 술회한다.

지은이는 아직도 '승(僧)과 속(俗)'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화필삼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승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남아있어서인지 이따금 산에 가서 한 철씩은 살아야 새로운 기를 얻어서 내려오곤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고현 교수가 붓을 다시 들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불교만화이야기 12>**(불교만화연구소 펴냄, 3천원)=불교만화 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 열두 번째 권에서는 <백유경>에 나오는 일화를 만화로 꾸민 '김경림의 백유경 이야기'와 팔공산 은해사를 찾아서, 몸에 좋은 스트레칭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동화 '오세암'을 요약해 실었다.



■ **<이젠 지혜경영이다>**(손기원 지음, 지혜미디어, 1만2천원)="5년 후에는 지식사회가 아니라 지혜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가치,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덕목도 지혜다. 그래서 지식인에서 지혜인으로, 지식경영에서 지혜경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이 자기경영과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혜경영'을 제시한다. 개인과 기업 차원의 '10가지 변화 습관'을 일러준다.



■ **<어린이병원에서 만난 작은 천사들>**(미야모토 마사후미 지음, 황소연 옮김, 한울림, 8천5백원)=난치병과 싸우는 일본 어린이 환자들의 글과 그림을 엮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의 2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아이들이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의지가 책 곳곳에 배어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하얀연꽃
2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3	이장의	은정희	소명출판
4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부
5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이가서
6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7	참회, 참회 기도법	김현준	효림
8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9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효림
10	마음공부의 바른 길	종성 스님	임제선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전등록 전 5권
바로보인 벽암록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선문염송 6권까지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증도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方外之士!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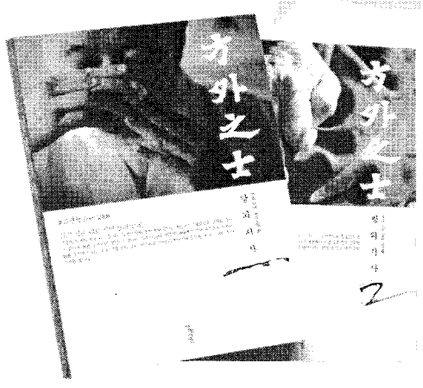
직장에 얽매여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만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인가? 갑갑한 삶의 틀에서 빠져나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백수의 제왕에서 무림고수까지 고정관념과 경계선 너머의 인생을 사는 13인 방외지사들에게서 진짜 잘 사는 법을 찾는다.



방외로 뛰쳐나가 행복을 찾은 우리 시대 삶의 고수 13인 이야기
- 20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집을 수목원으로 일구는 시원 박태후의 귀거래사
- 뗏목 타고 서해 바다를 탐험하는 장보고의 후예 윤명철 교수의 대담무쌍한 도전 정신
- 백수의 제왕 강기욱의 "눈 먼 새도 날아다니면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온다"는 백수 철학
- 교사 출신으로 중국 제 1의 도교 문파인 화산파 23대 장문인이 된 곽종인의 여자 신선의 길
- 할리 데이비슨 타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전직 기자 출신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생존법
- 역술계의 이종격투기장인 부산에서 입신양명한 박청화의 진기한 역술 공부 이야기
- 서울 이태원에서 계룡산으로 삶의 무대를 옮긴 산중무예 가천문 문주 박사규의 인생 역정
- 50년 세월 동안 한라산에서 화두를 잡고 초절의 삶을 사는 비구니 대각심 이야기
- 전국의 강을 두 발로 걸어다닌 신정일의 "걷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뚜벅이 인생
- 의사는 부업, 주업은 도학으로 평생 소승을 찾아다닌 내과의사 이동호의 구도 역정기
- 차 잎 냄새만 맡아도 원산지를 맞추는 품명가 손성구가 들려주는 인생 최고의 맛
- 실상사 앞에서 70 평생 발우를 만들며 살아온 지리산 터줏대감 김을생의 자연주의 인생론
- 늙어갈수록 아름답다는 나무의 철학을 깨치며 전통의 혼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이정곤의 삶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 뿐…." 오늘의 한국 땅에 사는 행복한 아웃사이더들의 인생행로를 저자의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 책. -「조선일보」 박해현 기자

MBC 뉴스에 방영된 화제의 책
출간 즉시 교보, 예스24, 알라딘 베스트 진입





방외지사 1·2
조용헌 지음 (강호동양학자,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저자, 현재 조선일보에 '조용헌 살롱' 연재 중)
김홍희 사진 / 각 권 9,000원

정신세계원 www.mindvision.org (02)747-7033



부처님오신날 꽃으로 곱게 장엄한 관불단 앞에서 합장하는 불자들.

불교꽃꽂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룸비니동산에는 꽃비가 내렸다. 아기 싯달타가 처음으로 내딛은 일곱 걸음마다 피어오른 것도 연꽃이었고, 깨달음 이후 영산회상에서 설법할 당시 가섭 존자에게 말없이 들어 보인 것도 한 송이 꽃이었다. 그 뿐이랴. 불보살이 앉은 자리는 언제나 연꽃으로 장엄돼 있고, 탱화 속 보살 역시 찬탄 공양할 꽃을 늘상 몸에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로 권세나 명예 따위의 무상함에 꽃을 비유했다지만, 불교에서는 꽃이 진리의 상징으로 표현됐다. 육법공양의 하나이자 진리를 담은 예술, 불교 꽃꽂이의 의미와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육법공양중 하나인 꽃공양을 올리는 스님들. 만가지 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꽃을 올리기 때문에 꽃공양을 '만행화'라 표현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활짝 핀 꽃은 성불의 기쁨

모양·색깔·위치 등 교리에 맞게 쓰는게 기본
쌍영총 벽화, 흥국사 감로탱 등에 꽃공양 흔적
지연·보명·정명 스님 등 단체 구성 활동 활발

■ 꽃공양은 수행의 결실을 맺는 과정

꽃공양의 역사는 곧 꽃꽂이의 역사다. 꽃꽂이 전문가들은 "꽃 공양을 위한 꽃꽂이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이 땅에 뿌리내려 불교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왔다"고 말한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쌍영총 벽화 등을 비롯해 신흥사 대웅전 기단 돌조각의 공화(供花·통일신라), 해인사 대적광전의 꽃바구니 별화(고려시대), 흥국사 감로탱에 나타난 꽃꽂이(조선시대) 등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그렇다면 꽃공양과 불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꽃은 만덕을 갖춘 진리에 비유된다. 법구경에는 "연꽃은 바로 비로자나불이시므로 그 불신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다"고 나타나 있다. 그래서 꽃 공양을 다른 말로 '만행화'라 표현한다. 만 가지 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꽃을 올리기 때문이다.

꽃공양의 과정이 수행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연 스님(한국꽃꽂이협회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은 "<관불삼매해경> 십념시방불품에 '향화를 봉헌할 때에 원문(願文)을 발(發)하여 짓거나 법회 때에 공양문을 지어 풍영(諷詠)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꽃공양은 불자들 수행 정진의 결실을 맺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수행을 거쳐 성취한 깨달음이 곧 꽃으로 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삼존 구도는 불법승과 윤회사상 함축한 것

서양식 꽃꽂이는 일정한 골격 없이 몇 가지 형태에 따라 꽃을 모아 꽂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장식을 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동양식 꽃꽂이는 여백과 선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불교꽃꽂이는 동양식 꽃꽂이의 묘를 살리는 경우가 많다.



불교 꽃꽂이는 불·법·승을 의미하는 3골격을 주지(主枝)로 처리한다. 보명 스님 作.

불교꽃꽂이는 구도나 재료 면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불단을 장엄하는 불전공화의 경우 보통 중심의 부처님, 그리고 좌우의 협시보살로 이어지는 삼존양식 구도를 사용한다. 활짝 핀 꽃을 중심에 놓고 양쪽에 봉오리 꽃을 세운다.

보명 스님(한국불교연화회 회장)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만개한 중심 꽃은 법열의 기쁨과 성불을 나타내고, 좌우 협시보살로 대표되는 양쪽 꽃봉오리는 청정과 지혜를 뜻한다"며 "사상적으로도 삼보(불·법·승)에 귀의하는 뜻과 윤회사상(과거·현재·미래)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간에 꽃을 꽂을 때에도 이와 같은 3골격을 주지(主枝)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삼존불 구도는 이후 가장 기본적인 꽃꽂이 양식의 기준이 됐다.

극락조, 연꽃, 목련, 작약 등의 꽃을 주로 사용하고 다섯 가지 이상의 색상을 쓰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 비구니 스님들 개별 활동으로 명맥 이어와

한국꽃꽂이협회와 한국꽃예술작가협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지연·동희·인태·명주 스님 등은 1988년 한국불교비구니꽃꽂이회를 결성해 불교꽃꽂이 강좌와 전시회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꽃꽂이 전시에 재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한국불교꽃예술회'로 개칭, 년간 1회씩 전시회를 열어왔으나 현재 단체활동이 흐지부지된 상태다.



기와와 소나무 등으로 한국의 정신세계를 표현했다.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노란색'의 장미로 보편적인 진리를, 중앙의 꽃 안시다움은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지연 스님 作.

꽃꽂이 회원이 늘고 또한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스님들의 개별 강좌가 마련되면서, 최근에는 독자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불교꽃꽂이 1세대 스님들인 지연·보명·정명(연화플라워회 회장) 스님 등이 개별 단체를 구성, 수원 봉녕사 강원(지연)·삼선강원(보명)·전국비구니회관(정명)을 비롯해 불교방송 문화센터(보명) 등지에서 불교꽃꽂이 강좌와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는 중이다.

또한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불교전통꽃꽂이 강좌를 진행 중인 정진희(정진희중앙꽃꽂이회)씨 등 재가불자들이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불교꽃꽂이 강좌를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강신재 기자

인터뷰



불교꽃꽂이 연구 34년
지연 스님

"꽃꽂이 작가의 역량에만 의존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교꽃꽂이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34년간 꽃꽂이 길을 걸어온 지연 스님(사진)은 불교문화의 하나로 계승된 불교꽃꽂이가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는 선의 예술을 구현한 불교꽃꽂이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스님들의 원력에 의지한 불단장엄용 꽃꽂이에만 갇혀있다는 판단에서다.

30여년 무료강좌 꽃 통한 포교
4월 불교꽃꽂이연구 모임 결성

"단청이 화려한 목조건물 법당, 시멘트로 지은 현대식 사찰법당의 꽃꽂이가 일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과 성격에 맞는 꽃의 양식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꽃과 수행이 둘이 아닌 경지를 체득하는 동시에 꽃을 통한 포교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스님은 '꽃'이 살아나는 환경이 아닌, '환경'이 살아나는 꽃을 위한 꽃꽂이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주위를 빛내는 미덕과 상생의 가르침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4월부터 불교꽃꽂이 연구모임을 꾸리는 한편, 30여 년 간 이어온 꽃꽂이 무료강좌(4월 7일 개강, 기원사) 역시 한층 강화해 이어갈 예정이다. (02)918-0034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탱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연꽃초 법당, 탑돌이, 방생 등 특히 야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용품·불상조성·전기촛불·양초제작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국사봉 원국사

강원도 횡성의 국사봉 제상바위 중턱에 위치한 원국사는 지혜의 길, 선행의 길, 믿음의 길로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하겠다는 영원한 생명 아미타부처님의 기도도량이다.

원국사는 울창한 나무들이 곳 곳에 늘어서 있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용천수는 공덕을 갖춘 약수로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청수로 영험하여 많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적의 아미타 염불기도 도량입니다.



● 2005년 2월 21일 대구 최명옥 보살의 조상천도 49일 회향기도 청수의 얼음 물오름 사진 입니다.

불자님은 부처님의 광명과 환희와 생명으로 충만한 원국사에서 일체업장이 깨끗이 소멸되고 심중 소구 소원 원만성취하옵소서.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옵나이다.

마음의 귀의처 국사봉 원 국 사
회주 법용스님 주지 진묘스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71번지
전화 033)343-1767~8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②

3월 12일

주제 -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부와 지식 쌓은 만큼 당신은 행복한가?



혜국(慧國) 스님은

- 61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고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정진
-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뒤 오른손 세 손가락 연비
-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 동안 생식하며 장좌불와(長坐不臥)
- 제주도 남국선원에 무문관 개설
- 현재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21세기의 대안이 왜 선(禪)이어야만 하는가?

먼저 21세기를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21세기를 받아들일 때는 정말 꿈의 21세기가 온다고, 21세기는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한 지 5년째. 이라크 전쟁과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뭇 생명들이 죽었고, 아프리카나 콩고, 네팔, 루마니아 등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간에 또는 부부간, 또는 모든 가정의 룰이 남아시아 지진해일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돈도 더 많아지고 엄청난 지식도 쌓았는데 진정 행복한지 돌아봅시다. 내가 본래 성불인 부처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와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도 부처와 같이 잠을 자고 한 발짝 한 찰나에도 당당한 부처로서 사는 삶이요, 행복한 평화로움을 느껴보는가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오히려 중노동 속에서도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 오순도순 저녁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마 "정말 나는 행복하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살만하다"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일류 대학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좋은 직장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돈 때문에 때로는 직업 때문에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나라 인사법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라고 인사를 했어요. 하도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살 때라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사법을 들어보면, "부자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이 경쟁하는 회사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행복" 잘못된 가치관 뿌리내려

그러면 왜 이렇게 세계관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는 대안인 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주관이고 보이는 대상은 객관이다 하여 나와 남을 항상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나와 남을 적이냐 동지냐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말입니다.

부처님법은 중도, 마하반야바라밀, 천상천하유아독존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며, 이웃이 잘되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농장에서는 곡식이 지어져서 이웃이 잘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이라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서양철학에서는 사유하는 이성과 그 사유하는 이성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대상, 즉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이원론을 원칙으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21세기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사유하는 정신은 우월하고 그 대상인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하인주의 지배의식, 개발의식이 이원론에서는 싹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개발논리와 지배의식이 싹트다 보니 환경까지도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불안과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공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공기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공기 하나를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내 코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 많고 많은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가 밤새 공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세계관을 우리는 연기법, 중도법이라 하는데,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은 나와 우주자연,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세계관을 반드시 설정해야만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고 생의 근본문제 해결 나서야

이원론의 폐단을 지적한 아이슈타인 박사는 마음수행이 앞서가고 과학이 뒤를 따라와야만 과학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마음수행은 안하고 과학만 발달하면 과학은 핵무기가 되고 수류탄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서 인류를 멸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내가 내 자신을 깨닫는, 내 마음의 별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자가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계 인구 가운데 내가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 참선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만큼 앞서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깨닫겠다"고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참선법을 배우는 사람은 대단한 복인(福人)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와서 우주대자연의 이치를 홀연히 깨달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전부다 본래성불이라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건만, 다만 눈에 가리는 번뇌 망상에 의한 잘못된 착각 때문에 부처인 줄 모르는구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태양광명은 오늘도 이 도량을 비추고 있지만 문을 닫고 커튼을 쳐 버리면 빛이 들어올 수 없듯이 번뇌 망상이라는 커튼을 탁 쳐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벽만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꿈을 깨면, 부처 아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 하는 것은, 보려고 딱 한 생각을 내어버리거나 찾으려고 하면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냥 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고 하면 이미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아무리 귀한 7대 8대 독자라도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밥을 먹어줄 수 없습니다. 먹어줘 봐야 아들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다음 생 혹은 몇 백 생 이후에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인간 몸 받아서, 그것도 부처님법 따르는 불제자 되어 참선법 믿는 이때 안하고서는 다시는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내일로도 넘기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뿐, 부디 영겁에 물러나지만 않으면 부처 못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1세기의 위기가 나와 상대를 나누고 남 잘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고, 법문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연속극 하나 줄인 그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참나가 무엇인고' 하고, 밥을 하면서도 '이 밥이 내 입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던고. 그 분을 위해서 이 모르는 마음을 내야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얼굴은 편안해지고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 가정 가정마다 세계관이 바뀌고 잘못된 세계관이 바로 정립되고 정견이 서게 됩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일체형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 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불서보급 30년 전통" 동진기획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한문반야심경
• 경전사경 제1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반야심경
• 경전사경 제3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문금강반야바라밀경
• 경전사경 제2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금강반야바라밀경
• 경전사경 제4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문관세음보살보문품
• 경전사경 제5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관세음보살보문품
• 경전사경 제6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한문반야심경사경지
• 한지날장 (636㎜×313㎜)
• 값 400원
한글·한문보문품사경지
• 한지(3장1조) (636㎜×313㎜)
• 값 1,200원
한글무상게사경지
• 한지날장 (636㎜×313㎜)
• 값 400원
붓펜(사경펜)
• 제브라붓펜 1호 (모필-세자) 값 7,500원
• 제브라붓펜 2호 (모필-중자) 값 7,500원
• 리필용 카트리지 (1·2호리필용) 값 2,500원
• 제브라붓펜 3호 (경필-세자) 값 2,000원
• 제브라붓펜 4호 (경필-세자) 값 1,800원
• 제브라붓펜 5호 (경필-중자) 값 1,800원
Since 1975
동 진 기 획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051)515-8888(代)
FAX:(051)508-0101
H·P:011-554-2988
E-mail: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 불교서적 ■ 불교카렌다 ■ 주문카렌다 ■
■ 불교용품 ■ 연 등 ■ 사찰인쇄전문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②



질의 법사 : 설우 스님

· 해인사, 불국사, 범어사 등에서 25안거 성만
· 현재 조계종 승가고시 위원
·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 추진위원회 위원
· 법인정사 선원장

내가 없어져 진리 그 자체 될때 '화두삼매'

신심 확고하게 서야 의심과 분심 일어나



재가 질의자 : 김건웅 거사

· 부산대 공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수료
·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장 역임
·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
· 현재 해인실업 대표 · 한나래문화재단 상임이사

설우 스님: 천년이 넘도록 간화선이 선종의 정통 수행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사선 정신을 바탕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사선과 간화선은 비록 그 이름은 다르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구도를 지니고 있는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 학자들 중 조사선과 간화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간화선과 조사선 수행의 동일성에 대해, 그리고 조사선과 간화성이 주장하는 본래성불의 본질에 대해서 명쾌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혜국 스님: 우리가 흔히 조계종에서 말하는 선은 조사선과 간화선입니다.

그렇다면 뭘 조사라 합니까? 수십 대를 전해내려 와서 도를 깨쳐서 부처와 같이 된 분들을 조사라 하고 그 분들이 참선을 통해 깨달은 것을 조사선이라 합니다. 달정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무(無)"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깨쳐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깨치는 것을 우리는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조사들의 말만 흉내를 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시험문제를 내서 분명히 깨달았는지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지요. '무'라는 관문을 세워, 그것을 화두라고 해요. 글자 자체가 화두가 아니고 그 '무'라고 한 소식 자체가 화두란 말이에요.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사선과 간화선은 조금도 차이가 없고 꼭 같은 방법이고 체제가 같아요. 둘은 깨닫는 방법이나 깨닫는 목적지나 수행하는 방법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우 스님: 흔히 독서삼매니 영화삼매니 해서 눈앞의 경계와 하나가 될 때를 삼매(三昧)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삼매와 간화선에서 강조하는 궁극적인 삼매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국 스님: 삼매란 말들 많이 써보셨지요? 간화선의 삼매는 일반적인 삼매와는 차원부터 다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삼매는 대상을 놓고 오히려 주관이 대상에 빠진 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간화선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삼매가 아니고 이름이 그저 삼매일 뿐입니다. 간화선에서 말하는 삼매는 내가 없어져 진리 자체가 되어 버린 상태를 화두삼매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설우 스님: 간화선 수행을 하는 후학과 재가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정견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혜국 스님: 그 나라의 운명과 종교의 운명은 같은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할 정도로 탄압을 받아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일부 임제종인가 조동종인가를 빼놓고는 화두를 수학공식 풀듯이 하나 풀고 나서 또 하나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화선맥이 너무나 잘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데'로 가야 인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화두 참선법은 세계 석학들이 가장 부러워할 수행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앞서가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김건웅 거사: 부처님께서 깨치신 내용 중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다는 연기법과 시공의 초월하는 절대 자리인 참나와는 그 뜻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대성을 말씀하시는 연기법의 세계와 절대적 당처를 말씀하시는 조사의 깨치신 내용과는 어찌 보면 상호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인지 깨우쳐 주십시오.



꽃샘 추위도 불자들의 구도열기를 꺾을 수 없었다. 3월12일 범어사에서 열린 설선대법회에는 지난 입제법회보다 1000여 명이 많은 4000여명의 불자들이 운집했다.

혜국 스님: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이 시계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시계를 드라이버로 다 풀어 놓으면 그게 시계입니까, 고철덩어리입니까? 고철덩어리죠. 그럼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 판과 이 기계가 서로 물고 물려서 인연을 만들었을 때만 시계라는 세계가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시간과 공간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변해가는 과정이고 모양이 있을 때만, 서로 의지해 있는 동안만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변해나가는 과정, 즉 무아로서의 혜국이고 무아로서의 시계이기 때문에 그 움직여나가는 무아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바로 중도라고 합니다. 고로 어떤 업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가는지를 봐야하고, 무아로서의 연기법을 바로 보면 조사스님들이 보라고 한 바로 그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연기법은 중도요 중도는 바로 부처님이 말한 화두라고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김건웅 거사: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행하는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하시는 것 같고 포교의 일선에 계시는 스님께서는 수행과 거리가 먼 일상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다운 모습입니까?

혜국 스님: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내가 출중하지 못해서 수행과 삶을 결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수행하는 삶 자체가 포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포교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 해야 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수행하는 삶을 보면서 참다운 신심을 내는 것도 포교요 수행하는 삶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면서 나도 한번 수행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왜 포교가 아니냔 말이죠.

저도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싶다는 원을 세웁니다. 지금 수행과 삶이 이분(二分)되어 보이는 것은 수행자들이 고쳐야 할 숙제입니다. 포교만 하는 분들도 반드시 수행을 곁들여서 삶과 수행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김건웅 거사: <선가귀감>에 이르기를 참선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기묘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대신심(大信心), 둘째는 대분심(大忿心), 셋째는 대의정(大疑情)인데, 이 가운데 신심은 있으나 분심이나 의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합지 일러 주십시오.

혜국 스님: 제 자신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면,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고 하는 수행과 내가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수행과의 차이를 알아야 그 신(信)은 확립이 됩니다. 내가 이미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만 뜨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만 확실히 서면, "그럼 왜 나는 부처가 안 된단 말인가?"하는 분심(忿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는 부처다" 하고 나서는, 연속극이나 보고 놀러나 다니고 있으니 분심이 날 수가 있나요. 신이 딱 서면 의심과 분심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어요.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하라. 텔레비전 보고, 남하고 싸움하고 하는 것은 푹 익었으니 그건 설도록 하고 앉아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참구하는 것은 설기 때문에 푹 익게 해야 합니다. 선 것을 익게 하는 것은 노력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선을 부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 5분, 단 1시간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전업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분통이 터지고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하는 시간이 늘다 보면 의심이나 분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신심과 분심과 의심을 하나로 봐서 확철대오한다면 언젠가 부처님 영산회상에서 만나서 "너희들 모두가 부처라는 그 한마디 듣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조금 쉬고 계십시오. 저희가 제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부처님을 위해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경지까지 올라가 보자 이 말입니다.

정리= 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회 이모저모

질의응답 사회, 화랑 스님이 맡아



○…지난 입제 법회 때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이 '질의응답' 사회를 맡은데 이어 이번 법회부터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화랑 스님(사진)이 법회 사회를 맡았다. 화랑 스님은 앞으로 8번에 걸친 법회의 사회를 맡는 한편 3월 19일 열릴 세 번째 법회에서는 고우 스님 법문에 대한 질의법사로도 나선다.

4000여명 도량 가득 메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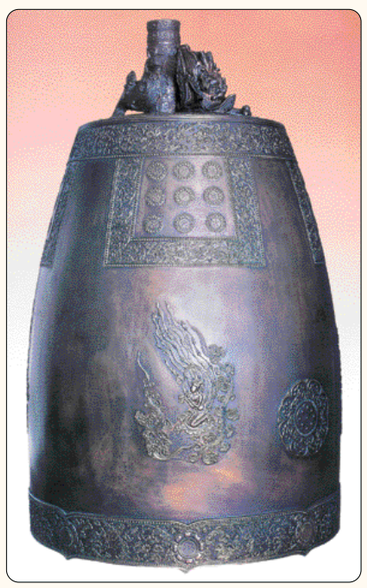
○…이날 법회는 영하 6~7도의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3월 5일 열린 입제법회 때 보다 1000여 명이 더 많은 4000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시작 3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보제루는 발 디딜 틈 없이 불자들로 가득 찼다. 법회 후 이어진 참선실수도 보제루와 설법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혜국 스님의 참가자 위한 축원

○…혜국 스님은 법회마다 참가 대중을 위한 축원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법회에서도 스님은 "오늘 모인 대중들이 잠깐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해 욕망을 따라 다니느라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이제 설선대법회에서 보리심을 발하여 세세생생 날 적마다 발심출가하고 정견을 확립해 선지식을 친견하고 필경 성불하여 지이다"고 축원했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중국 오대산, 운강석굴 순례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중국 최고의 목탑인 응현목탑 등을 전세기편으로 가장 편리하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좌석 관계로 6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전세기 특별가 4박 5일 69만원

● 출발일 : 4월 30일 ~ 5월 4일 (4박 5일)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제 1일 4/30(토)	인 천 대 원	항공 22:50 23:50	인천공항 집결 / 출국 수속 후 인천공항 출발, 중국의 대원 도착 후 호텔로 이동
제 2일 5/1(일)	대 원 오대산	전용차량	호텔투숙 / 조식 후 오대산으로 이동, 도중에 불광사, 불공삼장이 건립한 금각사, 정업한 일주문이 있는 용천사 참배
제 3일 5/2(월)	오대산	전용차량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풍대 등정, 천년고찰 현통사, 보살정, 탑원사,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조성한 수상사, 오대문수보살을 모신 대라정 등 참배
제 4일 5/3(화)	오대산 대 동	전용차량	오대산 출발 중국 최고의 응현목탑, 현공사 순례 후 대동 도착,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순례 후 호텔 투숙
제 5일 5/4(수)	대 동 대 원 인 천	항공 19:00 22:00	대동출발 / 태원 도착 후 고색 창연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숭신사, 진사 등 순례 후 태원 출발 / 인천 도착

■ 구비서류 – 여권만 제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합니다)
■ 여권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경기도 진품명품 한자리에

'미술관 옆 박물관'전 4월 4일까지 경기도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28곳서 소장품 200여점 모아


이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생광의 '토함산 해돋이'.

"우와~고우영의 '삼국지'며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이네?, 철조불상도 모셔져 있잖아? 여기 박물관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권대영(42)씨는 전시실을 가득채운 200여점의 유물과 작품을 보고 연신 신기해한다. 목아박물관, 만해기념관, 국립현대미술관, 민화박물관 등 이름만 들어도 흥미가 가는 박물관들의 진기한 전시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은 새봄을 맞아 4월 4일까지 수도권내 유명 박물관의 소장품을 한데 모은 특별전시 '미술관 옆 박물관'을 열어 386세대는 물론 젊은세대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박물관협의회 소속 38개 박물관 · 미술관 중 28개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전은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다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시장에는 불교유물, 고려자기, 조선백자로부터 조선시대 사대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 현대 서양화, 인기만화 원본 등 각 분야의 작품과 유물이 망라돼 있다.

만해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초판본과 목아박물관의 '철조불좌상', 토지박물관의 '경국대전' 등 희귀한 유물들이 봄나들이를 나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첫 여성화가 나혜석의 '무희', 이영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토함산 해돋이' 등 경기도내 7개 미술관에서 내놓은 현대 서양화 30여점은 전문가들에게도 보는 기쁨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둥지만화박물관이 꾸민 '추억의 만화책방' 코너에서는 고우영의 '삼국지', 김용환의 '코주부' 등 빛바랜 추억의 만화책이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참여행사도 준비돼 있다. 초등학생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창작해보는 '내가 꾸미는 특별전시회(3월 26일)'가 열리고 김포다도박물관과 덕포진교육박물관 답사여행(3월 27일)도 실시한다.(031)288-5388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❶

❷


❸


❹


❺

① 목각동자상(박물관얼굴).
② 대방광불화엄경(목아박물관).
③ 언더우드타자기(부천박물관).
④ 금전등록기(한국상업사박물관).
⑤ '추억의 만화책방' 코너를 관람하는 모습.

'미술관 옆 박물관' 展 주요 전시물

참가미술관 · 박물관	주요전시물
목아박물관	철조불좌상
안성맞춤박물관	유기 그릇
만해기념관	'님의 침묵' 초판본
여주왕토사료관	안동김씨 분재기
국립현대미술관	나혜석의 '무희'
영은미술관	김창열의 '회기'
경기도박물관	민누니토기
이영박물관	박생광의 '토함산해돋이'
김포다도박물관	청저연잎형음각잔
조선관요박물관	조선백자
둥지만화박물관	고우영의 '삼국지'
토지박물관	경국대전
마사미술관	준마도
등잔박물관	청동등경
박물관얼굴	목각 동자상
한국미술관	박수근의 '두여인'
부천교육박물관	세종대왕실기
해강도자미술관	고려청자
성호기념관	성호사설
영집궁시박물관	화살통
한국상업사박물관	조선시대 상림 간판
태평양박물관	백옥비녀

게시판

봄맞이 시화전 은평도서관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 내 전시장에서 봄맞이 시화전을 개최한다. 봄을 주제로 한 전시작품으로 조병화 시인의 '세월',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등 17점이 전시된다.(02)385-1671

예쁜엄마 프로젝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부의 능력을 키워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지역사회발전을 리더 할 '예쁜엄마 프로젝트'(사진)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31일까지다.(02)831-2755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3월 25일 본관 2층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선착순 30명.(02)804-4058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부산양청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제8회 양청댄스페스티발'을 4월 10일 개최한다. 경남 · 부산지역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월 26일까지 이메일(romee7@power1318.org) 신청을 받는다.(051)868-0750

청각장애아 소리찾기 KT는 저소득층 청각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아 소리찾기' 공익사업의 3차년도 수혜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인공와우 수술분야 40명, 보청기 지원분야 30명이다. 신청마감은 3월25일까지다.(031)717-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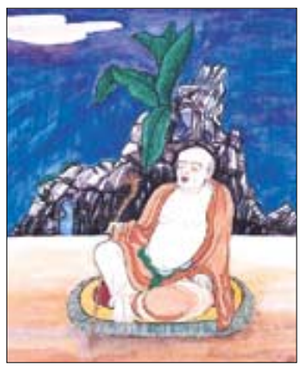
20면 상식 퍼즐 정답

출	근	부		익		
가		교	각	살	우	
재			론		등	
일	몰				생	면
	상		대			벽
	식	시	오	관		참
		세		등	고	선

전시

자유분방한 나한과 만난다

김창균 나한전, 관훈동 모로갤러리


김창균의 나한그림 중 '존자'.

새로운 형식을 모색한 나한그림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성보보존전문위원인 김창균씨는 3월 30일~4월 5일 관훈동 모로갤러리에서 첫 번 째 나한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송광사와 흥국사 등의 나한그림을 창조적으로 변형한 작품 20여점이 공개된다.

김씨의 작품은 송광사 등의 나한그림을 모델로 삼았지만, 구성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나한그림에 바위나 소나무 등의 배경을 넣어 재구성하는 등 자유로운 변용이 시도됐다. 그러나 나한의 형상은 옛 모습 그대로다. 형식과 소재에서 파격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상임 문화재전문위원이기도 한 김창균씨는 "자유분방한 모습 속에서도 늘 수행하는 자세를 보여준 나한그림을 새롭게 선보이고 싶었다"며 "정형화되고 딱딱한 불화가 아닌, 자연을 배경으로 대중들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나한그림을 통해 불교미술과 불자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739-1666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끝없는 붓질 속 그윽한 고요

강정헌 개인전, 대전교육미술관


강정헌 作 '끝없는 붓질'.

'정중동(고요함 속의 움직임)'의 동양철학의 근원을 시각적 미술로 형상화하고 있는 중견작가 강정헌이 5번째 개인전을 연다.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전시 교육청 1층 대전교육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묘사나 문맥이 아닌 '드러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특히 그의 이번 작품 중 '끝없는 붓질', '마침표' 등이 이를 대변한다.

'외관과 형상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그저 그리는 행위 자체만을 나타냈다'는 이번 전시회의 대표작 '끝없는 붓질'. 그의 그림은 붓의 터치에 따라 끝도 시작도 없는 일원상이 되기도 하고, 마침표가 되기도 한다.

"계절이 순환하듯이 붓질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하는 강 화백의 미술세계는 요행 없는 결실을 상징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과장된 작품을 선호하는 요즘 세태에서 바위처럼 묵묵히 화가로서의 삶을 고수하는 강 화백의 그림은 그 어떤 현란하고 이야기 많은 그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만든다.

목원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강정헌 작가는 지난 1978년부터 단체전 300여회를 참가 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042)483-5865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운월 달마족자'

재앙을 막아주고 각 가정마다 복과 지혜를 구족해 준다는 달마도. 마하물은 우리나라 풍속화계의 일인자인 청곡 이한동 화백의 작품 '운월 달마족자'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림크기 가로22cm×세로43cm, 가격 5만원. (02)732-1520



공연

봄 재촉하는 베버의 교향시

오페라 '마탄의 사수',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오페라 '마탄의 사수', 유명한 남성합창 '사냥꾼의 합창'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3월에 관객을 환상적인 베버의 음악 세계로 인도한다.

국립오페라단은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탄생을 알린 베버의 대표작,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오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 올린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숲의 나라 독일의 보헤미아 숲을 배경으로, 사랑을 위해 영혼을 건 사냥꾼의 마법 탄환을 향한 광기 어린 사투와 유혹을 진한 낭만의 향기로 그린 작품으로, 제1막 '숲 속의 작은 술집 앞', 제2막 '쿠노의 집', 제3막 '아가테의 방'으로 스토리를 전개한다.

특히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독일의 숲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삶의 매력을 찾아내는 신비로운 작품으로 한국 관객에게는 생소하지만, 독일에서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친숙한 작품이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제1막 '숲속의 작은 술집 앞'.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낭만적 숨결이 가득한 베버 음악의 강렬한 리듬을 잘 담아내 몽상적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는 물론 아름다움과 공포, 불안과 희망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02)586-5282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1일 06:00 불교강좌
22일 07:00 아침강좌
23일 21:05 영화음악실
24일 11:05 행복스튜디오
25일 09:05 거룩한 만남
26일 14:05 음악의 마을
27일 22:05 성전스님의 행복한 미소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1일 07:50 명상음악산책
22일 15:10 명상육아
23일 23:40 한국의 명찰
24일 13:00 열반절 특집
25일 09:00 영상니르바나
26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27일 15:3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3월 일 24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영어법문<디스커버링 부디즘>(3월 일 25오후 20:30~21:10)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영어법문을 쉽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불자가 아닌 이들도 관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절망 속에서 만난 부처님 (하)

이상문 (경기도 안양시)

항소심 재판을 위해 안양 교도소로 향하던 호송 버스 안에서 나는 뒤바뀐 세상을 보았다.

과거의 부정적이고 원망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렸다.

어느덧 호송 버스는 안양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노크하고 있었다. '삐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송 버스는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다.

호송 버스에서 내리던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부처님이셨다. 푸르른 잔디 위에 금빛으로 가득한 웅장한 부처님은 위풍당당하게 앉아 계셨고 자비로운 미소로 나를 반겨 주셨다.

교도소 첫날밤은 너무나 행복했고 부처님 품 속에서 달콤한 잠을 잤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교도소에 온 것 같지 않았다.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입산 출가하는 수행자 같았다. 아니, 나의 '마음'은 깨달음을 위해 출가하고 있었다.

안양 교도소의 첫날밤은 너무나 행복했고 부처님의 품속에서 달콤한 잠을 이루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부처님을 생각하며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다.

똑똑똑……새벽의 고요함 속에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소리였다. 나의 영혼을 일깨워 주는 소리였고, 나의 고통을 덜어 주는 관세음보살의 음성 같았다.

나는 같은 방 동료 수용자에게 물었다. 옆 동에서 들려오는 저 목탁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그러자 동료 수용자는 "저 목탁 소리는 아침저녁으로 들려오는 소리인데 너무나 시끄럽고 짜증스럽다"고 했다. 나는 너무나 이상했다. 나에게는 지금 들려오는 저 목탁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게 들리는데 동료 수용자는 왜 듣기 싫고 짜증스럽다고 할까?

그 순간 나는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 똑같은 목탁 소리가 누구에게는 아름답게 들리고 누구에게는 짜증스럽게 들리는 것은 분명 '마음'이 짓는 것이구나."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목탁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 만나기 전 무명 속에서 듣던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맑은 공기 한 모금에서도 감사와 만족(知足)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나'를 느낄 때 마다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렸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가난하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었다. 비록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교도소란 곳에 있지만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나 혼자만이 행복하다는 사실이 부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밖에 있는 가족들과 많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나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탐욕과 무명으로 가득했던 몸뚱이가 교도소의 철창 속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 감사드렸다.

무명으로 가득했던 이 몸뚱이가 이곳에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도 육신의 쾌락과 욕망만을 좇으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많은 이웃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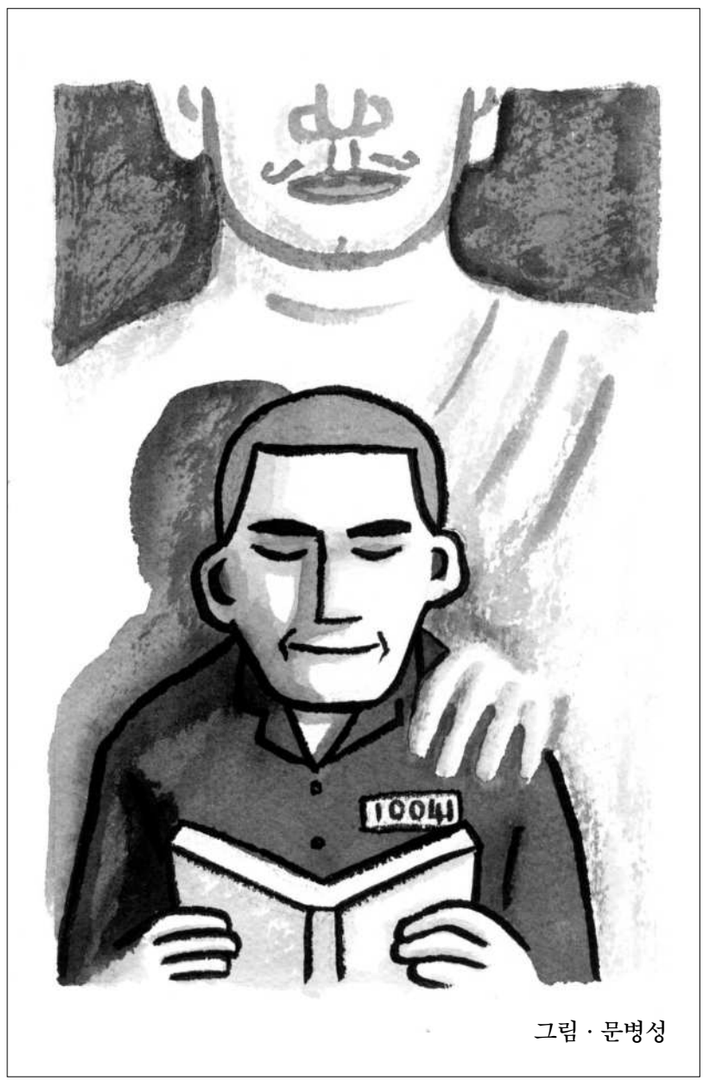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나는 부처님께 기도드렸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어리석음과 무명으로 가득했던 이 몸뚱이와 마음을 부처님의 품속에 구속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부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나는 아름다운 목탁 소리가 들려오던 그곳에서 부처님께 예불 올리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아침저녁 두 번의 예불과 찬불가 연습, 취업장의 출력, 밤 10시까지의 교리공부에 육신은 몹시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스럽고 행복하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큰스님들의 법문은 어리석음과 무명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참선 수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예불과 찬불가연습, 취침전 교리공부 육신은 고달파도 마음은 자유로웠다

참선 수행은 우리들의 맑고 깨끗한 불성(佛性)을 깨달아 견성(見性)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큰스님은 말씀하셨다.

나 또한 참선 수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른 새벽 참선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무명 속에 가리워진 참나의 본래면목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다.

아상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나!

이제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머리를 숙이며 수순할 수 있게 되었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됐다.

죽음과도 같았던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감사 올린다.

나는 오늘도 이른 새벽 부처님께 발원 올린다.

삼계 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세존이시여!

어리석음과 무명으로 가득한 제가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청정(淸淨)한 삶 살아가게 해주옵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나와 같은 절망 속에서가 아닌 행복 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불연(佛緣)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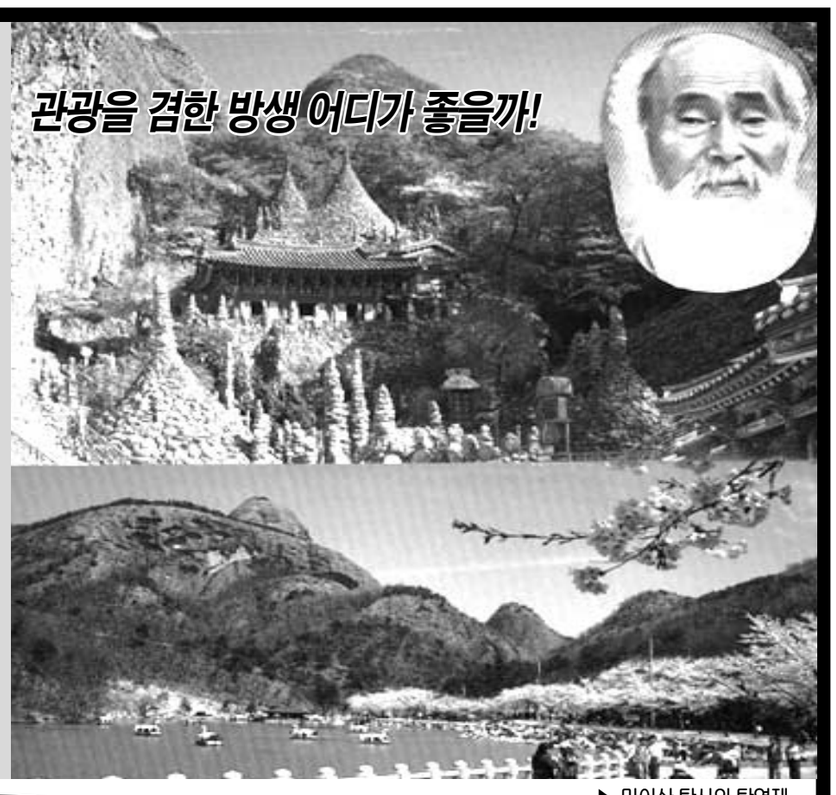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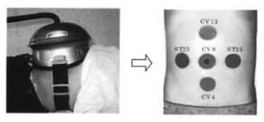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40분 전주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좌훈기 개발 출시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신상품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햇차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곡우(穀雨)에 이웃과 차 한 잔 나눠 마시는 것은 어떨까? 옛 선인전통차회는 올해부터 곡우인 4월 20일 차벗들과 차를 나누자는 '곡우데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가 펼친 '한국 전통차 시연' 모습.

"초콜릿·사탕 대신 우리 차 나눠요"

옛선인전통차회, 4월 20일을 '곡우(穀雨)데이'로


곡우를 기점으로 차인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순천 선암사 철전선원 뒤 야생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스님들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차순따기 시작하는 중요 시기
서울 대구서 길거리 행사 예정
"쉽게 즐길 수 있다" 확산 기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삼겹살데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유행 아이템이 바로 갖가지 날들을 기념하는 '○○데이(day)'들이다.

이러한 신종 기념일들은 가까운 사람들 간의 정을 확인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상술에 물든 '마케팅용 기념일'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렇다면 차 수확을 시작하는 곡우를 기념하는 '곡우데이(穀雨 Day)'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인터넷 차 동호회인 옛선인전통차회(회장 강우석)는 올해부터 곡우인 4월 20일을 차인들 간에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곡우데이'로 정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곡우는 보통 양력 4월 20일 경으로, 이날을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곡우 때는 백곡(百穀)이 윤택해진다 하여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특히 어린 차순을 따기 시작하는 곡우는 차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다.

옛선인전통차회 회원들은 4월 16~30일을 '다우절(茶友節)'로, 곡우인 4월 20일을 '곡우데이'로 정하고, 차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차나 다도구 등의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차 수확이 시작되는 곡우에 차의 미덕과 차 정신을 되새겨 보자는 뜻에서 곡우데이를 지정, 관련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동안 '차의 날'인 5월 25일에 차 관련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펼쳐 왔지만, 일반인들이 각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우절과 곡우데이는 꼭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차와 관련한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차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각 차회들은 그동안 곡우를 맞아 '곡우다회' 같은 차 모임을 열어 오고 있었고, 차를 매개로 한 기념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차인들이 많아 쉽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옛선인전통차회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인사동과 대구 하동 지역 등에서 길거리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행인들을 대상으로 차 시음회를 열어 올해 수확한 첫 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곡우의 의미와 차 생활의 도움말을 담은 팸플릿과 소량 포장한 차와 차 수저 등도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회원들에 한해서는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10g씩 포장된 곡우차도 주문을 받아 제공한다.

"다우절, 곡우데이 행사가 일반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강 회장은 "차는 비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는 '옛선인전통차회(cafe.daum.net/teakorea)'는 인터넷을 통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곳으로, 현재 3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월 5~8일 보성 다향제

마라톤, 차요리 대회 등 다채


지난해 열린 보성다향제.

올해로 31회를 맞는 전남 보성다향제가 5월 5일부터 8일까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녹차'를 주제로 보성 체육공원과 녹차밭 일대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2005 보성녹차마라톤'이 개최돼 차인들뿐만 아니라 마라톤 애호가들의 발길을 보성으로 이끌 예정이다.

축제는 4일 밤 전야제인 '다향의 밤'을 시작으로 다신제, 차잎 따기, 전국 차요리 경연대회, 제12회 국제명차선정 한국출품작예선, 한중일 차문화 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이뤄진다. 일림산 철쭉제, 대원사 전통문화체험,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 국궁대회, 게이트볼대회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다향제는 문화관광부 선정 2005년도 유망축제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며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한 '참여형 웰빙 축제'로 거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한 보성녹차의 지역혁신 사례 발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061)850-5223

한편 보성 녹차밭과 율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보성녹차마라톤은 5km, 10km, 하프코스, 풀코스로 나누어 진행되며 접수는 4월 16일까지 받는다. (02)548-5658

"녹차, 하루 3잔 가장 몸에 좋아"

美 헬스데이뉴스, 연구결과 발표

"녹차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좋을까?"

처음 차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법한 의문이다. 차가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마셔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의학뉴스 전문통신 헬스데이뉴스 인터넷판은 최근 녹차를 효과적으로 마시기 위해서는 3~5분 정도 우려낸 상태로 하루 석잔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몸에 좋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녹차가 과일이나 채소로부터의 철분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레몬이나 우유를 첨가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헬스데이뉴스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 녹차를 마시면 피부암, 유방암, 폐암, 결장암 등 각종 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차와 홍차, 우롱차에 포함된 산화방지제가 건강에 해로운 LDL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반면 건강에 이로운 HDL콜레스테롤은 늘려주며 동맥의 기능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나왔다고 밝혔다.



유학자들 中 다학·다법 익혀 차 발전에 도움

고려시대 ⑩

조정에서 왕이 차를 상음(常飮)하고 다방을 정비했다. 불가의 스님들이 대부분 차인으로 높은 수양과 참선을 차를 통해 이루려 했으니, 그들의 생활에서 차를 떼고 얘기하기 힘들다. 유학자들은 중국에 다녀오는 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그곳의 다학(茶學)과 다법(茶法)을 익혀와 우리 차 문화는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된다.

이색 같은 이는 아버지를 이어 차를 즐기는 가풍을 일으켰으며, 사사(寺社)에게도 법계를 이어오면서 그들의 다풍을 전승했다. 중국도 원의 조정에서 차에 관한 제도정비를 했으니, 국가재정에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다유국(茶由局)의 설치나 다세 징수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차의 생산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일본도 정치하는 무인들이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사찰을 중심으로 그들의 차생활이 이루어졌다.

① 원천석: 고려시대 치악산에 은거한 은사(隱士)로 이의차 사백(李宜差 師伯)에게 보낸 다시가 전한다.

② 태고보우(1301~1382): 원에 들어가 석옹청공에게 인가받고 임제종풍의 간화선을 전법했다.

③ 홍규: 충숙왕의 장인으로 원에 다녀왔으며 다시가 전한다.

④ 나옹화상(1320~?): 법명은 혜근. 차를 즐겨 '적다(摘茶)' '일완다(一椀茶)' 등의 다시를 남겼다.

⑤ 이색(1328~1396): 삼은(三隱) 중 한 사람이다. 차를 즐겨 수십여 수의 다시를 지었다.

⑥ 예찬(1301~1374): 시서화가로 차를 아주 좋아했다. 고원경이 쓴 〈운림유사〉에는 그가 마셨다는 천백석차(泉白石茶)와 고아한 다풍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⑦ 도안(1315~1371): 시인으로 차를 즐겨 '성중야직(省中夜直)' 같은 다시를 남겼다.

⑧ 마치원(1251~1321): 원대 희곡작가로 '한궁추' 속의 여러 곳에 차에 관한 대사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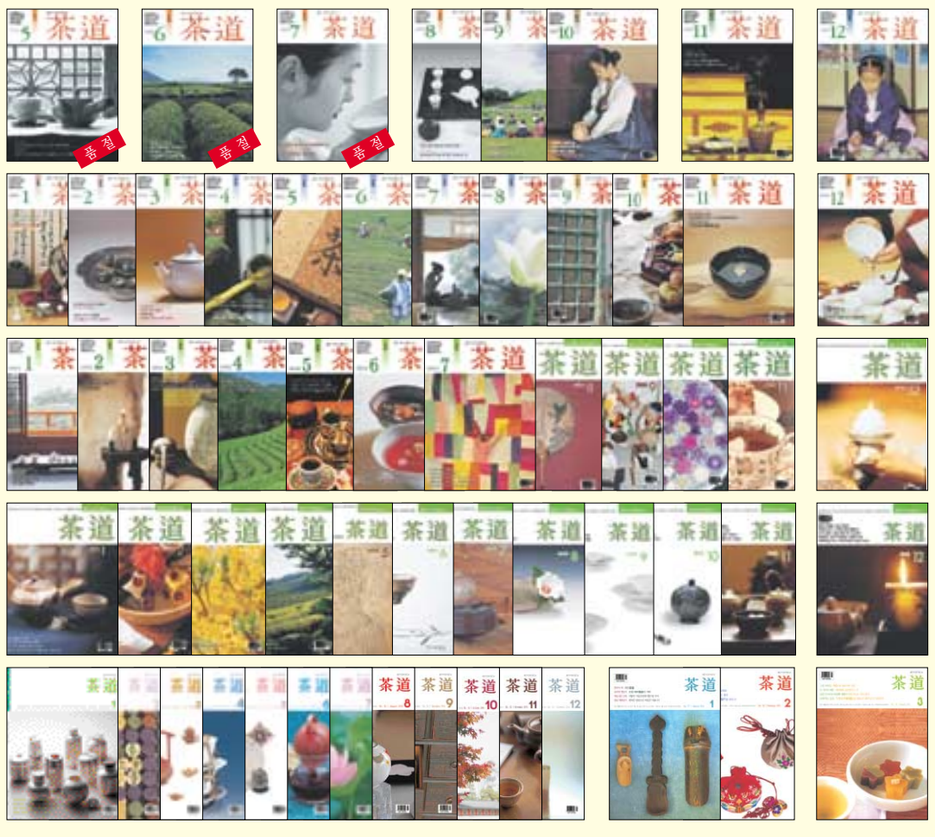
⑨ 원각(1266~1327): 원대 문장가로 시에 능하고 차를 놓아해 '자다도(煮茶圖)'라는 작품을 남겼다.

⑩ 〈화 원 원 진 기 (花 園 院 震紀)〉(1324)에 조신들이 차 모임을 가졌다고 적혀 있다.

⑪ 〈몽중문답〉(1325): 몽창국사가 쓴 책으로 '중국인은 양생을 위해 차를 마시고 일본인은 참선을 위해 차를 마신다'고 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1300 원천석의 출생 ①, 이승휴의 죽음	원대	1301 예찬 ⑥	가마쿠라	
	1301 태고보우 ②				
	1306 안향의 죽음				
	1308 근시, 다방의 정액 조정				
	왕이 신효사에서 차를 마심				
	1312 근시 다방 회복		1313 각다비험소, 다유국(茶由局) 설치		1313 투다가 성행
	1314 서적 5800여 권을 들여옴		1315 도안 ⑦		1316 북조고시 집권
	1316 홍규의 죽음 ③		@ 〈운선잡기(雲仙雜記)〉		
	1318 정사도의 다시(茶詩)		1318 강남의 다세(茶稅)를 늘임		
	1320 나옹화상의 출생 ④		1321 마치원의 죽음 ⑧		
	1324 안축, 원의 과거에 등과				1324 음다회를 가짐 〈화원원진기〉 ⑩
	1328 이색의 출생 ⑤		1327 원각의 죽음 ⑨		1325 〈몽중문답(夢中問答)〉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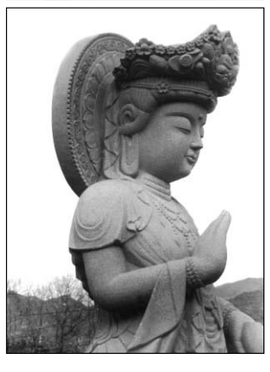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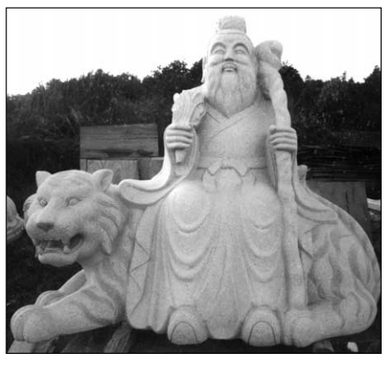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자기 주처를 믿고 일체를 거기다 놓아라!

모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문 저는 작년부터 마음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자리 없이, 그 자리를 믿고 놓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특별히 세우지 않고 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계속 한곳에 놓으면서 믿는 마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의식을 모은다 할까요? 그렇게 모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답 그냥 허황되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구도 우리 몸뚱이와 같아요. 지구도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서 쉬지 않고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달린 바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바퀴가 그냥 쉴새없이 돌아가도 중심은 끄떡없이 있어요. 바퀴만 돌아갈 뿐이에요. 바퀴가 돌아갈 뿐이라고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중심에다가 놔라 이거예요. 바퀴 돌아가는 거는 일체 쉬는 사이가 없이 그대로 돌아가요. 정맥 동맥이 뛰고 돌아가듯 지금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있다구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도 그냥 그대로 자기에요.

그런데 그대로 자기가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 세계에 포괄적인 우주의 근본이 바로 이 중심에 직결이 돼 있거든요. 지구의 중심도 인간의 중심에 직결이 돼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다가 그대로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굴리는 거니까. 갈아 내고 안 갈아 내는 건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냥 거기다가 놓으세요. 기계가 돌아가니까 갈아 내야 하는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스스로 갈아져요. 갈아져서 그걸 가져온 사람에게 그냥 가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데 거기다 넣지 않으면 갈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 넣지를 않겠습니까? 만약에 물건이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고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중심 바퀴가 돌아가는 데다가 넣어서 갈아 내면 모두 먹고, 또 갈아 낼 게 있으면 또 갖다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이치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중심이 빠지면 송장이 된다는 걸 왜 몰라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결정짓고 나쁘다 좋다는 것도 알지요. 중심이 없으면 나쁘다 좋다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알겠어요. 자기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는 반면에 균형을 잡기 때문에 두뇌에서 모든 거를 다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도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남의 뿌릴 믿을 거예요, 남의 나무를 믿을 거예요, 남의 고깃덩어릴 믿을 거예요, 남의 이름을 믿을 거예요, 허공을 믿을 거예요? 뭘 믿는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중심을 믿어야 해요. 팔뚝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있잖아요. 팔뚝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있으니까 뭐라도 잡고 일을 하지요. 그러니 팔뚝과 손이 같은 거예요. 중심과 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아무걸 넣어도 갈아 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자기 조수로 만드는 법이지요.

배고프다면 저절로 젖이 그냥 쭉쭉 나와야 그게 젖소지, 아! 배고픈 사람이 와도 젖이 안 나온다면 그건 젖소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든지 넣고 갈아 낼 수가 있어야 젖을 먹이고 배고프지 않게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컵을 들고 물을 뜨고 이러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마실 줄 모른다면 이건 헛것입니다, 헛것.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줄 수 있겠어요. 남이 배고픈 줄 어떻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질문하신 분으로 봐도 그렇고 우주를 봐도 그래요.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을 기준해서 그냥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막 돌아가기 때문에 병 불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도는 막 돌아가는 중심에 의해서, 중심만이 아니라 바퀴도 중심도 물건 넣는 것도 모두가 한데 합쳐서 돌아간다면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으로서 나투는 법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화할 수가 있나요. 자기를 못 믿어 봤자지요, 뭐. 자기를 못 믿어 봤자 자기만 손해죠, 뭐. 딴 사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처를 믿고 일체를 거기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놓고 관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각각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명입니다

법당에는 왜 가야 하는지요?

문 다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질문 올립니다.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믿고 일체를 다 그 자리에 돌려놓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내 안의 자성불이 본래 있으니 내 마음에 불을 켜고 내 마음내키는 대로 자유스럽게 산다면 굳이 법당에 계신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요?

답 항상 마음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무심의 불이 켜져 있는데 바깥 세상에나 안 세상이나 똑같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내가 한 거만큼 받게 돼 있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올라가서도 부처님 형상이 바로 내 몸이요, 부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임을 알면 절을 해도 둘이 아니니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런 마음으로, 나 아님이 없으니까 정성스런 마음으로 내가 나한테, 즉 말하자면 현재 의식이 잠재의식 그 자체에 한데 귀합된, 우주 삼라만상이 귀합된, 귀합된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 바로 내 주처에 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은 자기 주처에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는 항상 끌려 다니면서 예배 올리는 겁니다.

법당에 올라가도 내 주처에 모두 귀합된 대공(大空),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없이 한데 귀합된 주처에 예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깐 법당에 와서 불을 켜고 마음을 같이 한다 이 소리죠. 부처님과 나와 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주처에 다 예배 올리는 거라고요. 일체가 다 공한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생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누군 생명이 있고 누군 생명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건지고 계시며, 부처님 마음은 항상 돼지 속에도 들어가고, 소 속에도 들어가고 일체 만 중생들한테 다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얼마만큼 해야 이 도리를 알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깐 모두들 공부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봐도 바로 그 몸이 내 몸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개미를 봐도 개미의 생명도 내 생명이요, 그 개미가 먹고 살려고 기어다니는 것도 인간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도 허탈히 볼 게 없어요. 다 귀중하죠. 그리고 유생 무생 일체 만물이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명이 바로 일체 만물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각각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교가 따로 있고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똑같으니까 여러 생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공했다는 소리가 나온 거지요, 생명이 없어서 공했다는 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주처에 모든 걸 놔 버려라, 다 놔 버린 그 가운데 내가 하겠으면 그냥 하는 대로 밀고 나가라 이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밥 먹겠으면 그냥 내가 밥 먹으라는 거죠. '주인공이시여, 나 밥 먹겠습니다.' 이러고 먹는 거봤어요? 내가 배고프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처에서 움죽거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으로.

사상을 깨뜨리려면

문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의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마음공부의 측면에서 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마음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것이 사상을 깨어 버리고 우리가 본 근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둘 아닌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지. 사상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간다.' 이런 거니까. 또는 '내가 중생이다, 내 나이가 이러니까 이만큼 하면 수자의 근본이 이렇다.' 하고 나를 세우는 그 자체가 사상(四相)이지.

그럼 그 사상 속에 다 들어 있단 말이야. 아만이나 아상이나 남을 업신여겨 보는 거나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나, 하여튼 모든 것을 얕게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부처님을 볼 때도 높이 보지도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얕게 보지도 말고 자기와 같이만 봐라 이거야. 자기 모습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하고, 자기 생명같이 생각하고, 자기 살아나가는 데 어려운 것같이 생각하고 모두가 둘 아니게 이렇게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아래는 아랫사람의 도리를 해야 하고 위는 윗사람의 도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서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지. 근본 뜻은 평등공법으로서 나가되 질서를 정연하게 지키고 나가는 것이야. 이렇게 평등공법이 아니라면 질서를 지킬 수가 없고 계율을 지킬 수가 없어. 계율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구. 계율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화를 내고 악을 쓰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순간에 불뚝 나오는 거지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업이 되는 거야. 천연적으로 사상을 다 깨뜨려 버렸다면, 관해서 거기다 놓고 다 평등하게 됐다면 스스로서 그렇게 돼, 스스로서. 스스로서 어떤 걸 보든지 나같이 볼 수 있어. 하다못해 꽃 한 송이를 봐도 나같이 볼 수가 있어. 내 설움같이 볼 수 있고, 내 아픔같이 볼 수 있고, 내 어려움같이 볼 수 있고, 못난 나같이 볼 수 있고, 잘난 나같이 볼 수 있고, 모두 둘 아니게 말이야. 이런 게 중요하지, 책을 위로 꿰고 바로 꿴다고 그래서, 그것이 질서정연한 게 아니야. 율법이 옳고 그르고 한다면 이건 벌써 선(禪)에는 그릇된 거라 이 소리야. 옳고 그른 게 없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옳고 그른 게 없이 해라 이러기 이전에 사상을 깨트려 버려라 이거야.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다 놓고 가면 다 그냥 계율을 지킬 수 있다 이거야. 함이 없이 하니까.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게 하나나 있나 보라구. 자연의 진리를 가만히 습득해서 봐. 처음에는 육안으로 보다가 차차차차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깐 심안으로 들어가게 돼. 또 더 차차 하다 보니깐 혜안으로 들어. 혜안으로 들다 보니깐 전체 평등공법으로서 불안으로 들게 돼 있어. 사람이 마음을 맘대로 쓰라고 허용한 것이 마음이야. 마음을 맘대로 쓰라고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맘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각처각급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모두가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니까 무엇을 하나 구성하지 못해. 그게 무슨 까닭이냐. 자기 마음과 자기가 통하질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몸이 집이라면 바로 자기 집 속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 주인 없는 집은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 이 자체가 그냥 순간순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빈집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 집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 주인 없는 집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오는 것 보이지 않는 데서 대치를 해야 하는데 대치를 할 수가 없거든. 집이 비었으니깐 말이야. 그러니깐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 나무는 너부터 알아라. 네 뿌리부터 믿고 알아라.' 이거야. 잘났든 못났든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깐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깨닫지 못함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상봉해야 된다. 왜냐?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도 다 한마음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 한마음으로 조절을 안 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보살들이 전부 탄생이 돼서 이 이름 저 이름 천차만별로 보살의 이름을 지어서 응신으로서 모든 중생, 일체 만물만생, 천차만별의 중생들에게 다 베풀고 나가는데 내가 나하고 상봉을 못한다면, 또 상봉을 해서 의식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한생각만, 그냥 생각이 아니야. 한생각 한다면 그냥 모두 어디든지 길 없는 길을 가고 그냥 함이 없이 거침없이 하는 거야. 그것이 부처님의 도리고 보살의 행이야.

부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만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의 이름을 지어서 내 놓는 게 아니야. 우리들도 부처님과 똑같애. 둘이 아니야. 부처님의 몸도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그 반면에 저 미생물, 물에서 노는 고기, 들에서 노는 짐승, 허공

☞30면으로 계속

주처에 모든 걸 놔 버린 그 가운데 내가 하겠으면 그냥 하는 대로 밀고 나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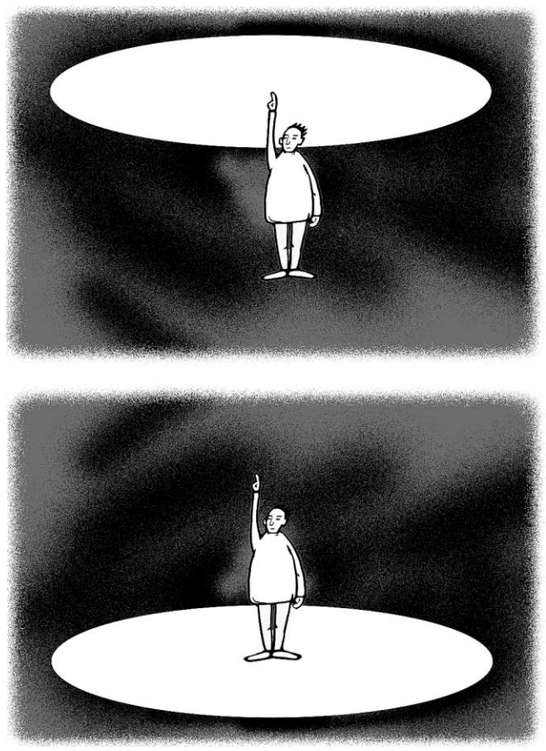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29면에서 계속

에 날라 다니는 새, 질척한 데서 사는 생명들 이런 것도 둘이 아니란 얘기야, 그 도리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하나도 스스로서 자기가 살면서 진화를 하게 돼 있어. 모든 게 다 진화를 하고 형성되고 진화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뜻을 자꾸자꾸 일깨워 자기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깐 모두 어느 거 하나 없이 다 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부요 깨우침이야.

나는 부지런히 깨우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어. 부지런히 내가 빨리 해야겠다 하면은 빨리 하겠다는 대로 가슴이 답답하게 돼 있어. 또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게으른 생각이 들어가서 답답하구. 그러니까 양면을 다 놓으란 말이야. 그대로 물 흐르는 거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란 얘기지. 어느 게 들어온들, 어느 게 들어와도 물러서지 말구. '아이구! 이렇게 더러운 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구. 흙물이든 고름물이든 핏물이든 오물이든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그냥 집어삼킬 수 있다면, 그냥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이거야. 그러면 편안해. 악도 집어삼키고 선도 집어삼킨다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 그 가운데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상이다 뭐다 하기 이전에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밖에서 들어오는 거든 일체를 나온 자리에다 다시 돌려넣는 작업부터 해 봐. 그러면 하나하나 알게 될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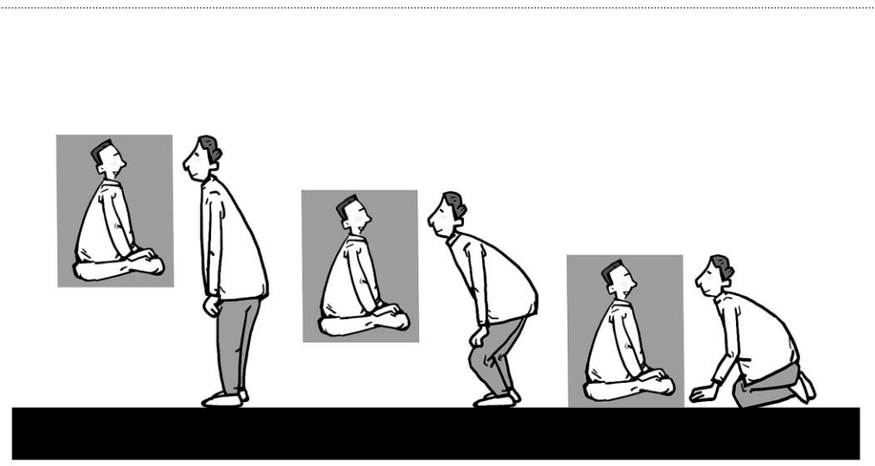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흙물이든 고름물이든 핏물이든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정성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 우리가 불법공부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겠다고 소원을 한다면, 불법도 세간 법하고 똑같아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할 때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성과를 내는 걸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희사를 하는 겁니까?

답 살면서 어떤 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요? 그러면 바로 에너지가 그리로 가고 와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걸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같이 하고 같이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고차원적인 양반이 죽었다고 해도 상여는 필요하지요? 상여가 아니라 영구차가 필요하지요? 그와 같이 누구에게든 영구차가 필요하고 영구차 끄는 기사도 필요하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살고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사는데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해서 같이 살고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벌어다 먹는 거니깐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저거 해도 괜찮은가요? 그럼 자기한테 돌아갈 복도 없거니와 전자에 억겁 전년서부터 지어 온 업보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날까지 끌고 다니면서 인간으로 진화돼서 창조되게끔 한 장본인이 누군가를 보란 말입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부처님이라고 했다, 주인공이라고 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이름에 또 매달립니다.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의 이름에서 떼어 놓으려고 했더니만 거기 또 집착을 하고 덤비니까 그거조차도 놔 버려라 이거예요. 모든 걸 놔 버리는데 어디다 놓느냐? 내 주처에 놔 버려라 이겁니다. 모든 게 공한 도리에 다 놔 버리면 바로 그것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나가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되면 안되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 능력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 만물 만생이 같이 행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인간 자체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것이 한 울에 모든 게,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 보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습을 내버리고 고정되게 관념으로 잡던 습을 내버리고, 즉 말하자면 이 도리가 전부 하나의 공한 내 주처다. 그러니 모든 거를 거기다가 일임해서 놔 버려라 이거예요. 놔 버리면서 이거다 저거다 이유를 붙이지 말고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생각내면 생각내는 대로 주처에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인식만 가져라 이거예요. 주처에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 바로 자기가 주처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해 나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 안 하고 대가 받는 법 봤습니까? 한 달 일하고 대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혼자 하고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전부 같이 하고 같이 먹으니까 내가 예배를 올려야지요? 안 그래요? 그러게 누구한테다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자기 주처에다 하는 거죠, 전부 귀합된 주처에다 하는 겁니다.

악도 집어삼키고 선도 집어삼킨다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예배 올리고 불 켜고 그런 거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올려라 이거예요. 올리면서 바로 나는 그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일체가 귀합된 자기 주처, 시간과 공간이 없는 대공의 이치를 바로 자기가 가지고, 주처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전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갖다가 보시하는 것도 그런 데서 온 거다 이겁니다.

그래, 기껏 남을 부려먹고 나만 먹겠다 그러고 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새가 자비심이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농사짓는 사람 생각 한번 안 하고 농사짓는 거 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또 농사짓는 사람은 우리가 정치가라든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람이 죽으면 염하는 사람, 관 파는 사람, 신발 파는 사람, 뭐 별별 상업자가 다 있고 장사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깐 우리가 보시를 해도 그건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한테 자기가 보시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산 거 고마워서, 감사해서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생활의 지침을, 모든 걸 파악하고 잘 검토해서 참구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누가 살고 있는가? 누가 가고 있는가? 누가 듣고 있는가? 누가 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서 나를 알았을 때 그 모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는 거를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나의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불생불멸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윤회에 끄달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소리죠, 끄달리지 않고 말입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적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주문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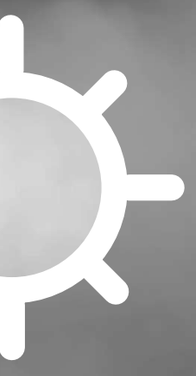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봄철 天然 재료로 피부 가꾸기

탱탱하게 맑게 자신있게

대학생 이승현(21 · 서울 송파구 문정동)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 트러블 때문에 울상이었다. 봄이 된 후부터 피부가 심하게 당기고 건조하더니 급기야 뺨과 입술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다. 게다가 황사주의보라도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뾰루지가 돋았다. 고민 끝에 이씨는 피부염증에 좋다는 녹차가루로 비누를 만들었다. 이씨는 녹차비누를 직접 만들어 쓴지 1주일 만에 예전 피부를 되찾았다. 이씨는 "향료나 방부제, 각종 색소 등의 불필요한 화학첨가제가 없어 자극이 적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천연화장품의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봄철 피부를 천연재료로 맑게 가꾸는 법을 알아보자.



과일팩으로 각질제거 · 보습을 동시에

봄철에 각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피부 세포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 스크럽제를 이용해 무리해서 제거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진다. 햇살고운한의원의 정선옥 한방에스테틱 실장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팩을 주 1~2회 정도 하면 피부 트러블과 각질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토마토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봄철 지친 피부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자외선 양이 늘어나 주근깨와 기미가 가장 잘 생기는 계절도 바로 봄철이다. 따라서 보습과 자외선 대책을 동시에 세우는 게 좋다. 비타민A, B, C, 단백질, 미네랄 등이 많이 함유되어 피부 진정효과, 항염증, 가려움증 치료에 효과적인 오이로 화장수를 만들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는 동시에 기미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발진 피부염 유발하는 먼지, 천연비누로 '싹'

봄철 황사기간에는 한 사람이 흡입하는 먼지의 양이 평상시의 3배, 금속성분은 종류에 따라 2배에서 10배가량 많아진다. 이러한 먼지나 중금속, 꽃가루 등이 닿으면 피부는 발진, 가려움증, 따가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더러워진 피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모세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도 둔화된다.

그래서 외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안하는 것이 필수다. 미지근한 물과 천연비누로 씻으면 자극이 적다. '맑고 향기롭게 환경강좌'에서 지난해 '천연비누 만드는 법'을 강의했던 곽태현 천연화장품연구소 하우연대표는 "녹차비누의 경우 피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항박테리아,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 환절기에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추천한다.

로션 통해 피부 유분공급 및 균형 유지

봄철 피부는 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피지나 땀의 분비가 일정하지 않아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피부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로션으로 유분공급을 적절히 해줄 필요가 있다. 꽃마을한방병원 천승철 피부과전문의는 "한방에서는 피부가 트거나 갈라질 때 맥문동, 숙지황, 당귀 등을 처방한다"며 "특히 당귀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어 칙칙한 피부를 윤택하고 맑게 만들어준다"고 전한다. 올리브유에 당귀를 넣고 숙성한 액을 글리세린과 섞으면 피부 진정효과가 탁월한 당귀 로션을 만들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천연화장품 직접 만드세요



● 녹차 비누

① 팜유 264g, 올리브유 264g, 야자유 264g을 스테인레스 용기에 가열, 40℃로 녹인 후 녹차가루 10g을 섞는다. ②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오일에 가성소다액을 부어 주걱으로 섞은 후 우유팩에 넣는다. ③ 24시간 동안 이불을 덮어 보온한다. ④ 4주간 그늘에서 숙성시킨 후 사용한다.

● 토마토 팩

① 토마토 1개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제거한다. ② 옥수수 전분 1/4컵과 같이 갈아준다. ③ 얼굴에 바른 후 3~5분 후 찬물로 씻어준다.

● 오이 화장수

① 자른 오이를 병에 넣고 잠길 정도로 알코올을 붓는다. ② 매일 흔들어 주면서 일주일간 우려낸 후 용액만 걸러낸다. ③ 용액 10g과 글리세린 5g, 정제수 85g을 혼합하여 스킨으로 만든다. ④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쓰는 것이 좋다.

● 당귀 로션

① 당귀를 병에 넣고 잠길 정도로 올리브유를 붓는다. ② 매일 흔들어 주면서 15일간 숙성시킨 후 용액만 걸러낸다. ③ 용액 15g, 유화왁스 5g을 전자레인지에 녹여 섞은 후 70℃로 중탕 가열한다. ④ 정제수 76g에 글리세린 4g을 녹인다. 70℃로 가열해 둔다. ⑤ ④에 ③을 서서히 부으면서 5분 정도 휘저으면 로션이 완성된다.

도움말=하우연(www.hauyon.net)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0)

바른 식습관 · 건전한 생활이 최우선

문(問)·설(舌)·요(尿)·망(望)·맥(脈) 순으로 진단
조제 약 250여가지, 수행·물리적 요법은 최후 시행

지난 호에 세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려 병을 일으키는 주된 장기적 원인으로 무지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 무지는 다시 탐 진 치 삼독을 낳는다.

그런데 병을 일으키는 보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섭생, 불건전한 생활습관, 그리고 시기적 요인들이 있다. 그런 여러 원인들이 서로 맞물려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티베트의사들은 먼저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으로 환자의 병증을 소상하게 묻고 듣는 문진(問診)으로 병을 진단해 나간다. 그 다음 설진(舌診,tongue diagnosis)과 요진(尿診,urinalysis)을 통해 환자를 전체적으로 망진(望診)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진맥을 통해 환자의 맥상을 살피는 맥진을 행한다. 맥진은 티베트의사들이 가장 즐겨 쓰는 중요한 촉진(觸診)의 한 방법으로 수기(手技)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중의학(한의학)의 맥진과 다르고 정확도에 있어 최첨단 장비로 중무장(?)한 현대의학의 진단소견과 높은 합치률을 자랑한다.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가 시작된다. 치료의 일차 목표는 세 기본에너지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교정해 주는 것이다. 마치 한의학에서 음양의 허실이나 오행의 부조화를 바로잡아 치료하듯이 지나치게 과도한 에너지는 줄이고 부족한 에너지는 증강시키는 원리를 적용한다. 티베트의학은 어떤 기적 같은 마술이나 신통을 부리는 신비적 의술이 아니다. 대대로 전승되어 오며 당대의 석학 대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되어 탄탄한 이론체계를 갖춘 역사로 고증된 전통의학이다. 마치 한 단지의 벌꿀이 한두 송이의 꽃에서만 채취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꽃에서 모아지듯이 티베트의학 또한 시대를 풍미한 수많은 명의와 대의승(大醫僧)들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학식들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빚어진 지고의 산물인 것이다. 지식에 끝이 있을 수 없듯이 티베트의학도 새로운 질병에 맞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한다.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의학원에는 현대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티베트의학에서는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우선 식이 치료와 생활 지도를 먼저 하고 그것으로 차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물을 처방한다. 바른 식습관과 건전한 생활양식의 복원은 모든 처방에 최우선하는 치료과정의 첫 단계이다.

티베트약물학은 그 깊이와 다양성에 있어 놀랍도록 세밀하고 풍부하다. 보석 미네랄(광물질) 금속 흙 수액 나무 그리고 약초 식물들을 두루 약제로 사용한다. 적게는 세 가지에서 많게는 150여 가지나 되는 성분들을 조합하여 한 가지 처방약을 조제한다. 그래서 지금 조제되고 있는 약의 종류만도 대략 25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파드마28'이란 약은 서구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영국 런던의 미들섹스(Middlesex)병원 임상시험 결과 혈관계질환에 특효가 있으며, B형 C형 간염에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약효를 검증해 볼 티베트의약의 종류는 250여 가지나 된다. 그만큼 티베트의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이 되겠다.

약물 외에도 티베트의학에서는 수행이나 물리적 요법들을 쓴다. 현재 시술되고 있는 요법으로는 구(뜸) 흡각 그리고 금침 요법같은 것들이 있다. 수행이나 물리적 요법들은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된다.

롱 에너지의 미세한 운행을 훈련하는 수련인 토모(tomo)요가라는 고급 티베트명상법이 있다. 근래 티베트의학 국제회의에서 토모요가 명상이 울증에 대한 비약물학적 자구 치료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토모요가를 수련하는 스님들은 간신히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명상을 통해 몸에 두른 젖은 옷을 완전히 말릴 수 있었다. 그리고 깊은 명상 중에 말초피부 온도를 높임으로써 마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처의 치료효과를 촉진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수행건강학과
대구 · 부산지역 학생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장소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무량의경 (한문)
● 묘법연화경 (한문)
● 관 · 보현보살 행법경 (한문)
● 두뇌운동법 (의념) ● 호흡운동법 (조절)
● 유회운동법 (동작) ● 음식영양학 (체질)
● 기타교양과목 (특강)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전10시30분-12시30분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4시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수행지도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건강활법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평생학부과정 진학자격부여 (평생무료학습)
● 이스트 웨스트 대학교 대체의학과에 편입가능
● 수료후 연구활동 등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財)韓國平生大學

제3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선착순 약간명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3기 개강일 2005년 3월 중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최면-전생-빙의치유 상담
– 개인상담 및 치유, 교육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 및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섭식장애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상담심리, 최면 및 전생치료, NLP치료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과 전생퇴행", "NLP의 원리"와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kmseol@daum.net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8) 의성 고운사

울창한 솔숲 재선충 북상에 위기

계곡 바닥에 맞춰 세운 '가운루(駕雲樓)' 자연 순응한 인공미 자랑


고운사 소나무는 30~40년생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 그늘 아래에 어린 소나무들도 송송 올라오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의성 고운사는 천상 구름의 절집이다. 등지고 앉은 산 이름(騰雲山)이 그렇고, 그 산자락에 앉은 절 이름(孤雲寺)이 그렇고, 그 계곡에 걸터앉은 누각의 이름들(駕雲樓, 雨花樓) 또한 그렇다. 그리고 시끌벅적한 사하촌을 떨쳐버린 고고한 은적(隱迹)이 구름의 절집답다.

500여 미터의 숲길 옛모습 그대로



주차장에 내리면 절까지는 약 500m. 눈맛 좋은 숲길이 호젓하게 이어져 있다.

절로 가는 길은 전통적으로 그윽하고 호젓한 숲길이었다. 그러나 개발시대에 들어서면서 '편의와 속도'를 끊임없이 요구받아 그 오랜 숲길들이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다. 부드럽게 굽이돌던 숲길은 직선화되고, 오솔길처럼 호젓하던 숲길은 넓어지고, 부드럽던 흙길은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뒤덮였다. 생명의 길이 기계의 길로 바뀐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운사 숲길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생명의 숲길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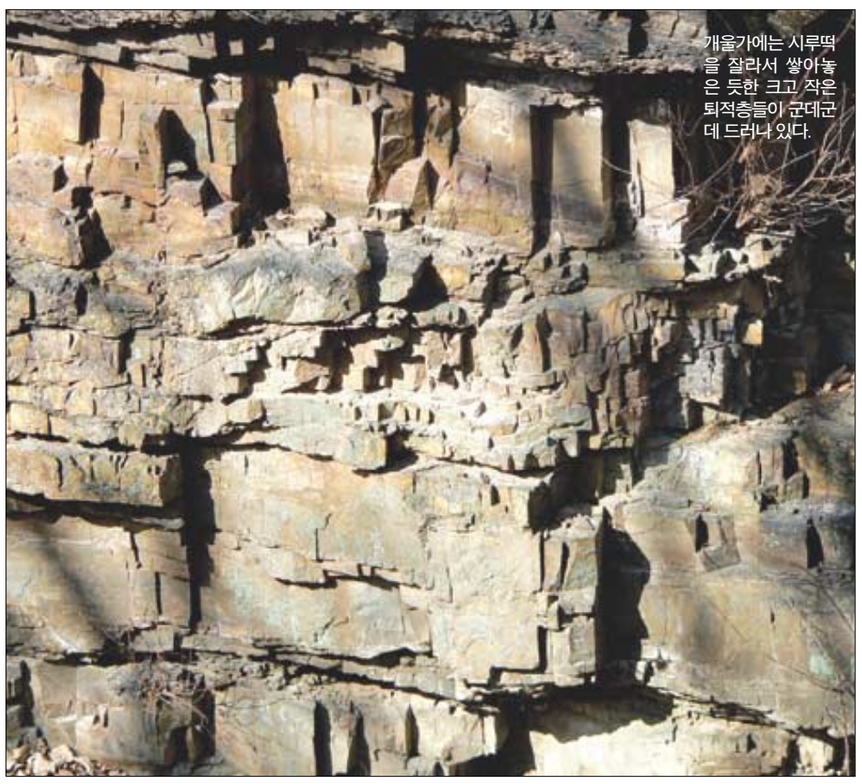
한 가지 유감인 것은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라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 바람에 길섶의 나무와 풀들이 흙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숲길 주변의 식생은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주종을 이룬다. 활엽수로는 굴참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등이 주류를 이루고, 더러 고사목도 눈에 띈다. 지난 겨울 눈을 못이겨 가지가 부러진 설해목과 개울가에서 있는 늙은 왕버들도 눈에 들어온다. 왕버들은 물을 좋아해서 '하류(河柳)'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왕버들은 대개 개울 쪽으로 비스듬히 자라는데, 그것은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자구책이다. 밑둥치 지름이 1m까지 자라기 때문에 개울가에 심어두면 조경가치도 있고, 수해로부터 개울을 지켜주기도 한다.

개울가 퇴적층 백악기 산물로 남아

개울가에는 시루떡을 잘라서 쌓아놓은 듯한 크고 작은 퇴적층들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 이 퇴적층은 의성지방 일대가 거대한 호수였던 지질시대의 흔적이다. 의성군 일대 여러 곳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도 그 시대의 산물이다.

숲을 벗어나면 저만큼 일주문이 보이고 경내가 시야에 들어온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200여년 뒤의 인물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과의 인연사가 더 깊다. 원래의 이름이었던 '高雲寺'가 '孤雲寺'로 바뀐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개울가에는 시루떡을 잘라서 쌓아놓은 듯한 크고 작은 퇴적층들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

일주문 옆으로 계류를 막아서 만든 자그마한 저수지(孤雲池)가 있다. 이름만 저수지일 뿐, 연못 규모다.

등운산은 계곡도 크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물이 부족해 건천화가 심하다. 게다가 표토(表土)가 얇아 물을 많이 머금어주지 못해서 계류에 물이 부족하다.

목이 마르기는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골짜기에 물이 없으니 야생동물들이 고운사 연못까지 물을 마시러 내려온다. 사람도 그렇듯이 찬 물을 마시면 생리적으로 배설을 하게 된다. 금방 응아를 하고 간 고라니의 배설물이 말랑말랑하다. 고라니 배설물은 까만 콩과 흡사하다.

고라니는 노루와 멧토끼의 중간 크기이다. 노루보다 훨씬 작고, 암수 모두 뿔이 없기 때문에 노루와 쉽게 구별이 된다. 겨울에 짝짓기를 끝내고 요즘 암컷들은 한창 태교 중이다. 녹음이 짙어지면 등운산 관목림 덤불 속에서 몸을 푼다. 주위에는 멧토끼 배설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멧돼지도 등운산의 식솔들이다. 가끔 마을까지 내려와 고구마밭을 작살낸다고 구계마을에서 온 한 거사가 일러준다.

최치원이 세웠다는 가운루(駕雲樓)는 계류의 양쪽에 걸쳐 지은 큰 건물이다. 몸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樓下柱)들의 길이가 제각각이다. 계곡 바닥의 높낮이에 맞추어 세웠기 때문이다. 그 기둥들이 구름 위에 지은 듯한 시각적인 리듬을 준다. 자연에 순응한 인공은 이미 인공이 아니다.

계류 건너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는 우화루(羽化樓)는 이름만으로도 도가(道家)의 냄새가 짙다. 우화루 안에는 피안의 세계를 상징하는 '雨花樓'라는 불교 현판이 걸려있다. 이 우화루는 계류 서쪽의 허함을 비보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우화루의 호랑이 벽화는 살아있는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그것은 벽화 아래 지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이의 눈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화공이 그것을 고려해 그린 것이다. 그 벽화 속에는 '늘 깨어 있으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다.

극락전과 연수전 뒤로는 숲이 황폐하다. 2003년 매미 태풍 때 큰 소나무들이 많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등운산 일대는 표토가 얕아서 직근(直根)을 가진 소나무들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태풍만 불면 곧잘 넘어진다. 그때 쓰러진 나무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보인다.

연수전 부근 계류 복개로 수해 위험


고운사 조실채 기둥.

연수전을 지나면 명부전, 삼성각, 연지암, 약사전, 아거각, 객실 등이 일곽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본디 계류가 흘렀다.

지금은 모두 복개하여 자갈을 깔아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개된 계류의 입수구가 좁아서 큰물이 지면 수해를 입을 위험을 안고 있다.

나한전 옆 조실채 기둥의 나무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등천하는 용틀임이다. 나무는 죽어서도 사는 법을 알고 있다. 옆에 세워놓은 노스님의 지팡이가 대극적이다.

고운사 딱새는 요즘 짝짓기가 한창이다. 딱새는 어느 절에서나 쉽게 관찰되는 텃새이다. 크기는 암수 모두 참새만 하다. 수컷은 검은색과 붉은색이 많고, 날개에 흰점을 갖고 있어서 예쁘다.

요즘이 짝짓기철이다. 당우의 공포나 나무 밑에 이끼나 나무껍질 등으로 밥사발 모양의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나무 위에 앉아 붉은 꼬리를 파르르 떤다고 일명 무당새라고도 부른다.

등운산은 소나무가 우점종이다. 몸집 좋은 노송을 비롯 30~40년생 청 장년 소나무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 그늘 아래에 어린 소나무들도 송송 올라오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활엽수로는 느티나무, 굴참나무, 산벚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개암나무, 때죽나무, 산초나무, 단풍나무, 진달래, 철쭉, 다래 등이 들머리 숲과 골짜기를 따라 길게 나 있지만, 세가 약하다. 당분간 등운산은 소나무 전성시대를 이룰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이 포항-영천선까지 북상해 있기 때문에 고운사에서는 늘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등운산 산줄기가 영천-포항으로 논스톱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고운사는 본사 치고는 도량도 좁고, 이렇다할 생태적 특징도 없지만, 때묻지 않아 더욱 고즈넉하고 수더분한 산사의 맛을 지니고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반짝반짝 빛나는 단쇠(쇠덩이) 같은 것이다.
▷ 날개가 달려 있다.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바퀴가 달려있다.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쏴:제트분사)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主모시듯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에 UFO(우주인)을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궤변과 비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하느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요.

卍 · 心
(만의 위대한 힘)
만 성 지 음

卍의 최초 해설서

卍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卍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 도 기

회 · 원 · 모 · 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